


碩士學位論文

# 濟州島 蛇神說話의 特性 研究

-本土 蛇神說話와의 比較-

The logo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s a large, faint watermark in the background. It features a stylized flame or leaf shape in blue, green, and grey, with a purple 'J' shape to its right. The text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is written in a circular path around the central graphic. Below the graphic, the text 'JEJU 1952' is visible.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姜 徹

2010年 2月

# 濟州島 蛇神說話의 特性 研究

-本土 蛇神說話와의 比較-

指導教授 許 椿

姜 徹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2月

姜徹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0年 2月

A Study on the Traits of Snake Tales in Jeju-do  
-Comparison with Snake Tales in Mainland-

Kang Cheol

(Supervised by professor Heo Ch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

2010.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目 次

I. 序論 .....	1
1. 研究의 目的 .....	1
2. 研究史 檢討 .....	3
3. 研究 資料와 研究 方法 .....	6
II. 濟州 蛇神說話의 傳承 樣相과 意味 .....	9
1. 蛇神이 人間보다 優位에 있는 이야기 .....	10
1) 濟州의 境遇 .....	10
2) 本土의 境遇 .....	17
3) 意味 .....	21
2. 蛇神과 人間이 對決하는 이야기 .....	21
1) 濟州의 境遇 .....	22
2) 本土의 境遇 .....	32
3) 意味 .....	37
3. 人間이 蛇神보다 優位에 있는 이야기 .....	37
1) 濟州의 境遇 .....	38
2) 本土의 境遇 .....	41
3) 意味 .....	43
III. 蛇神說話의 文學的 受容의 樣相과 意味 .....	45
1. 文學的 受容의 樣相 .....	45
1) 蛇神의 優位 .....	47
2) 蛇神과 人間의 對決 .....	51
3) 人間의 優位 .....	57
2. 文學的 受容의 意味 .....	59
IV. 結論 .....	60
參考文獻 .....	62
Abstract .....	66
<附錄> 全國의 蛇神說話 資料 概要 .....	68

# I. 序 論

## 1. 研究의 目的

뱀의 속성은 일상적으로 겨울에는 땅 속에서 동면을 했다가 봄이 되면 지상으로 나와서 살며, 나무나 땅굴 속, 물에서도 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한편, 설화 속에 나타나는 뱀은 대개 상반되는 속성을 지닌다. 뱀이 善者로 상징될 때는 생명의 탄생과 永生不死<sup>1)</sup>를 기원하는 대상이 되며, 국가와 마을의 수호신으로 행운과 多産을 가져다주는 靈物로 나타난다. 뱀은 물과 관계가 깊은 동물로서 그 물로 인하여 생산력을 배가 시키는 존재로 나타난다.<sup>2)</sup> 또한, 뱀은 남성의 상징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夜來者 설화와 같이 夜來者의 정체처럼 나타난다.

한편, 민간에서는 뱀을 업으로 생각하여 그 업이 눈에 보이는 것을 나쁜 징조로 생각한다. 그래서 정월 첫 巳日인 뱀날에는 머리를 빗지 않는 풍습이 있다. 이 날 머리를 빗으면 그 해 집안에 뱀이 들어온다는 俗信이 있어, 머리 빗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또 이 날 일을 하면 뱀이 들어온다고 하여 일을 하지 않고 쉰다.<sup>3)</sup>

업에는 구렁이업이 일반적이다. 민간에서는 울 안의 구렁이가 나가면 가운이 쇠퇴하고, 구렁이가 들어오면 흥한다고 한다. 이 구렁이를 중남부 지방에서는 ‘지킴’ 또는 ‘찌끼미’라고 하여 성스러운 동물로 신봉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現身하는 경우에는 그 집에 좋지 않을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여 몸을 감출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sup>4)</sup> 때로 구렁이업은 상상적 동물로 영험을 드러내는 용의 이미지와 代置되면서 神格化되어 신성한 동물로 나타나고 있다.

1) 不生不死한다는 관념은 뱀의 탈피에서 비롯되었다. 탈피는 뱀의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뱀은 탈피하지 못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탈피에 온 힘을 다한다. 탈피를 통해서도 뱀의 건강, 성장의 정도, 살고 있는 환경의 적합성 등을 판단할 수 있다.(吉野裕子, 『蛇：日本の蛇信仰』, 講談社, 1999, 33~34쪽.)

뱀은 성장할 때 허물을 벗는다. 그것이 죽음으로부터 매번 재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라는 인식을 낳게 한 듯하다. 뱀이 재생한다는 내용은 제주의 서사무가 ‘차사 본풀이’에도 나온다.(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편, 『韓國文化 상징사전 1』, 두산동아, 1992, 326쪽.)

2) 金烈圭,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一潮閣, 1971, 244~245쪽.

3) 李杜鉉 외, 『韓國民俗學概說(改訂版)』, 學研社, 1983, 228~229쪽.

4) 金和經, 『韓國說話의 研究』, 嶺南大學校出版部, 1987, 143쪽.

제주도는 뱀이 서식하기에 알맞은 지역으로 예로부터 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sup>5)</sup> 그런 이유로 가까이 있으나 외경의 대상인 뱀을 神格의 대상으로 삼았다. 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징그럽고 피하고 싶으면서도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오늘날에 와서 많이 퇴색하긴 했지만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서 뱀을 崇拜하는 관행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sup>6)</sup> 제주도의 蛇神信仰은 무속과 관련되어 무속 의례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어서 고유한 생활 양식의 일부가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婚姻과 居住 등에 제약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sup>7)</sup>하고 있다.

제주도에 대해 기술한 여러 문헌 기록을 보면, 뱀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 가지 찾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풍속에 몹시 뱀을 꺼려하여 이것을 신이라 해서 받들어서 이것을 보면 곧 술을 뿌리고 주문을 외우며 거룩한 신으로 받들고 감히 쫓아내거나 죽이지 않는다.”<sup>8)</sup>

“지금 蛇神을 숭봉하는 풍속이 옛날에 비길만큼 심하지는 않다.”<sup>9)</sup>

“이 지방에는 뱀, 독사, 지네가 많은데 만약 회색 뱀을 보면 차귀의 신이라 하여 금하여 죽이지 않는다.”<sup>10)</sup>

“섬 중에서 두려운 것은 구렁이가 제일 무섭다. …… 섬 사람들은 구렁이와 뱀을 구별함이 없이 보이기만 하면 이를 부군신령이라 하여 쌀과 정수를 뿌리면서 그에게 빌며 이를 살육하는 바가 없다.”<sup>11)</sup>

5) 제주도에 서식하는 뱀은 도마뱀(Scincella vandenburghi), 줄장지뱀(Takyromus wolteri), 대륙유혈목이(Amphiesma vivakari ruthveni), 누룩뱀(Elaphe dione), 유혈목이(Rhabdophis tigrinus tigrinus), 비바리뱀(Sibynophis chinensis), 실뱀(Coluber spinalis), 쇠살모사(Gloydus ussuriensis) 등이다. 이 중에서 누룩뱀은 구렁이라고 불리고, 비바리뱀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만 분포하는 종이다.(幽泉 金源澤 教授 停年退任 記念集 『제주의 야생동물 이야기』, 幽泉 金源澤 教授 停年退任 記念集 發刊委員會, 아트 21, 2009. 226~233쪽.)

6) 하순애, 『제주도 신당(神堂) 이야기』,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72쪽.

7) 李起旭, 『濟州島 蛇神崇拜의 生態學』, 『濟州島研究』 제6집, 濟州島研究會, 1989. 183쪽.

8) 俗甚忌蛇 奉以爲神 見卽呪酒 不敢驅殺(金淨, <濟州風土錄>)

9) 今則崇奉蛇神之風 不此昔時尤甚(金尙憲, <南槎錄>)

10) 地多蛇 蜈蚣 若見炭色蛇 則以 爲遮歸之神 禁不殺(李元鎮, <耽羅志>)

11) 島中 可畏者 無過於蟒蛇 …… 島人則 勿論蟒蛇見之 輒謂之府君神靈 必而精米淨水洒 而祈之切不殺害(李健, <濟州風土記>)

“또 봄 가을로 남녀가 광양당, 차귀당에 무리로 모여 술과 고기를 갖추어 신에게 제사한다. 또 그 당에 뱀·독사·지네가 많은데, 만일 회색 뱀을 보면 차귀의 신이라 하여 죽이지 말라고 금한다.”<sup>12)</sup>

“성황사는 다른 이름으로 차귀당이다. 풍속이 뱀과 귀신을 제사한다. 당집 벽, 들보, 주춧돌에 여러 뱀이 덩어리로 뭉치는데 제사할 때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상서로운 일로 삼는다. 차귀의 글자는 곧 사귀 글자의 그릇된 것이다.”<sup>13)</sup>

인용된 글을 통해 제주 지역에서 蛇神信仰이 널리 퍼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설화도 많이 傳承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蛇神說話의 양상을 분류하고, 그 의미를 해명함으로써 제주 설화를 파악하는 하나의 方法論을 제시하고, 그것이 현대에 와서 문학 작품으로 受容된 경우를 밝히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 2. 研究史 檢討

제주의 蛇神信仰과 관련된 蛇神說話에 대한 연구는 간간이 이루어졌는데, 본격적인 연구는 1930년대에 일본인 학자인 秋葉 隆에 의해 이루어졌다.<sup>14)</sup> 그는 ‘차귀섬’은 본래 ‘蛇鬼’신앙에서 유래되었다고 보았다. 토산, 차귀악 등 산기슭이나 구릉 위의 숲이 무성한 곳과 관련되는 蛇神 즉 遮歸信仰은 산의 蛇鬼로써 상징되는 山村人 사회의 고문화로, 해촌의 용신과 이와 결합한 영등할망 신앙을 해촌문화의 특징으로 보았다. 그래서 산촌의 고문화는 일찍이 섬의 대부분에 성행하였으나 해촌의 신문화에 의한 압박으로 그 신앙권이 좁혀져서 오늘에 이르러 겨우 섬의 동남쪽 구석에 한정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蛇神信仰이 제주도 전역에

12) 又於春秋 男女群聚廣壤堂 具酒肉祭神 又地多蛇虺蜈蚣 若見炭色蛇則以爲遮歸之神禁不殺.(〈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濟州牧 風俗條)

13) 城隍祠 一名 遮歸堂 俗祀蛇鬼 屋壁樑礎群蛇盤結祭時以不爲祥 遮歸字即蛇鬼字之誤.(〈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大靜縣 祠廟條)

14) 秋葉 隆, 심우성 譯, 『朝鮮民俗誌』, 동문선, 1993.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 일원이 모두 이러한 ‘蛇神信仰圈’에 속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秦聖麒는 蛇神들의 기원을 당신화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在來神과 外來神으로 구분하였다. 蛇神의 이주는 제주도가 삼면의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 蛇神信仰도 해외 여러 나라의 문화와 일찍부터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sup>15)</sup> 그러나 蛇神信仰이 한반도 전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本土와의 비교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卓明煥은 兎山堂 신화 속에서 나타나는 뱀이란 성의 상징이고 무의식 속에 숨겨진 성적 욕구가 뱀이라는 신앙 대상을 통해 승화되었다<sup>16)</sup>고 주장한다. 흔히 뱀은 외적 형태와 집요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인해 남성 상징으로 해석하기는 하지만, 한정된 부분을 확대 해석하여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玄吉彦은 지배 집단과 신앙민의 대결 의식으로 蛇神說話를 살피며,<sup>17)</sup> 蛇神을 철폐한 관리가 복수를 당하는 것은 토속 신앙에 뿌리박은 민중의 저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신앙민들과 유교적 지배층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 것이 김녕뱀굴 전설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논의는 제주 설화 해석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鳥越憲三郎은 兎山里 당신신화에서 처녀가 왜적에게 겁탈 당하는 화소는 1552년(명종 7년) 여름의 川尾浦 왜침 사건을 설화화한 것으로, 심방들이 미신적·주술적 요소를 도입하여 그릇된 신탁을 함으로써 과도한 蛇神信仰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다.<sup>18)</sup> 아울러 제주의 사례와 오끼나와, 일본 본토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비교 연구의 가능성을 열었다. 왜적이 제주를 침범한 기록이 1323년(충숙왕 10년)부터 1556년(명종 11

15) 秦聖麒, 『濟州道の 뱀信仰』, 『韓國文化人類學』 第10輯, 韓國文化人類學會, 1978. 110~123쪽.

秦聖麒는 蛇神의 출현 경로와 유형을 아래와 같이 나누었다.

1. 在來神: 김녕굴당(金寧窟堂)의 ‘괴노깃또’ 뱀신
2. 外來神: ① 하늘과 관계지은 뱀신(두리빌레용해부인할마님)  
② 한반도에서 건너온 뱀신(토산당신)  
③ 중국에서 흘러나온 뱀신(칠성안집)  
④ 남양열대지방에서 흘러들어온 뱀신(차귀당신)

16) 卓明煥, 『濟州 蛇神信仰에 對한 小考: 兎山堂 뱀信仰을 中心으로』, 『韓國文化人類學』 第10輯, 韓國文化人類學會, 1978, 71~78쪽.

17) 玄吉彦, 『蛇神傳說的 考察: 金寧蛇窟전설을 中心으로』, 『蘭斯 石宙善博士古稀紀念 民俗學論叢Ⅱ』, 蘭斯 石宙善博士 古稀紀念論叢 刊行委員會, 1982, 309~326쪽.

18) 鳥越憲三郎, 『蛇神と兎山里の信仰』, 『耽羅』 1號, 大阪: 日本耽羅學會, 1988, 21~55쪽.



년)까지 240년 동안 30여 차례나 되고, 그에 따라 도민들의 왜적에 대한 적개심도 대단하였다<sup>19)</sup>는 것으로 보아 타당한 점이 있다.

李起旭은 蛇神說話와 관련된 蛇神信仰을 生態人類學的인 면에서 접근하고 있다.<sup>20)</sup>人間에게 이로움을 주는 동물을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蛇神信仰을 해석하였고, 이것은 제주 선주민들이 환경에의 적응 양식의 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접 학문의 성과가 제주의 蛇神說話를 연구하는 데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문무병은 蛇神의 선악 양면성을 밝히면서, 蛇神說話를 통해 씨족 중심의 祖上守護神에서 마을공동체 신앙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칠성새남>, <토산당굿>, <요왕맞이>, <용놀이> 등의 蛇神儀禮를 통해 고찰하였다.<sup>21)</sup>

또한, 玄容駿은 제주의 蛇神을 一般神인 칠성신, 각 마을의 堂에 정좌하고 있는 마을의 守護神인 堂神, 일가와 일족에 관련된 祖上神으로 구분하고 있다. 一般神인 칠성신은 제주도 전 지역에서 숭상되는 신으로 보고 있다.<sup>22)</sup>

이후에 玄容駿·玄丞桓은 그간의 연구를 종합하면서, 제주의 蛇神說話를 분석하여 그 신앙의 실태와 대응시켜 그 실상을 밝혔고, 본토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sup>23)</sup> 또한, 제주도민의 뱀 신앙 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새마을 운동, 주택 개량, 교육 수준의 향상, 생활 의식의 변화 등 사회 변동에 의해 蛇神信仰이 변화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19)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2000, 101~104쪽.

20) 李起旭, 「濟州島 蛇神崇拜의 生態學」, 『濟州島研究』 제6집, 濟州島研究會, 1989, 181~212쪽.

실제적이고 세속적인 요인들이, 기이하게 보이는 신앙이나 관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관점이다. 그리고 이 접근 방식은 신앙이나 특정 관행이 어떤 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긴밀히 관련될 수 있다는 가정에 의존한다고 하고 있다. 즉 농작물을 쥐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하는 것에서 사신신앙이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쥐의 천적인 뱀에 대한 보호책이 사회적 규율로 채택되었고 끝내는 신화화함으로써 종교적인 해결책으로 유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21) 문무병, 「濟州島 蛇神信仰 研究 : 蛇神儀禮를 중심으로」, 『濟州島言語民俗論叢』, 玄容駿博士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92, 405~442쪽.

22) 玄容駿,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集文堂, 1992, 67~164쪽.

제주에 전하는 50여개의 당신화를 海神堂系, 本郷堂系, 七日堂系, 八日堂系로 나누고 본향당 신화들은 송당계, 한라산출생신계, 외래계, 기타계로 나누었다. 여기에서 사신신앙은 八日堂(여드렛당)이다. 여드렛당은 3월, 6월, 11월의 8일에 거행되는데 제물로는 메, 쌀, 헤어물, 오물떡, 과일, 채소류 등이 마련되고 단골 무당이 제의를 주관하여 거행한다. 여드렛당신의 유래는 <토산당 본풀이>에 전하고 있다. 이 신은 본래 나주 금성산에서 처녀공회를 받던 여신으로서 이곳에서 퇴치된 이후 죽은 뱀이 바둑돌로 변하여 한양으로 진상갔던 제주도의 진상객에 빙의하여 입도한 토산당에 좌정한 신이다.

23) 玄容駿·玄丞桓, 「濟州島 뱀神話와 信仰 研究」, 『耽羅文化』 第15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

蛇神 신앙 의식은 제주도 전역에 남아 있음을 밝혔다.

미술 분야와 蛇神說話를 연결한 연구<sup>24)</sup>가 있어 주목된다. 제주의 蛇神信仰과 설화의 세계를 무정형고체인 유리를 소재로 사용하여 조형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제주도 土俗文化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여 그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있다.

이처럼 蛇神說話에 대한 연구는 제주의 蛇神說話를 규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本土의 蛇神說話와의 본격적인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本土의 蛇神說話와의 비교를 통하여 제주 蛇神說話의 樣相을 살피고, 意味와 位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3. 研究 資料와 研究 方法

제주도의 蛇神說話는 비교적 많이 채록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대상으로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金榮敦·玄容駿·玄吉彦, 『濟州說話集成(1)』,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이하 『集成(1)』이라 약칭함.)
- (2) 『韓國口碑文學大系』 전 83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1989.(이하 『大系』라 약칭함.)
- (3)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4)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이하 『事典』이라 약칭함.)
- (5) \_\_\_\_\_, 『濟州島神話』, 瑞文堂, 1976.
- (6) \_\_\_\_\_, 『濟州島傳說』, 瑞文堂, 1976.
- (7)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
- (8) 임동권, 『한국의 민담』, 서문당, 1996(개정판).
- (9) 최운식, 『한국의 민담』 1, 2, 시인사, 1999(제2판).

24) 양윤영, 『제주도의 뱀 상징 무속신화를 주제로 한 유리조형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4.

자료 (1)과 (2)는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자료집으로 설화가 傳承되는 現場性을 비교적 잘 살린 것들이다. 본토의 蛇神說話는 주로 (2)를 대상으로 삼았다. 자료 (3)은 제주도 무가본풀이를 집대성한 자료집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여기에는 口演者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본풀이들이 수록되어 있어, 蛇神說話의 원형을 추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료 (4)는 제주도의 당신본풀이가 거의 수록되어 있어, 자료(5)와 함께 蛇神說話의 계통과 구조를 파악하는데 적절하며, 자료 (6)에는 蛇神 전설이 많이 채록되어 있어, 蛇神說話의 樣相을 살피는데 용이하다. 자료 (7)을 통해서 제주 蛇神信仰의 형태를 살필 수 있다. 자료 (8)과 (9)는 본토의 蛇神說話에서 民譚의 형태로 전하는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蛇神說話가 부분적으로 언급된 것이 있으나,<sup>25)</sup> 본고에서는 위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며, 이상의 연구 대상이 되는 자료와 그 외 필자가 조사한 전국의 蛇神說話 목록과 개요는 뒤에 제시하겠다.

본 연구의 목표와 의의에 도달하기 위한 연구방법 및 서술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주 蛇神說話의 양상과 그 의미를 검토해 보고, 이를 본토와 비교하여 특성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설화 연구의 출발은 자료의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에서 비롯한다.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다른 作品群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작품의 양상과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설화의 유형화는 작품의 내용과 구조에 의한 분류와 그것을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분류는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단정지을 수 없고, 두 가지 방법을 아우르며 이루어져야 한다. 이야기의 구조적인 원리는 이야기의 傳承者들의 의식 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蛇神說話는 人間이 蛇神을 인식하는 다양한 양상을 이야기의 형식을 빌어 형상화한 것으로, 이런 인식의 정도에 따라 이야기의 양상이 달라지는

25) 이외의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 呂榮澤 編, 『울릉도의 傳說·民謠』, 正音社, 1978.
- 任哲宰, 『韓國口傳說話(全羅南道·濟州道 篇)』, 평민사, 1992.
- 진성기, 『남국의 민담』, 형설출판사, 1976.
- \_\_\_\_\_, 『南國의 傳說』, 學文社, 1978(增補版).
- 崔常壽, 『韓國民間傳說集』, 통문관, 1958.
- 현용준, 『濟州島 民譚』,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6.
- 『學術調査報告書』第7輯,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國語教育科, 1982.
- 赤松智城·秋葉 隆, 『朝鮮巫俗の研究(上)』, 大阪屋號書店, 1937.

것이다.

뱀은 그 외형으로 인해 人間의 의식 속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거나 배척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 堂神이나 업으로 모셔졌다. 특히, 蛇神說話에서는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人間과의 의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蛇神說話에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 중 蛇神과 人間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를 토대로 하여 제주의 蛇神說話의 양상과 의미를 ① 蛇神이 優位에 있는 이야기, ② 蛇神과 人間이 對決하는 이야기, ③ 人間이 蛇神보다 優位에 있는 이야기로 나누어서 내용을 분석하고, 현대에 와서 문학적으로 어떻게 受容되었는지 제주의 蛇神說話에 나타난 양상에 맞추어 그 구체화된 모습을 찾아 심층적 의미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런 분류를 통하여 제주의 蛇神說話의 면모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蛇神說話의 내용을 분석하여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을 적용하려고 한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의 蛇神說話를 본토의 蛇神說話와 비교하여, 그 意味를 살펴보겠다.

## II. 濟州島 蛇神說話의 傳承 樣相과 意味

說話에 나타나는 뱀은 人間에게 혐오스러운 존재로서 原罪의 표상이며, 동시에 용과 더불어 神格化되어 豐饒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인식된다. 그래서 이를 소재한 蛇神說話는 전세계적으로 傳承되고 있다. 또한 蛇神說話는 이야기를 傳承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파생되어 나타난다.

뱀을 神格으로 인식하는 설화에서는 蛇神은 人間에게 敬畏와 崇拜의 대상이 되고, 人間에게 福을 주는 주체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타나는 蛇神은 人間에게 富貴와 安寧을 보장해주는 존재로서 人間보다 優位에 있다. 하지만, 優越的 위치에 있던 蛇神의 모습은 점차로 人間과의 對決로 가게 된다. 이전의 蛇神에 대한 神聖性은 사라지고, 人間에 의해 除治되거나, 除治된 후 人間에게 복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崇拜의 대상에서 對決의 대상으로 변모한 蛇神은 점차로 人間에게 도움을 받는 존재로 格下된 모습을 보인다. 傳承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蛇神說話의 윤곽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제주의 경우는 蛇神信仰이 있어 蛇神이 인간에 대해 優越的 위치를 지닌 설화가 많이 남아 있다. 제주의 蛇神 崇拜는 다른 섬이나 본토에 없는 특이한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제주와 같이 육지와 비교적 멀리 떨어진 울릉도도 뱀에 대한 태도는 비교적 우호적이지만 崇拜하지는 않는다.<sup>26)</sup> 그것은 울릉도가 조선조 때만 해도 空島 정책이 시행되었고, 본격적으로 개척된 것이 1883년(고종 20년)으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sup>27)</sup>

이 장에서는 제주의 蛇神說話를 분석하여 본토의 설화와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제주와 본토의 설화에서의 ‘蛇神이 人間보다 優位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살펴본 후, 다음으로 ‘蛇神과 人間이 對決하는 이야기’ 유형과 ‘人間이 蛇神보다 優位에 있는 이야기’ 유형을 통해 제주의 蛇神說話가 지닌 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다만, 이 장에서 분류한 ‘蛇神이 人間보다 優位에 있는 이야기’, ‘蛇神과 人間이 對決하는 이야기’, ‘人間이 蛇神보다 優位에 있는 이야기’로 유형

26) 許椿, 「濟州 說話의 特性 研究」, 『濟州島 研究』 제16집, 濟州學會, 1999, 165쪽.

27) 『울릉도의 傳說·民謠』(呂榮澤 編, 正音社, 1977.)에는 뱀과 관련된 이야기가 <노총각과 물뱀>과 <개구리와 뱀과 지네> 2편이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을 분류한 것은 진화 발전 단계로 설정한 아니라, 傳承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의 한 유형으로, 人間이 蛇神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蛇神과 人間の 관계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설정한 것이다.

## 1. 蛇神이 人間보다 優位에 있는 이야기

민간신앙에서 뱀은 지역에 따라 ‘業, 業位, 司倉神, 業主, 業神’ 등<sup>28)</sup>으로 불린다. 그것은 주로 창고 광의 한쪽, 노적가리, 천장, 마루, 가옥의 ‘고팡’에 위치하며, 재물신으로 家財 및 家福을 관장하는 신, 産神, 財物神으로 家財와 家福을 담당하거나 집안의 興亡을 관장하는 財神의 기능을 한다.<sup>29)</sup> 家神으로서 업 신앙은 중부지방에는 비교적 뚜렷하지만, 호남이나 영남 지방에는 그 흔적이 희미하다. 원래는 영남이나 호남에도 존재했으나 거의 사라져 버린 민속으로 볼 수 있다.<sup>30)</sup>

하지만, 제주도에는 아직까지도 뱀을 칠성이라 하여 ‘안칠성, 밧칠성’으로 傳承되고 있다. 여기에서 제주의 蛇神에 대한 崇拜는 제주만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본토의 업 신앙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이지만, 본토부에서는 거의 자취가 사라지고 없다. 또한, 제주에는 蛇神信仰과 함께 본풀이가 남아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 1) 濟州의 境遇

人間에게 崇拜의 대상으로서 蛇神이 傳承되고 있는 蛇神說話의 경우 제주에 존재하는 <칠성본풀이><sup>31)</sup>는 전국에서 유일한 蛇神의 좌정담이다. <칠성본풀이>의 각편도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秋葉 隆, 현용준, 진성기, 문무병, 장주근에 의해 모두 7편이 채록되었다. 우선 채록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8) 천진기, 『한국동물민속론』, 민속원, 2003, 269~270쪽.

29) 김형주, 「민초들의 지킴이 신앙」, 민속원, 2002, 41~45쪽.

김광언, 『한국의 집지킴이』, 다락방, 2000, 130~145쪽.

30) 玄容駿·玄丞桓, 앞의 글, 40~41쪽.

31) <칠성본풀이>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다른 <칠성풀이>는 지역에 따라서 관북지방에서는 <살풀이>, 관서지방에서는 <성신굿>, 호남지역지방에서는 <칠성풀이>, 제주도에서는 <문전본풀이>, <남선비>로 각기 불려진다. (서대적,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323쪽.)

연번	편명	제보자	채록자	발표지	발표(채록)
①	칠성본뿌리	박봉춘	秋葉 隆	朝鮮巫俗の研究(上)	1937
②	칠성본풀이	안사인	현용준	濟州島巫俗資料事典	1980
③	칠성본	이무생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1991
④	칠성본	고창학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1991
⑤	칠성본	-	-	風俗巫音	1994
⑥	칠성본풀이	한생소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 열두본풀이 자료집	1998
⑦	칠성본풀이	고대중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2001(1962)

<표 1> 칠성본풀이 採錄 資料

제주도의 당본풀이는 같은 내용인 듯하면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드러나는 각편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사구조의 동일함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기가 어렵다.<sup>32)</sup> 위의 채록된 <칠성본풀이> 중에서 ①, ③, ④, ⑤는七星祈子型으로七星에게 祈子하여 딸을 낳는 특징이 두드러지고, ②, ⑥, ⑦은 寺刹祈子型으로 사찰에 祈子하여 딸을 낳는 이야기<sup>33)</sup>이다. 칠성본풀이는 딸을 낳는데, 칠성제를 지낸 정성으로 딸을 짐지받아 낳는 것이 특색으로, 寺刹祈子型에는 이런 특성이 없다.<sup>34)</sup> 그래서 칠성기자형 본풀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들 각 편의 내용을 종합하여 그 서사 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옛날 장나라 장설용과 송나라 송설용 부인은 부부가 되어 자식을 낳으려고 칠월칠석에 칠성께 정성을 드렸다.
2. 원성군, 목성군, 계성군, 명성군, 복성군, 연성군 등 여섯 신은 짐지하여 주었으나 동성군은 제자들을 공부시키느라 늦게 참여하여 줄 복이 없자 부부의 눈을 뺏어 가버렸다.
3. 때마침 나라에 변란이 일어나자, 장님이 된 부부는 그 덕분에 살아난다.
4. 부부는 칠성신의 도움으로 다시 눈을 뜬다.
5. 칠성제를 다시 드리고 딸 하나를 얻는다.

32) 徐大錫, 「敍事巫歌研究 : 說話·小說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國文學研究』 第8輯, 서울대학교 國文學研究會, 1968, 34~36쪽.

33)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139쪽.

34) 현용준, 위의 책, 142쪽.

6. 부부는 벼슬을 하러 가게 되고, 여중에게 딸아이를 맡기고 떠난다.
7. 딸은 부모를 찾으러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는다.
8. 딸은 중을 만나 임신을 한다.
9. 부부는 딸을 찾았으나 임신한 것을 알고 화가 나 딸을 무쇠석함에 가두어 바다에 띄워 보낸다.
10. 무쇠석함은 함덕리 해안에 표착하여 일곱 잠수와 남자에 의해 발견되어 열어보니, 뱀들이 들어 있었다.
11. 이 뱀들을 동서로 던져버리니 일곱 잠수와 남자는 신병이 나서 사경을 헤맸다.
12. 짐을 치니 蛇神을 박대한 죄임을 알고 <칠성새남> 곳을 하니 신병이 낫고, 부자가 되었다.
13. 뱀들이 도성 안에 들어오자 성안 송대정 현감의 부인이 모셔다가 큰 부자가 된다.
14. 칠성신이 누워 있는데, 관원이 지나다가 이 뱀들을 보고 더럽다며 짐을 뱀자 입병이 낫다.
15. 짐을 치고 <칠성새남> 곳을 하였더니 병이 나았다.
16. 어미 뱀과 딸 뱀 일곱은 각기 좌정할 곳을 정하고 떠났다. 그 중에 한 마리는 밧칠성, 또 한 마리는 안칠성이 된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守護神인 本郷堂神으로서의 蛇神에 관한 내력이 아니라 재물을 수호하는 一般神으로서의 蛇神 七星에 대한 것이다.

종합한 본풀이의 내용 체제는 크게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락 1~5은 蛇神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로, 여기서 蛇神은 본래 중국의 장나라 장설용·송설용의 딸이었다. 단락 6~10은 딸이 중의 자식을 임신하고 부모에 의해 무쇠석함에 실려 쫓겨나 표류 끝에 함덕리의 바닷가에 도착하고, 마침 해녀들이 발견하고 석함을 열어보니 뱀이 여덟 마리가 나왔는데, 장설용의 딸이 일곱 마리의 뱀을 낳고 뱀으로 변신한 이야기이다. 단락 11~16에서는 뱀을 薄待한 이는 병이 나고, 뱀을 조상신으로 모셔 부자가 된 내용이다. 그 후에 이 뱀들은 제주시 송씨 집안의 조상이 되어 집안을 번성시키고 마지막에는 각각 자기가 좌정할 곳을 찾아 갔다.<sup>35)</sup> 이 중에서 일곱 딸과 어머니 蛇神 가운데 막내딸은 밧칠성이 되고 어머니는 안칠성이 된다. 밧칠성은 집 뒤의 장독대 곁 등 깨끗한 곳에 모셔져 곡식의 豊饒를 맡고 안칠성은 고히 차지하여 부의

35) 어미뱀은 관국방을 차지하고, 1녀는 사령방을, 2녀는 마을 본향을, 3녀는 뒷할망을, 4녀는 신목울, 5녀는 창고를, 6녀는 집의 처마를, 7녀는 돌담울타리를 차지하였다.



守護神으로 모셔진다.<sup>36)</sup> 이런 蛇神을 사람들이 잘 위하면 부귀를 주고, 금기시하거나 기피하면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흔히 ‘안칠성’, ‘밭칠성’으로 불리는 이 신은 北斗七星의 신과 어느 정도 동일시되고 있고, 그 점은 신의 호칭을 ‘北斗七星’에서 그대로 따온 것으로도 알 수 있다는 견해<sup>37)</sup>가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七星神은 본토부의 七星神과는 의미가 다르다. 육지부에서도 집안 장독대 근처에 七星神을 모시기도 하는데, 이때의 七星神은 北斗七星神으로 제주의 그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堂神과 집안신으로서 蛇神을 崇拜하는 것은 제주만의 독특한 신앙 형태<sup>38)</sup>라 할 수 있다. 七星信仰은 도교의 北斗七星을 말하며, 칠성은 人間의 命福을 맡고 있다고 해서 민간신앙화된 것이다. 그 뒤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民間의 七星信仰을 불교로 포섭하기 위하여 七佛經 北斗七星護摩要儀軌라는 佛典이 편찬되어 불교화하였다.<sup>39)</sup> 이렇게 토착화되고 불교화된 칠성신앙의 의례나 탕화에는 琉璃光如來佛 등의 七佛을 七星如來佛이라 하여 신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0)</sup> 七星神은 비의 신으로서 祈雨의 대상 또는 人間의 장수와 재물을 관장하는 신 등으로 다양하게 신앙되었다. 이는 천체와 별을 신앙하는 도교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앙형태는 궁중과 민간신앙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불교 신앙에도 영향을 주어 오늘날의 사찰에도 많은 七星閣이 남아 있어 人間의 無病長壽와 재물을 기원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蛇神을 모시는 경우에 안칠성은 쌀 항아리 위에 만드는데 항아리 뚜껑을 뒤집어 놓아 그릇을 안에 놓는데 그릇 속에 곡식을 담아 그 위에 茶盤을 덮는다. 밭칠성은 집 뒤의 주저리 밑의 기왓장 속에 모시는데, 곡식을 두고 위에 그릇이나 기왓장으로 덮은 후 그 위에 주저리를 만들어 세운다. 주민들은 매해 정초 철갈이를 할 때 주저

36) 玄容駿은 『巫俗神話와 文獻神話』(集文堂, 1992)에서 蛇神을 부의 축적과 생업의 守護神적인 성격을 언급하고 있다.

37) 고대경, 『신들의 고향』, 도서출판 증명, 1997, 219~220쪽.

38) 하순애, 「제주도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화상」, 조성윤 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99쪽.

39) 洪潤植, 「七星信仰」,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全羅北道篇)』,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1, 162쪽.

40) 칠성여래불은 다음과 같다. 제1 천추성 탐랑성군(最勝世界蓮意通定如來), 제2 청선성 거문성군(妙寶世界光音自在如來), 제3 천기성 녹존성군(圓滿世界金色成就如來), 제4 천권성 문곡성군(金輪寶界熾盛光如來), 제5 옥형성 엄정성군(定住世界廣達智辯如來), 제6 개양성 무곡성군(法意世界法海遊戲如來), 제7 요강성 파군성군(琉璃世界藥師) 등으로 덕을 주고, 장애 재난을 없애주고, 소명해 주고,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고, 백가지 장애를 없애주고, 복덕을 고루 갖추게 해주고, 수명을 길게 해주는 강복 소재로서 七星信仰의 내용을 알 수 있다.(洪潤植, 「七星信仰」,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全羅北道篇)』,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1, 162쪽에서 참조)

리를 새로 만들어 덮으며 가을에 새 곡식이 나오면 그 속의 곡식을 갈아주는데, 이것은 기왓장 속에 蛇神이 모셔져 있다고 관념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철같이 때는 기왓장 속에 실제로 놓여 있는 곡식의 모양을 보아 凶·豊年을 짐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蛇神 자체보다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곡식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蛇神은 곡식을 수호하며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神格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뱀의 神格과 관련하여 주인공 부모의 이름이 張契龍, 宋契龍인 데에도 알 수 있듯이, 蛇神의 부모를 龍으로 설정<sup>41)</sup>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용을 통해 곡식을 풍요롭게 하고 부를 일굴 수 있다는 오랜 농경 문화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가뭄이 들면 사람들은 용에게 祈雨祭를 지냈다.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당목잇당신은 ‘스혜용궁또’라는 神名으로 蛇神이 곧 龍神이라는 관념이 있음을 알게 한다. 또한, 토산 여드렛당신의 의례 <방울뿔>에서도 뱀을 ‘청룡’, ‘갈룡’으로 부르고, 夜光珠를 물려 고광에 옮겨다 모시는 것을 보면 뱀을 용으로 인식<sup>42)</sup>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龍神신앙은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신앙 형태로, 지역과 시대를 넘어 농경사회에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신앙이다. 서양의 용, 중국의 용, 제주의 蛇神은 모두 비슷한 神格을 지닌 존재들이다. 용은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동물이지만, 구름을 만들어 비를 내리게 하여 농사를 관장하는 신으로, 최고 권력인 왕을 상징하며, 불교 전래와 더불어 護法의 대상으로 崇拜되었다. 용의 분포는 세계적으로 고대 이집트, 바빌로니아, 인도, 중국 등 인류 문명의 발생지에서 발생하면서 세계 각처로 전파되었고, 각 지역은 각 지역대로 고유한 용과 外來的인 용이 결합되어 복합적인 양상<sup>43)</sup>을 이루고 있다.

용을 모시는 대표적인 신앙은 안동, 예천 지방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에는 ‘용단지’를 모시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용이 물과 관련이 있어,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44)</sup> 즉, 용은 주로 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농경생활을 위주로 하는 우리 민족은 이를 소중하게 여겼으며, 이를 생명력의 원천으로, 풍요를 가져다주는 힘으로 여겼다.

41) 고대경, 앞의 책, 221쪽.

42) 玄容駿·玄丞桓, 앞의 글, 21~22쪽.

43) 朴湧植, 『韓國說話의 原始宗教思想研究』, 一志社, 1984, 89쪽.

44) 『한국민속대관 3』,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1, 107쪽.

제주 지역의 경우 蛇神이 守護神으로서 富神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북제주군 조천리의 안씨 집 守護神에서 찾을 수 있다. 蛇神이 일가 및 일족의 수호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으나 蛇神의 도움으로 무사하게 되었고, 그 蛇神을 모심으로서 부를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런 유형은 북제주군 선흘리 안씨 집의 守護神 이야기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동에서 안씨 3형제가 제주에 들어왔다. 어느 날 3형제가 비를 피해 선흘리 배남밭의 바위 밑에 앉아 앞으로 살아갈 길을 의논했다. 큰형은 남읍리로 가겠다고 하고, 둘째는 가시리로 가겠다고 하고, 막내는 선흘리에서 그대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이 때, 주걱 같은 귀 달린 뱀이 앞에 나타났다. 큰형이 웃옷을 벗어 피놓고 “여기로 들겠습니까?”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고, 둘째가 똑같이 해도 들어오지 않았다. 막내가 웃옷을 펴서 들어오도록 하니 기어 들어갔다. 3형제가 헤어지고, 막내는 뱀을 메고 와서 조상으로 모셨더니 집안이 잘되고 대대로 벼슬이 나왔고, 제주관판도 나왔다. 안판관은 이 조상을 위해 제주성안의 심방을 빌어 항상 굿을 했는데, 어느 해 굿을 할 때, 안판관은 더 높은 벼슬을 할 것인데 제주관판밖에 못한다고 불평을 했다. 이 조상은 이 말을 듣고 섭섭하여 자신을 위해 굿을 잘 해 주고 가슴을 풀어주는 심방을 따라가겠다고 하여 안채포에 들어갔다. 고씨 심방은 굿을 마치고 巫具와 쌀을 안채포에 짊어지고 오는 도중에 안채포가 무거워 열어 보았더니 뱀이 있었다. 고씨 심방은 안씨 집안의 조상이 따라온 것을 알고 집에 와서 잘 모셨더니 부자가 되고 대정현감까지 나왔다.<sup>45)</sup>

안 씨 집안이나 고 씨 심방 집안은 모두 벼슬을 하게 되는데, 벼슬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財貨의 수호신으로서의 蛇神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즉, 蛇神은 집안의 재산과 풍요를 지켜주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귀돋은 배염><sup>46)</sup>에서는 남제주군 수산리 여인이 남제주군 시흥리에서 조 서 말을 빌려오면서 함께 따라온 뱀을 치마폭에 싸서 고향에 모셨더니 집안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고, 반면에 남제주군 시흥리 부자집이 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蛇神을 모셔야 재화를 얻을 수 있다는 신앙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조상의 제사를 정성껏 지내니 그 영혼이 뱀을 갖다 주고 그 뱀을 모셔 부자가 되었다는 <양돈어네 조

45) 『事典』, 851~853쪽.

46) 진성기, 『남국의 민담』, 형설출판사, 23~25쪽.

상>47)에서도 蛇神은 재물을 가져다 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뱀 이야기>48)에는 육지에서 곡식을 싣고 제주로 오던 배가 관탈섬 근처에서 풍랑으로 침몰 위기에 놓였으나 그 위기를 넘기고 제주에 도착해 보니 뱀이 떼지어 물이 배에 스며드는 구멍을 막고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富의 축적을 갈망하는 민중들의 소박한 욕망을 엿볼 수 있다. 蛇神이 人間보다 優位에 있으면서 이런 인간의 욕망인 富의 守護神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蛇神說話의 양상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위의 내용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설화들이다.

(가) 소로소천국이 무취설곽에 떠워서 세화리(細化里)로 오게 되었고, 돼지를 잡아서 당신에게 지내는 제인 ‘뚝제(豚祭)’를 지내게 된 유래가 되었다. 케내깃당은 주변에 널리 알려진 김녕의 당으로 돼지를 한 마리 잡아 피 한 방울 덜지 않아 올려 굿을 해야 한다는 당이다.<sup>49)</sup>

(나) 표선면 토산리 여드렛당 당신을 위하여 안덕면 창천리 강씨택에서 굿을 했다.<sup>50)</sup>

(다) 蛇神을 위해 표선면 가시리 강씨택에서 굿을 했다.<sup>51)</sup>

(라) 안할망은 동헌 안에 모시는 당신이고 광주 할망은 영험이 있는 당신이다.<sup>52)</sup>

(마) 조상의 제사를 정성껏 지내니 그 영혼이 뱀을 갖다 주었고 그 뱀을 모셔 부자가 되었다.<sup>53)</sup>

(가)의 내용은 ‘케내깃당 본풀이’와 유사하다. 케내깃당은 김녕의 당으로 돼지를 잡아 굿을 하는 당으로, 이 이야기는 바로 이 당의 由來談, 곧 본풀이이다. 이 본풀이는 이 당에서 굿을 할 때에 심방(巫堂)이 노래하는 巫歌인데, 이것이 일반인들에 의해 傳說로 이야기된 것이다. (나), (다), (라)는 堂神을 위해 사람들이 굿을 했다는 내용이다. (마)는 조상을 정성껏 모시고 蛇神을 잘 모셨더니 재물을 가져다 주었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富를 가져다 주는 존재로서의 蛇

47) 『大系』 9-2, 240쪽.

48) 『集成』 (1), 423~424쪽.

49) <김녕 케내깃당>, 『大系』 9-1, 146~152쪽.

50) <사신(蛇神) (1)>, 『大系』 9-3, 1115~1118쪽.

51) <사신(蛇神) (2)>, 『大系』 9-3, 1118~1120쪽.

52) <안할망과 광주할망>, 『大系』 9-3, 486~489쪽.

53) <양돈어네 조상>, 『大系』 9-2, 240~246쪽.

神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는 반대로 <토산뱀><sup>54)</sup>에서는 뱀으로 인해 병이 생겼다가 낫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감산리의 신랑이 토산리에서 신부를 맞이하여 함께 따라 온 뱀을 항아리에 넣어 땅 속에 묻어 버리자 토산리에서는 앓는 사람들이 생긴다. 굶을 하고 토산리에서 그 뱀을 찾아 가자 모두 병이 낫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함덕리 해안에 표착한 蛇神을 일곱 잠수와 남자가 던져버리고 신병이 나서 사경을 헤매다가 <칠성새남> 굶을 하니 신병이 낫고,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과 유사하다.

## 2) 本土의 境遇

본토의 경우 문헌 자료에 전하는 蛇神과 관련된 설화는 <三國遺事> 新羅 시조 赫居世王의 죽음과 관련하여 등장한다.

6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7일 후 시신이 땅에 흩어져 떨어졌고, 왕후도 세상을 떠났다. 나라 사람들이 한곳에 장사를 지내려 하자 큰 뱀이 쫓아다니며 이를 방해하였다. 그래서 머리와 사지를 제각기 장사지내 다섯 陵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蛇陵이라고 한다. 담암사 북쪽의 능이 바로 이것이다. 그 후 태자 南解王이 왕위를 계승하였다.<sup>55)</sup>

신라 시조 赫居世王의 시신이 나누어지는 것을 신라 6부의 정치 체제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뱀은 합장을 방해하여 다섯 陵을 만든 매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자연 생태계의 뱀이 아니라 뱀을 수호하는 정치 집단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56)</sup> 이는 뒤에 언급할 신라 경문왕조에 서술된 것과 같이 뱀이 들어왔다는 내용과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다. 新羅 48대 景文王이 거쳐하는 전각에는

54) 『集成』(1), 479~480쪽.

55) <三國遺事> 卷 1 紀異 第一, '新羅始祖 赫居世王'

理國六十一年 王升于天 七日後 遺體散落于地 后亦云亡 國人欲合而葬之 有大蛇逐禁 各葬五體爲五陵 亦名蛇陵 曇巖寺北陵是也 太子南解王繼位

趙炳舜. <三國史節要>

六十一年, 春三月, 居西干升遐, 葬蛇陵, 在曇巖寺北.(61년, 봄 3월, 거서간이 별세하였다. 사릉에 장사지냈다. 사릉은 담암사 북쪽에 있다.)

56) 천진기, 『한국동물민속론』, 민속원, 2003, 255쪽.

매일 뱀이 무리를 지어 나타났다고 한다. 다음 자료를 통해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 본다.

왕의 침전에는 매일 저녁마다 수많은 뱀들이 모여들었는데, 대궐에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놀라고 무서워 몰아내려 하니 왕이 말하였다. ‘나는 뱀이 없으면 편히 잠들 수가 없으니 몰아내지 말라.’ 그래서 매일 잠잘 때면 뱀이 혀를 내밀어 왕의 가슴을 덮었다.<sup>57)</sup>

赫居世王의 무덤을 만들 때 방해하여 다섯 무덤을 만들게 했던 蛇神이 여기에서는 왕을 수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蛇神은 자연적인 뱀이라기보다 花郎이었던 경문왕이 왕위를 계승하고 난 후 그 반대 세력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守護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花郎의 무리들과 함께 지내면서 안녕을 도모한 것을 의미한다<sup>58)</sup> 즉, 蛇神은 어떤 대상을 보호하는 존재, 지킴이로서 기능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駕洛國記’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신라 文武王 때) 또 도적의 무리들이 사당(가야국 김수로왕의 묘) 안에 금과 옥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도적질해 가려고 했다. 그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몸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활에 살을 당긴 한 용사가 사당 안에서 나오더니 사면을 향해서 비오듯이 화살을 쏘아서 도적 7, 8명이 맞아 죽으니, 나머지 도적의 무리들은 달아나버렸다. 며칠 후에 다시 오니 길이 30여 척에 눈빛이 번개와 같은 큰 구렁이가 있어서 사당 옆에서 나와 8, 9명을 물어 죽이니 겨우 살아남은 자들도 모두 자빠지면서 도망해 흩어졌다. 그리하여 陵園 안에는 반드시 神物이 있어 보호한다는 것을 알겠다.<sup>59)</sup>

이 기록에는 뱀은 ‘수호신, 지킴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고목, 저수지, 거석,

57) <三國遺事> 卷2 紀異 第2, ‘四十八 景文大王’

王之寢殿. 每日暮 無數衆馳俱集. 宮人驚怖. 將驅遺之. 王曰. 寡人若無蛇 不得安寢 .宜無禁. 每寢吐舌滿胸鋪之.

58) 친진기, 앞의 책, 257쪽.

59) <三國遺事> 卷2 紀異 第2, ‘駕洛國記’

又有賊徒. 謂廟中多有金玉. 將來盜焉. 初之來也, 有躬擐甲冑, 張弓挾矢, 猛士一人, 從廟中出. 四面雨射. 中殺七八人. 賊徒奔走. 數日再來. 有大蟒長三十餘尺. 眼光如電. 自廟房出. 咬殺八九人. 粗得完免者. 皆僵仆而散. 故知陵園表裏, 必有神物護之.

무덤에는 반드시 지킴이가 있다. 김수로왕 묘의 금옥을 지킨 뱀의 수호신적 상징이 오늘날 傳承되는 다양한 성격의 지킴이, 수호신의 의미를 가진다.

위에서 살펴본 이야기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당시 사람들에게 뱀은 守護神 또는 守護 세력을 상징한다. 뱀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 유형에는 미래를 예측하는 존재 양상도 있다. <三國史記>를 보면 新羅의 10대 나해 이사금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34년 여름 4월에 뱀이 남쪽 창고에서 사흘 동안 울었다. 가을 9월, 지진이 있었다. 겨울 10월, 눈이 크게 내려 다섯 자나 쌓였다. 그 다음해 봄 3월에 왕이 죽었다.<sup>60)</sup>

인용된 글에서 뱀은 창고나 고목 밑에서 복을 지키는 蛇神이다. 蛇神이 남쪽 창고에서 사흘 동안 울었다는 내용에서 곳간이나 재물을 지키는 ‘지킴이’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창고에서 뱀이 사흘 동안 울었다는 것은 祥瑞로운 일이 아니다. 이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눈이 크게 내리고, 다음 해에는 왕이 죽는다. 蛇神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暗示해 준 것이다. 이런 내용을 통해 蛇神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렇듯 蛇神은 정치 집단의 상징하거나, 지킴이로서 財運을 관장하는 존재로 기능하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암시해 주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뱀을 財運을 관장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사례는 다음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상도 합천에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로 지내는 김진사와 이진사가 살았다. 김진사는 부유했고, 이진사는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이진사에게는 혼기를 넘긴 아들이 한 명 있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혼처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루는 이진사가 김진사의 집을 찾아가 점심을 얻어먹고는 쉬다가 그 집 여종이 물을 길어오는 것을 보았다. 여종이 부엌으로 가려고 문을 지나는데 구렁이가 내려와 여종의 목을 감아 버렸다. 그 여종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뱀을 내려놓고는 뱀에게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말을 했다. 그 말을 들은 구렁이는 사라졌다. 그 모습을 본 이진사는 이 여종을 며느리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김진사에게 자기의 뜻을 말했다. 이진사는 반대하는 김진사를 설득하여 동네에서 멀리

60) <三國史記> 卷 第2 新羅本紀 第二, 奈解 尼師今

三十四年, 夏四月, 蛇鳴南庫三日. 秋九月, 地震. 冬十月, 大雪深五尺. 三十五年, 春三月, 王薨.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서 아들과 여종을 결혼시켰다. 여종이 이사 올 때 구렁이도 따라왔는데, 그 구렁이는 여종을 따라 다니는 업이었다. 그 후 이진사는 부유하게 되었고, 김진사 집안은 몰락하게 되었다.<sup>61)</sup>

대체로 업은 주인이나 며느리 등을 따르면서 그 집안을 부유하게 만들어 준다. 김진사가 부자로 살았던 것은 여종에게 업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종이 가난한 이진사의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됨에 따라 이진사 집안은 부유하게 되고, 업이 떠난 김진사 집안은 몰락하게 되는 것이다. 업이 한 사람을 따라다니며 재운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후백제를 건국시조인 甄萱의 탄생과 관련하여 異類交婚의 기록이 전한다.

옛날 한 부자가 광주 북쪽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는데, 용모가 매우 단아하였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매일 자주색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침실로 와서 관계를 맺곤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하였다. ‘네가 실을 바늘에 꿰어 그 사람의 옷에다 꽂아 놓아라.’ 그래서 딸이 그렇게 하였다. 날이 밤자 북쪽 담장 아래에서 풀러나간 실을 찾았는데, 실이 큰 지렁이의 허리에 꿰어 있었다. 그 후 임신하여 사내아이 한 명을 낳았다. 15세가 되자 스스로 견훤이라고 일컬었다.<sup>62)</sup>

영웅, 장군, 훌륭한 사람, 건국 시조의 탄생설화에서는 異類交婚의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異類에는 구렁이, 지네, 지렁이, 거북이, 자라 등이 있다. 이 이야기는 전승에 따라서 ‘자주색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지네가 아닌, 구렁이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다. 오늘날 안동서 傳承되는 車戰놀이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구렁이인 甄萱의 격퇴와 관련된다.<sup>63)</sup> 통일신라 말에 後百濟의 왕 甄萱이 사람으로 변화하여 안동에 왔다. 안동 사람들은 甄萱을 몰아내기 위해 洛東江에 소금을 풀어 짜게 하고 힘을 합하여 견훤을 강물 속으로 떠다 밀었고, 甄萱은 건디지 못하고

61) <구렁이 업>, 『大系』 6-4, 416~419쪽.

62) <三國遺事> 卷2 紀異 第2, ‘後百濟 甄萱’

又古記云. 昔一富人居光州北村. 有一女子. 姿容端正. 謂父曰. 每有一紫衣男到寢交婚. 父謂曰. 汝以長絲貫針刺其衣. 從之. 至明尋絲於北墻下. 針刺於大蚯蚓之腰. 因妊生一男. 年十五. 自稱甄萱.

63) 任東權, 第2章 民俗놀이,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慶尙北道 編),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7, 602~607쪽.



죽었다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甄萱이 고려 태조 王建과 자웅을 겨루고자 안동으로 진격해왔을 때 權南, 金宣平, 張吉 등 세장군이 王建을 도와 甄萱을 물리쳤다. 이후로 떠다미는 놀이인 차전놀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들을 모신 3太師廟가 안동에 있어 지금도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다.

### 3) 意味

제주의 <칠성본풀이>형의 '蛇神이 人間보다 優位에 있는 이야기' 설화에서는 蛇神이 재화, 부귀와 직접 관련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蛇神은 조상신이고, 豊饒의 신앙적 대상임을 알 수 있다. 蛇神은 堂神으로 坐定하기도 하고 一般神으로 가정에서 모셔지기도 한다. 一般神으로서 蛇神은 七星神이라고 하는데, 본토부에서의 七星과는 다른 대상이다. 이런 점에서 蛇神信仰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민간 신앙으로, 蛇神信仰의 흔적과 함께 蛇神說話가 제주에는 비교적 소상히 남아 있고, 본토에는 蛇神信仰의 흔적이 희미하다.

본토의 경우에도 蛇神은 人間에게 복을 주는 존재임을 알 수 있지만, 文獻說話 외에는 유사한 설화가 거의 전하고 있지 않다. 濟州島의 蛇神說話 전승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본토의 경우 논농사 지역으로 물을 가져다주는 龍이 뱀을 代置하여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주는 논농사를 짓지 않고 海洋 작업을 위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뱀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蛇神과 人間이 對決하는 이야기

蛇神은 人間과 和合하며 富神으로서 人間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人間과 대립·갈등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설화를 神話, 傳說, 民譚으로 구분하는 것은 통례로 되어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 짓는 것은 어려우며 서로 내용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유형의 蛇神說話가 주로 傳說에서 많이 나타나며, 民譚으로 변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서는 민간에서 신앙

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堂神을 무시하는 李衡祥 목사의 神堂 철폐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설화들을 중심으로 ‘蛇神과 인간의 대결 이야기’의 양상과 의미를 究明하고자 한다.

### 1) 濟州의 境遇

제주에 傳承하는 ‘蛇神과 人間이 對決하는 이야기’의 대표적인 것으로 관리와 堂神의 대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 보고자 한다.

(가) 경상북도 영천 이목사가 제주도에 도임하여 보니, 당이 오백, 절이 오백이나 되었고 전부 뱀을 귀신으로 모시고 있었다. 뱀에게 바치는 祭需로 사람을 바친다고 하니, 영천 이목사가 전도를 순력을 하다 고산에 이르러 下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하마를 하였다. 그리고 토산에 이르러 굶을 하여 사람 먹는 뱀이 나오자 장검으로 쳐 죽였다. 그런가 하면 당 오백, 절 오백을 전부 燒火시키고, 김녕사굴의 뱀까지 죽였다. 후손 없는 묘, 벌초·제사를 하지 않는 묘를 잘 보살피도록 善政을 베푼다. 이목사가 임기를 마치고 떠나려 할 때 꿈에 古塚 귀신이 나타나 당귀신과 절귀신의 음모를 일깨워 주며 일찍 떠날 것을 알려 준다. 그리고 골충귀신이 하라는대로 해서 무사히 육지로 갔다. 그러나 고향에 이르고 보니 아들 형제가 죽었고, 부인은 몹시 비탄에 빠져 남편 이목사를 책망한다. 이목사는 물을 물었다 뱀으면서 피를 토해 그가 얼마나 아들들을 사랑하는지를 나타낸다.<sup>64)</sup>

(나) 허좌수는 벼슬살이 할 때, 당 길 치는<sup>65)</sup> 데 말을 탄 채 당 앞을 그냥 지나가다가 말이 밧을 절어서 죽었다. 그러니 심방을 불러놓고, 이게 어떤 일이나고 물었더니, 심방이 당 靈氣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 허좌수가 말고기 못 먹은 귀신이니, 말고기 잡아 먹게 굶을 하도록 하였다. 말을 잡아놓고 굶을 해가니, 大鱗이가 움직움직 나왔다. 허좌수가 달려들어 죽이려 하자, 청비둘기로 환생하여 칠오름으로 가 떨어졌다. 그 후로 당을 지금 조상 모신 데로 옮겼다. 허좌수는 호근리 집에 걸어 가 살다가 정의골에 좌수를 하러 갔는데, 하루는 하인이 밤중에 일어나 목사가 서쪽으로 巡歷 오고 있으니, 支待하러 가야 한다고 하였다. 허좌수가 급하게 말을 타서 支待하러 가는데 점

64) <영천 이목사(II)>, 『集成』(1), 416~422쪽.

65) 신을 하강시킬 때 또는 死靈을 저승으로 보내기 위해 긴 무명을 깔고 길을 치우는 모습을 하는 祭次

점 목사 행차 소리는 멀어지고 문드쟁이포에 와서 들으니 하농곶 쪽에서 소리가 나, 하농곶에 가 보니 군막이 쳐 있어 엎드리니, 김녕 본향과 대정 광정당 본향, 예촌 본향이 나타나 옥을 했다면서 처벌을 받는데 잠이 들어 버렸다. 뒷날 호근리 사람이 다니다 보니 허좌수가 유혈이 낭자하여 누어 있는 것을 일으켜 놓으니, 깨어나 보니 군막도 없고 목사도 없었다. 허좌수는 그 후 자손이 씨가 없어지고 재산이 망하여 죽었다. 그 며느리가 하루는 밭에 김매러 가서 아기를 밭고랑에 눕혀두고 일하는데, 낮이 지나도록 눕혀둔 아기가 울지를 않아 이상하다 하여 가 보니, 뱀이 아기 목으로 들어가 죽어 있었다.<sup>66)</sup>

(가) 이야기와 (나)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 蛇神의 除治者인 영천 이목사와 堂神, 허좌수와 堂神의 대립과 갈등이다. (가)와 (나)의 각 단락의 내용은 ‘人間에 의한 蛇神의 除治 → 蛇神의 보복’이라는 구조를 지니며, 그 기본 내용도 유사하다.

먼저, (가) 이야기는 李衡詳 목사의 神堂 철폐와 관련된 설화이다. 이런 모습은 <광정당말무덤><sup>67)</sup>에도 나타나는데 제주목사 李衡詳이 蛇神을 모시는 광정당을 철폐하려다가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다리를 절어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여 무당을 불러 곳을 하였던니 이무기가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儒學的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성격이 띠는 설화이다.<sup>68)</sup> 牧民官인 제주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백성을 현혹하는 神堂을 철폐하고, 골충 귀신의 청을 받아주어 묘를 잘 보살피고 있다. 이런 것들은 한 지역의 목민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이런 善政으로 인해 惡神의 凶險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절과 神堂을 철폐하는 일과 상대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李衡詳 목사가 화를 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당신의 복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결말로 인해 목민관이 패배하고 있다. 즉, (가)의 각 단락은 ‘人間에 의한 蛇神의 除治 → 人間을 위한 助力者의 도움 → 蛇神의 보복’이라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이것으로 제주의 무속신앙은 단순한 풍습으로서의 무속의 차원을 넘어 신앙으로서의 종교적 성격이 강하였기에 그만큼 그것은 제주의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는 데 탄탄한 기조로서 자리잡혀 있음을 의미한다.”<sup>69)</sup>고 해석하기도 한다. 巫俗에

66) <禮村本郷堂 본풀이>, 『事典』, 731~733쪽.

67) 玄容駿, 『제주도 傳説』, 서문당, 1976, 270~272쪽.

68) 玄吉彦, 『說話와 濟州文學』, 『耽羅文化』 第15號,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5, 234~235쪽.

69) 玄吉彦, 위의 글, 234쪽.

행해지는 祭儀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祭儀에서 口演되는 본풀이가 의례적인 모습과 더불어,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설화를 통해 朝鮮朝 때 중앙의 儒學的 이데올로기가 지방에 대한 완전한 통치와 지배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배 세력과 토착민들과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이면적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다음으로, (나) 이야기를 살펴보면, 허좌수는 곳을 하는 神堂 앞을 말을 탄 채로 지나가는데, 이에 대한 堂神의 懲罰로 말이 말을 질다가 죽게 된다. 그래서 허좌수는 심방을 불러놓고 말이 죽은 이유를 묻는다. 허좌수는 당의 靈氣로 인해 말이 죽은 것을 알고 堂神인 大蟒이를 죽이려고 한다. 堂神과 허좌수 사이의 대결에서 堂神이 말을 죽임으로써 승리를 거두지만, 허좌수가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堂神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자 堂神이 청비둘기로 환생하여 다른 곳으로 피신한다. 이런 허좌수의 행위에 대해 堂神은 대정 광정당 본향과 김녕 본향과 함께 나타나 懲罰하고 있다. 이후 허좌수 집안에 자손이 끊기고 망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堂信仰을 부정하고 적극적으로 除治하려고 했던 허좌수의 행위는 후손이 끊기고, 집안이 망하게 되는 철저한 패배로 끝을 맺고 있다.

이렇듯 대정 堂神의 실체를 인식하면서도 除治하려고 한 허좌수와 堂神 사이의 갈등은 堂信仰을 부정하는 관리 집단과 堂神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으로 해석된다. 허좌수와 堂神 간에 여러 번에 걸친 대립이 결국 허좌수와 그 자손에 대한 堂神의 철저한 승리로 끝나는 것은, 堂信仰을 부정하는 지배 관리 집단에 대한 堂神의 優位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優位란 절대적인 崇拜의 대상이란 의미가 아니라, 堂神은 靈驗함을 인정받지 못하고 인간과 대결하는 위치로 하락했으며, 대결에서 승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의 각 단락의 내용을 정리하면, ‘人間에 의한 蛇神의 除治 → 蛇神을 위한 助力者의 도움 → 蛇神의 보복’이라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형상 목사의 神堂 철폐’에 대한 설화도 (가)와 (나) 이야기와 유사한 유형의 이야기이다. 채록된 이야기들의 즐거리를 차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서판관이 뱀을 죽이나 하인이 말을 길지 말라는 금기를 어겨 죽게 되었다.<sup>70)</sup>

70) <김녕사굴>, 『大系』 9-1, 39쪽.

(나) 김녕뱀굴의 뱀을 죽인 영천 목사가 고향으로 가려고 하자 대풍이 불어 못가는데, 골충귀신들의 도움으로 가게 되었다.<sup>71)</sup>

(다) 서런관관이 뱀을 죽이고 그 보복으로 죽었다.<sup>72)</sup>

(라) 이목사가 순력을 하다 광정당에 이르러 下馬하지 않아 말의 다리가 부러졌다. 굿을 하는데서 뱀이 나오자 죽여 태우자 장평이 되었다. 어느날 이목사의 꿈에 골충귀신이 나타나 담이나 쌓아 달라고 하자, 그렇게 해주었다. 그리고 골충귀신이 하라는 대로 해서 무사히 육지로 갔는데 아들 형제가 죽어 있었다. 그래서 당오백 절오백을 없애 버렸다. 자식 생각을 하다가 닭깃으로 목을 찢러 “너들이 암만 물어봐도 나만큼 속이 아프진 않다”고 하였다.<sup>73)</sup>

(마) 광정당에서 굿을 하는데 이형상 목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지 않아 그 말이 죽었고, 굿을 하는데 뱀이 나오면 태워버리려는데 그 영혼이 꿩이 되어 날아든다고 해서 ‘새당’이라고 하였다.<sup>74)</sup>

(바) 영찰목사가 순력을 하다 광정당의 근처에 이르러 부하들이 하마하라는 말을 했는데 어기고 가다 말이 발이 저려 걷지를 못하였다. 영찰목사는 뱀을 죽였고, 골충들을 잘 수리해 주고 그 골충귀신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갔다.<sup>75)</sup>

(사) 분향당의 당신(大蛇)이 허좌수에게 죽임을 당하고 복수하였다.<sup>76)</sup>

한편, 다음과 같은 <지하국대적제치>형의 대표적인 설화에서도 蛇神과 인간 사이의 대립·갈등이 잘 드러나고 있다.

(가) 영천 이목사 시절에 사람을 뱀에게 제물로 바치니, 그 원통하고 서운한 생각은 말할 수가 없었다. 영천 이목사가 생각을 하고, 무녀를 불러다가 제물을 받는 귀신의 얼굴을 보겠다고 굿을 하도록 하였다. 무녀가 열나흘을 굿을 하니 뱀이 한 아가리는 하늘에 붙이고 한 아가리는 땅에 붙여 아가리를 딱 벌리고 나왔다. 이목사가 뱀에게 몸뚱이를 보이라고 하고, 불과 활로 그 뱀을 죽였다. 이제는 그 조화로 당귀신 절귀신으로 있는 등불화초가 번성하여 영천 이목사를 죽이자고 하니 고충귀신으로 있던 피충귀신이 나타나 영천 이목사에게 별도 수진개로 떠나라고 하였다. 영천 이목사가 배를 타고 수평

71) <김녕 뱀굴>, 『大系』 9-1, 191쪽.

72) <김녕뱀굴>, 『大系』 9-2, 719쪽.

73) <광정당과 이목사>, 『大系』 9-3, 734쪽.

74) <광정당과 이형상 목사>, 『大系』 9-3, 703쪽.

75) <영찰목사(榮察牧使)>, 『大系』 9-3, 100쪽.

76) <당신(堂神)과 허좌수(許座首)>, 『大系』 9-3, 1120쪽.

선을 넘어서니, 등불화초가 그까지 날아가서 끝내 이목사를 죽였다.<sup>77)</sup>

(나) 옛날 구좌면 김녕리 동굴에는 큰 뱀이 살고 있었다. 뱀이 주민들에게 흉년이 들게 하고 풍우가 막심하게 하니, 해마다 16세 쯤 된 처녀를 뱀에게 제물로 바쳐 굿을 했다. 서런 판관이 부임하여 “귀신이 나오거든 그를 쳐라” 하고 뱀이 나타나도록 굿판을 벌인다. 하얀 뱀이 나타나자 뱀을 죽이고, 그 다음부터는 흉년이 지는 폐단이 없어졌다. 무당이 서런 판관에게 화를 피하여 달아나게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 보지 말라는 금기를 당부한다. 서런 판관은 피비가 쏟아진다는 군사의 외침에 본능적으로 뒤돌아 보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 죽는다.<sup>78)</sup>

(가)는 피뇌깃당에서 불리는 본풀이인 <김녕 피뇌깃당 본풀이><sup>79)</sup>로 ‘人間과 蛇神의 대결→蛇神의 패배’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人身供儀와 관련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蛇神은 인간을 희생시키며 神格을 과시하는데, 이에 관한 이야기가 설화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 결과 목사는 蛇神이 나타나도록 굿을 하게 하여, 蛇神을 除治한다. 목사가 堂神을 除治한 행위는 儒敎的 가치관을 지닌 지배 집단이 토착적인 堂神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목사는 처음에 피뇌깃 堂神에 대해 優位를 점하였지만, 지속시키지는 못한다. 당귀신 절귀신으로 있는 등불화초가 죽은 蛇神을 대신하여 목사에 대해 懲罰하기 때문이다.

<禮村本郷堂 본풀이>에서는 예촌본향당신이 대정 광정당 본향과 김녕 본향과 함께 나타나 허좌수를 징벌하였는데, <김녕 피뇌깃당 본풀이>에서는 죽은 堂神을 대신하여 당귀신과 절귀신들이 목사를 징벌을 하고 있다. 더구나 이목사는 고충귀신으로 있던 피뇌귀신의 도움으로 제주를 떠나고도 결국 堂神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된다. 여기에서도 堂神과 儒學的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은 儒學的 이데올로기의 패배로 끝을 맺는다. 마을 사람들이 행하던 祭儀를 무시해 버리고 지방에 대한 중앙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것에 대한 철저한 懲罰이라 할 수 있다.

77) <김녕 피뇌깃당 본풀이>,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380~381쪽.

78) <김녕뱀굴>, 『大系』 9-2, 719~721쪽.

79) 피뇌깃당에 관한 예외적인 본풀이로, 진성기의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에 실린 것이 유일하다. 피뇌깃당은 김녕사굴이라고 알려진 케대기동굴 속에 좌정한 蛇神을 모시는 당인데, 지방관이 피뇌깃당의 당신인 김녕뱀굴의 뱀을 죽인 까닭에 사신의 복수를 받았다는 유사한 내용의 설화는 여러 각편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설화가 본풀이에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정진희, 「제주도 당본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52쪽.)

堂神은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나)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흉년이 들게 하는 妖邪한 존재이다. 堂神에게 제물을 받치는 행위는 주민들에게는 堂神에 대한 畏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堂神의 횡포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다.

(나)는 (가)의 앞 부분과 유사한 구조로 시작된다. 처음에는 蛇神이 마을에 흉년이 들게 하고 풍우를 내리게 하니, 해마다 어린 처녀를 蛇神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 집단의 안녕을 도모하고 있다. 蛇神과 인간은 ‘희생 제물 증여-일시적 안정’이라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徐隣 판관이 등장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蛇神과 대결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蛇神과 인간 간에 이루어졌던 관계는 목사의 등장으로 폐단으로 인식된다. 희생 제물을 받는 蛇神의 지닌 부정적 가치가 부각되고 목사에 의해 除治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가)와 (나) 이야기 속에서 매년 정해진 때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정성들여 마련한 제물을 받는다는 것으로 봐서, 마을 사람들이 받들어 모시는 堂神으로 볼 수 있다. 蛇神에게 처녀를 바쳐 마을의 안녕을 비는 풍습이 있자 목사가 蛇神을 죽인다는 것인데, 마을 사람들이 蛇神에게 처녀를 바쳐 어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공통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희생을 강요하는 蛇神은 除治되는 존재로 인식되어, 인간을 희생시키다가 새로운 영우인 관리에게 除治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sup>80)</sup> 蛇神이 마을의 재앙을 가져오는 神格이기 때문에 더 이상 崇拜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인간에 의하여 除治되고 있다.

그러나 <광정당> 설화처럼 이 설화에서도 결말에서는 역전된다. 즉 요귀의 퇴치자인 관리가 蛇神에게 복수를 당하고 패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말은 堂神의 편에선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향유했다는 점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세력과 대립하는 의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 유형은 蛇神에게 처녀가 희생되었다가 결국 판관까지 희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희생물의 다양한 변모는 이 蛇神說話의 傳承 과정에서 傳說 → 民譚으로의 이행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한 설화의 즐거리를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람이 죽어 뱀굴에 갖다 놓으면 뱀이 먹었는데 목사가 뱀을 폭파시켜 죽였다.<sup>81)</sup>

80) 박종성, 『蛇神說話의 形成과 變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3쪽.

(나) 임경업 장군이 유람하다가 한해에 처녀 하나를 잡아먹는 뱀에게 처녀 대신 가서 죽었다.<sup>82)</sup>

(다) 영청(영천) 李衡祥목사가 제주도에 도입하여 들어와 제주 일주를 구좌면 김녕 괴뇌 시당의 뱀이 처녀를 제물로 받는다 것을 알고 그 뱀을 죽인다. 그날 저녁 잠을 자는데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내일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는다고 한다. 이튿날 이형상 목사는 배를 잘 탄다는 짐(김)동지와 박동지라는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 배가 곡식을 싣고 돌아오다가 밑바닥이 터져서 물이 들기 시작한다. 그런데 배의 깃대꼭지로 큰 구렁이가 내려와서 그 구멍 터진 배 밑바닥을 막았다.<sup>83)</sup>

위에서 살펴보았던 설화들은 대체로 역사적 실존 인물을 내세우고 있다. 토착 신앙인 堂神을 부정하는 허좌수와 영천(영청) 이목사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지배 계급으로 이들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설화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설화에 허좌수와 영천(청) 이목사로 나타난 인물은 1703년(숙종 29년) 제주 목사로 부임했던 瓶窩 李衡祥(1653~1733)<sup>84)</sup>이다. 설화에서 ‘영천(청) 이목사’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외지인을 지칭할 때 고향을 이름 앞에 붙이는 관례로 인해 생긴 것으로, 李衡祥의 고향이 경상북도 永川이기 때문이기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이다. 이형상은 제주 목사로 재직할 때에 여러 곳의 神堂과 절을 철폐했다. 金錫翼의 <耽羅紀年>에 나타난 기록<sup>85)</sup>에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81) <김녕 뱀굴>, 『大系』 9-2, 637쪽.

82) <임경업 장군>, 『大系』 9-2, 225쪽.

83) 진성기, <두리빌렛당 ① 두리빌레 용해부인 할마님>,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349~351쪽.

84) 李衡祥은 孝寧大君 10대손으로, 1677년(숙종 3년) 司馬試에 합격한 후 1680년 別試文科에 병과로 급제, 호조좌랑을 지내고, 금산군수가 되어 도적을 평정하였다. 1703년 제주목사, 1727년(영조 3년) 호조참의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경북 永川에 내려가 洪然亭을 세우고 학문에 열중하면서 <遜筮錄>이라는 八長十惡의 萬言疏를 초안하였다. 1728년 嘉善大夫로서, 李麟佐의 난 때 경상도 召募使가 되었으나 같은 소론으로서 당론을 발설했다는 무고를 받고 한때 투옥되었다. 후에 한성부윤이 되었는데, 1796년(정조 20년)에는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영천 城南書院과 제주도 사당에 배향되었다. 그의 집안은 서인계열이었으나, 老少로 분리되면서 소론에 속하였는데, 실제로 南人 측과 가깝게 지냈다. 이런 정치적 성향 때문에 중앙 정치에서 벗어나 부윤, 목사 등 지방관을 진전하였다. 그가 남긴 방대한 양의 <瓶窩全書>를 보면, 그는 정통 주자학에 바탕을 두면서도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는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각 지역과 나라의 문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제주의 문물을 담은 <耽羅巡歷圖>와 <南宦博物>을 남겼으며, 강화의 역사와 문물 그리고 군사적 대비를 기술한 <江都誌>, 그리고 일본, 몽고 등 각 나라에 대한 저술을 남겼다.(元裕漢, ‘이형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355~356쪽.)

85) “대정 산방산 길가에 광정당이라는 음사가 있어 여기를 지날 때 하마하지 않으면 말이 다리를 절었다. 이형상 목사가 순행하여 여기에 이르렀는데 이속이 하마하도록 아뢰었으나 듣지 않았는데 과연 말이 다리를 절었다. 이형상이 손수 그 땅에 이르러 무당으로 하여금 말을 죽여 제사를 지내고



李衡祥 목사가 神堂을 철폐한 까닭은 당시 제주의 巫覡들을 惑世誣民하면서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집단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李衡祥이 편찬한 <南宦博物>의 기록을 보면 당시 巫覡들에 대한 생각이 잘 드러난다.

<풍토록>에 말하기를 귀신을 지독히 제사 지내는 것을 숭상하고, 남자 무당이 심히 많아서 사람들을 災禍로 공갈하여 쉽게 재물을 취하는데 朔望과 七七日에는 짐승을 희생하여 제를 지낸다고 하였다. …… 나는 또 狀啓하여 대략 말하기를 巫覡輩가 惑世誣民하는 버릇은 스스로 이는 天下萬古에 共有하는 바로잡기 어려운 폐단이라, 또한 無益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 저들은 이른바 男覡女巫로 양양한 기세로 무뢰배로 하여금 堂漢이라 칭하여 상호 結契하였으니 그 수가 천명이 넘습니다. 혹은 마을에서 討食하고 혹은 신당에서 소를 잡아서 村民들이 유치한 綿布와 비단을 처음에는 귀신에게 빌미를 내놓도록 하고, 만약 내놓지 않으면 귀신이 差使를 보내왔다 하여 堂漢들이 결박하여 약탈합니다. 심지어 그 牛馬를 약탈한 것이 그 수가 백필에 가깝고, 또 그 전답을 약탈하여 각자 나누어 먹으면서 位田이라 칭하고, 혹은 捨施라 칭하여 田을 끌어놓은 것이 천백이 됩니다. 堂에 쌓인 珠具는 무릇 行船할 때 그저 神崇가 있음은 알지만 官수이 있음은 알지 못합니다. 進上船이 바람을 기다릴 때는 역시 만드시 신당에 하직을 하는데 이같은 풍습은 타읍에는 없습니다. 인심의 順逆은 예로부터 정한 것은 아니나 잡부류가 무리를 지어 또한 건너가는 것을 보면 그 형세가 惑世誣民에 그치지 아니합니다.<sup>86)</sup>

이러한 이유로 李衡祥 목사는 신당을 철폐하게 하게 되는데, 역시 『南宦博物』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지난달 20일에 鄉所의 유생·무사·서리 및 가면의 面任 각리의 里任들이 정결한 곳으로 모이어 北向四拜한 후에 8백여명이 와서 신에게 아뢰기를 “지금 이와 같은 나라의 은혜는 예전에는 있지 못하였던 바, …… 혜택은 지극하여 뼈에 새길 것입니다.” …… 다음 날에는 각자가 三畝<sup>87)</sup>에 있는 신당 129개소를 소각하고, 또 私家에서 신에 기도하는

백이 나타나기를 빌었는데 요사스런 구렁이가 나타나서 사명기간을 물어뜯었다. 이 구렁이를 죽이고 그 당을 불살라버리니 이때부터 음사가 없어졌다.”(大靜 山房山路邊 有淫祠曰廣靜堂 過者不下馬 則馬蹇 李衡祥 巡行至此 吏白下馬不聽馬果蹇 衡祥親到其堂 使巫刑馬以祭求見其神 妖蟒出現 毒嚙司命旗竿 遂軒之燒其堂 自此淫祠遂絕(金錫翼, <耽羅紀年>))

86) 李衡祥, 金奉玉 역, 『南宦博物(II)』, 『제주도』 통권 제93호, 濟州道, 1993. 1, 315~316쪽.

87) 조성윤, 『19세기 제주도의 國家祭祀』,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일지사, 1997, 180쪽.

당시 제주에는 제주목·대정현·정의현의 3개 행정단위로 편성되어 있었다. 행정 중심지로 목사가

물건이나 길가 叢林에 있는 것과 巫覡輩의 神衣와 神紵 일체를 다 불태우고, 심지어 나무 뿌리를 파서 佛像을 훼손하니 지금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고 三邑 수령들이 연이어 첩보하였습니다. …… 남녀노소가 빈번히 보며 서로 축하하고 巫覡을 보면 원수 보듯하니 巫覡들은 부끄러워하여 더불어 伍人이 됩니다.<sup>88)</sup>

이러한 신당 철폐의 목적 단순히 惑世誣民하면서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巫覡들을 배격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李衡祥은 제주목사로 부임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제주의 국가 祭祀를 정비하려는 건의를 올린다.

악(嶽)·해(海)·독(瀆)이 기고제전(祈告祭展)에 산림과 명산(名山) 대천(大川)이 소사(小祀)에 실려 있는 것 또한 예의(禮意)가 있습니다. 한라산 및 대해(大海)는 나름대로 중토(中土)에서 유명하게 일컬어지는 것인데 사전(祀典)에 실려있지 않습니다. 하나 같이 주현(州縣) 명산대천(名山大川)의 예에 따라 향축(香祝)을 내리시어 제사를 행함이 합당한 듯하오니 예(禮)를 고찰하여 처리토록 하심이 어떠합니까?<sup>89)</sup>

위의 글은 儒敎式 漢拏山祭가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李衡祥은 老人星 및 馬祖에 대한 제사, 희생 제물에 관한 것 등에 대해서도 건의하여 다시 제사가 행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제주에 본래부터 있던 漢拏山祭를 儒敎式으로 전환하고 風雲雷雨祭를 혁파하며, 삼성사에 대한 제의를 정비한 것은 祀典 정비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다. 이러한 祀典 정비의 방향은 제주에서 독특하게 행해지고 있던 祭儀는 혁파하고 국가주도의 儒敎的 祭儀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제주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인 각종 신에 대한 제사를 국가가 주도함으로써, 이를 통해 제주민들을 儒敎的인 질서 속에 하나로 묶어두려는 의도로 파악된다.<sup>90)</sup>

朝鮮은 초기부터 性理學的 정치관에 입각하여 지방에 鄕校를 육성하고 儒敎 관련

---

책임자로 있던 제주목은 제주읍에 자리잡고 있었고, 그 밑에 하부 단위로 현감이 행정을 담당하던 2개 현이 소속되어 있어 흔히 ‘濟州三邑’이라고 불렸다. 제주도는 형식적으로는 전라도에 속한 3개 행정 단위였지만, 사실상으로는 독립적인 행정 단위였고 전권을 행사하였다.

88) 李衡祥, 金奉玉 역, 위의 글, 316~317쪽.

89) 李衡祥, 『國譯 瓶窩集(III)』,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0, 1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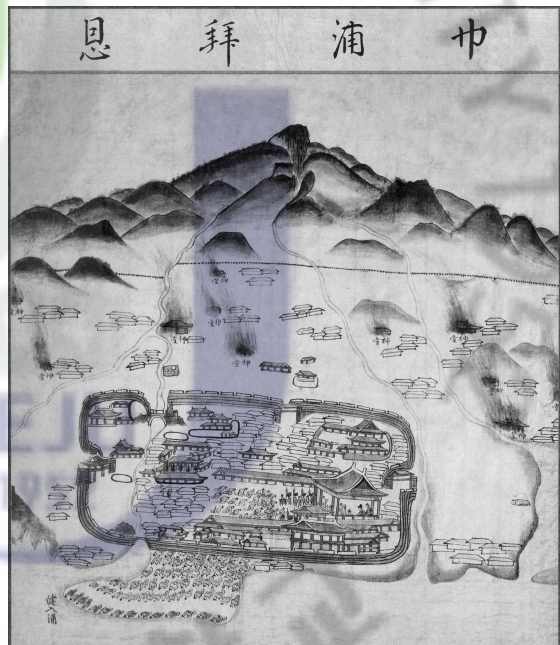
원문은 李衡祥, ‘濟州請祀典變通狀’, 『瓶窩先生文集』 卷十七, 『瓶窩全書』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312~313쪽. (嶽海瀆之載於祈告祭展名山大川之載於小祀者亦有禮意漢拏山及大海自是著稱於中土者而不載於祀典—依州縣名山大川之例降香祝行祀以合事宜考禮 稟處何如)

90) 조성윤, 위의 글, 201쪽.

서적을 보급하였으며, 기존의 祭儀를 儒敎式으로 정비하는 등 새로운 국가체제에 맞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고 제도를 개선<sup>91)</sup>하려고 하였다. 李衡祥의 행한 일련의 조치도 국가 체제에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제주의 전통 사회에서 행해지는 祭儀들이 중앙과는 다른 나름대로의 체계로 움직이고 있어서 제주가 儒敎的 질서로 편입할 수 없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神堂 철폐는 제주의 전통적인 제사인 漢拏山祭를 儒敎式으로 변질시키고 風雲雷雨祭를 혁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神堂을 비롯한 제주 사회의 전통 祭儀를 혁파하는 것은 중앙의 지배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설화에 등장하는 허좌수와 영천 이목사로 대표되는 지배 집단은 堂神仰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의 질서 체계를 중앙 집권의 장애 요인으로 보고 이를 파괴하려는 중앙 지배 권력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제주의 질서가 중앙의 지배 질서에 편입되는 모습은 <耽羅巡歷圖><sup>92)</sup>에 나와 있는 ‘巾浦拜恩’에 잘 묘사되어 있다. ‘巾浦拜恩’은 1702년(숙종 28년) 11월 20일 실시되었다. 鄕品文武 300여명이 일부는 觀德亭 앞에서, 또 다른 일부는 健入浦에서 북쪽을 향해 조정에 배례하는 모습과 제주의 각 마을에 있었던 神堂의 일부가 불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 그림은 李衡祥이 節制使(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제주



<그림 1> 巾浦拜恩

91) 정승모, 「군현제의와 국가정책」,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반 편,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2000, 140쪽.

92) <耽羅巡歷圖>는 1702년에 李衡祥이 제주목사 겸 병마수군절제사에 부임하여 도내 각 고을을 순시하고 또 당시에 거행했던 여러 행사 장면을 제주목 소속의 畫工 金南吉에게 그리게 하였다. <耽羅巡歷圖>는 그 크기가 세로 55cm, 가로 35cm의 壯紙 위에 그린 그림이다. 모두 43면으로 되어 있고, 제주도 지도인 ‘漢拏壯囑’ 1면과 1702년의 행사기록도 39면, 그리고 ‘浩然琴書’ 1면과 李衡祥이 적은 書記 2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형식은 제일 마지막인 ‘浩然琴書’를 제외하고는 화면을 붙은 선으로 3등분하였다. 제일 윗부분에는 해서체로 4자씩으로 된 제목을 써넣었고, 중단에는 金南吉의 그림이 있으며, 밑부분에는 행사 참가인원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의 神堂을 불태우고 사찰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커다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한다. 李衡祥 목사는 神堂 철폐 자체를 커다란 업적으로 여겼던 것이다. 당시 불타 없어진 神堂은 129곳에 이르며, 훼손된 사찰은 5 곳이다. 그리고 巫覡 285명으로 하여금 농업을 본업으로 삼도록 조치<sup>93)</sup>하였다. 東資福과 西資福이 있던 萬壽寺와 海輪寺도 이 때 없어진 것으로 보이며 철폐된 신당들은 李喜泰 목사 때 많이 재건<sup>94)</sup>되었다고 한다.

## 2) 本土의 境遇

본토의 蛇神說話에서는 구렁이를 비롯하여 龍, 구렁이, 이시미, 이무기, 구렁이, 지네 등과 같은 존재가 인간을 희생 제물로 요구하며, 인간에 횡포를 부린다는 내용의 설화가 비교적 많이 傳承되고 있다. 또한, 뱀에게 희생되는 대상도 처녀뿐만 아니라, 청년도 등장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人間과 蛇神은 對決하는 위치에서, 蛇神이 인간에 의하여 除治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蛇神의 횡포 → 人間에 의한 除治’라는 구조를 보인다.

(가) 한라산 밑에 있는 큰 굴에 뱀이 살고 있었는데, 해마다 한 사람씩 잡아 먹었다. 못 잡아 먹으면 마을에 흉년이 들게 하였다. 어떤 처녀가 제비뽑기를 해서 뱀의 제물이 되었다. 충주의 최판관이 제주 관관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고, 칼과 활로 뱀을 죽였다. 하얀 노인이 최판관의 꿈에 나타나서 내일이면 죽을 것이니 빨리 돌아가라고 하며, 돌아가되 누가 뒤에서 불러도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말한다. 최판관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천둥과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누가 뒤에서 불렀다. 그래도 돌아보지 않고 집에 돌아와 문을 열면서 돌아보다 죽게 되었다.<sup>95)</sup>

(나) 옛날 백두산 못에 사는 이시미에게 해마다 청년 한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재앙을 막을 수 있었다. 한해는 강태공의 생질이 제물이 될 차례가 되어, 강태공은 생질에게 접는 칼을 주었다. 생질은 이시미에게 잡혀 먹혀서 그 칼로 이무기를 죽였다. 생질은 뱀을 가르고 나와 살게 되었다. 그 이시미를 태우니 연기가 푹푹 뿜쳐 다녔다. 그 날

93) 壬午十二月二十日 鄉品文武上下并三百餘人 燒火神堂處 破毀寺刹五處 巫覡歸農二百八十五名(『巾浦拜恩』, <耽羅巡歷圖>, 제주시, 2002(제4판), 96~97쪽.)

94) 김창집, 『탐라순력도 답사 기행』, 『탐라순력』, 창간호, 사단법인 탐라문화보존회, 2000, 111쪽.

95) <이시미와 최판관>, 『大系』 4-2, 552~555쪽.

저녁은 동침하지 말라고 했으나 어느 집에 가서 동침하니, 이시미를 태운 연기가 그 집으로 들어가 아이로 태어났다. 이 아이가 자라 원수를 갚으려 했지만, 처녀의 중재로 화해하고 잘 살게 되었다.<sup>96)</sup>

(다) 월성군에 살모사 폭포가 있는데, 아주 깊은 곳에 몇백 년 묵은 살모사가 살고 있었다. 해마다 예쁜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게 하였고 유행병을 돌게 하였다. 마을 촌장의 딸이 살모사의 제물로 자청하여 활을 메고 못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 있으니 살모사는 떠 올라왔지만, 처녀는 올라오지 않았다.<sup>97)</sup>

(라) 강진군 병영과 장흥군 사이에 큰 바위에 굴이 뚫려 있어서 굴바위라고 부른다. 바위 밑 강에는 이시미가 살며 사람들을 크게 해치고 잡아 먹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굴바위 옆을 지나가지 않는다. 白羊寺에 있는 중이 백일제를 지내고 차력법으로 이시미를 죽이려고 하였다. 먼저 중이 허수아비를 세워 놓으니, 이시미가 그것을 물어뜯다가 지쳐서 강으로 들어갈고 할 적에 차력법으로 잡아 죽였다.<sup>98)</sup>

(가) 이야기는 제주에 전하는 설화와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이다. 牧民官의 입장에서는 堂神에 대한 제주민들의 이러한 신앙 행위가 폐단이라고 생각하여 堂神을 제치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용기있는 관리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상을 除治하여 백성들의 안녕을 도모했다는 구조를 지고 있다. ‘제비뽑기’로 처녀를 제물로 삼았다는 내용이나, 꿈에 하얀 노인이 나타나서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은 民譚的 요소가 가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이야기에서는 이시미가 처녀가 아닌 청년(생질)을 희생으로 요구하고 있다. 해마다 정기적인 제물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희생뿐만 아니라 재앙을 내리기도 한다. 연기가 되어 집으로 들어가 아이로 환생하기도 하며, 처녀의 仲裁로 화해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희생 제물이 처녀가 아닌, 청년으로 등장한다는 점과 인간과 蛇神과의 대결에서 처녀의 仲裁로 화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도 民譚的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에서도 蛇神은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게 하고 유행병을 돌게 하는 요사스런

96) <이시미 뱃속에서 살아나온 사람>, 『大系』 7-4, 177~179쪽.

97) <살모사 폭포전설>, 『大系』 8-6, 155~158쪽.

98) <굴바위의 이무기>, 任哲宰, 『韓國口傳說話 9(全羅南道·濟州道 篇)』, 평민사, 1992, 22~23쪽.

대상이다. 살모사의 제치자로 처녀로 등장하는 것이 특이하다.

(라)에서는 蛇神의 제치자가 관리가 아니라 중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시미는 사람들을 잡아 먹고 두려움을 존재였지만, 중의 지혜로 제치되고 있다.

박종성은 이런 蛇神說話와 人身供儀를 연결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전국적인 蛇神說話의 양상을 검토하면서 蛇神說話들의 의미적, 형식적 동질성을 추출하여 蛇神說話 내의 개별 설화들의 형성의 문제를 설화유형 상호간의 계기적 측면에서 고찰했다.<sup>99)</sup> 제의적인 관점에서 ‘蛇神에 대한 人間의 희생’을 전제로 하면서, 이러한 제의에서 생겨난 蛇神說話의 개별 자료들을 蛇神과 인간의 성적 결합의 측면과 蛇神과 인간의 대결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神婚祭儀에서 기원하며, 후자는 인간의 죽음을 통한 집단의 풍요와 번영이라는 희생제의에서 바탕을 둔다고 한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蛇神은 제치자 제치자를 복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제주의 蛇神說話를 본토의 것과 비교 연구하고 유형화하는데 유용한 점이 될 수 있으나, 人身供儀가 전국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며, 神婚祭儀의 존재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토부에는 제주 목사를 지낸 李衡祥 목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가) 옛날에 제주의 일이다. 병와(瓶窩, 이형상(李衡祥))가 50세 때 제주목사로 부임해 보니, 동짓날 저녁에 늘 팟국을 써서 당집에 갖다 놓고, 처녀를 하나씩 바쳤다. 병와가 이걸 없애려고 처녀 대신 들어가 큰 이시미가 나타나자 태워버렸다. 그 뒤로 고을이 편하게 되었다.<sup>100)</sup>

99) 박종성, 앞의 글.

무조신의 좌정담인 <칠성본풀이>와 건국시조나 성씨시조의 탄생담인 <야래자> 설화에, 한 개인의 행·불행담으로 존재하는 <구렁덩덩 신선비>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각 유형들이 근본적으로 신혼제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층위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양상을 살폈다. 그리고 제의에 대한 인간의 인식적 변모 과정에 따라 사신설화 사이의 선후 관계를 밝혔다.

그리고 사신과 타 신격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신격의 대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문화발전 단계와 연관시켜 해석하였다. 뱀, 지네, 두꺼비, 용으로 대표되는 사신격의 날 것, 찢은 것, 구운 것, 끓인 것, 훈증한 것과 같은 요리법에 있어서의 문화적 발전단계와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100) <병와(瓶窩)선생 괴물 퇴치>, 『大系 7-1』, 40~42쪽.

(나) (이형상 목사가) 어디 내려오니, 마상(馬上)에서 내려오라고 했는데, 내리지 않고 마상에서 당집을 불태우라고 했다. 그래서 무당들이 곳을 하다가 이형상 목사를 망하게 해달라고 하였다.<sup>101)</sup>

(가)는 李衡祥 목사가 이시미로 인한 폐단을 없애고 마을이 편안해지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전형적인 행복한 결말이다. 특이한 점은 희생 제물로 처녀 대신 목사 자신이 들어 갔다는 것이다.

(나)는 (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李衡祥 목사가 금기를 어기고,馬上에서 내려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집을 불태우라고 하는 데서 무당들과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설화의 줄거리를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옛날 허미수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이 고을의 원이 되어 가는데 동생도 따라갔다. 그 고을에는 정월 보름달 사람을 하나씩 굴에 넣어야 시절이 잘 된다고 한다. 생사람을 넣지 않고 동생이 피를 냈다. 구렁이가 좋아하는 것은 제비이기에 제비를 띠끼로 낚시를 하여 잡아서 가마솥에 끓여 죽였다. 동생이 형에게 형이 아기를 낳거든 죽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형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차마 죽일 수 없어 살려 주니 동생이 죽이라고 해도 죽이지 않아 형과 동생은 우의를 끊고 남남으로 갈라졌다. 아들이 자라 좌의정이 되었으나 나라의 역적으로 몰려 죽었다. 뱀의 혼령으로 나타난 아기 때문에 형의 가문은 망하게 되었다.<sup>10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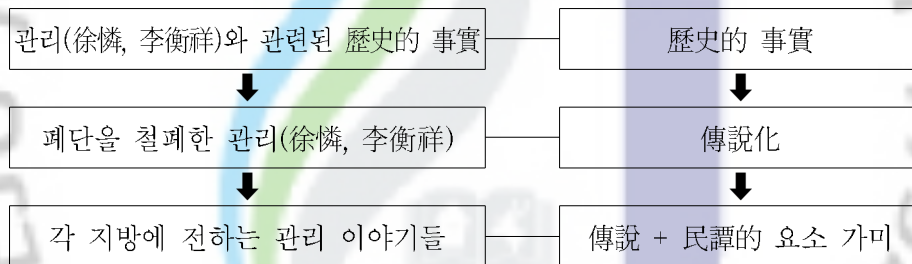
(나) 조선 중엽에 함흥부사가 부임하기만 하면 부임 첫날 죽곤 하므로 함흥 부사를 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말단 관리가 스스로 원하여 함흥부사가 되었다. 그는 부임하여 즉시 담배와 술을 준비하게 하고, 마루에는 명주실을 이리저리 매놓았다. 밤이 되자 부사는 방안에 화롯불을 피우고 계속하여 담배잎을 태웠다. 한밤중이 되니, 이상한 물체가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담배 연기가 자욱하니까 그대로 없어졌다. 날이 샌 다음, 부사가 사람을 시켜 명주실을 따라가 보니 지붕의 용마루 속으로 들어갔다. 부사는 큰 가마솥에 기름을 가득 부어 끓이게 한 다음, 장정들에게 준비해놓은 쇠집계를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라고 했다. 장정들이 용마루를 떠들어보니, 거기에는 큰 지네가 있었다. 장정들은 부사의 명령대로 그 지네를 잡아 토막낸 다음, 기름 가마에 넣고 끓였다. 그때 가마솥에 파란 기운이 뿜쳐 나와 부사의 얼굴을 썩니, 부사의 얼굴에 붉

101) <병와선생 무당 퇴치>, 『大系 7-1』, 42~43쪽.

102) <허미수의 형제와 뱀의 혼령>, 『大系』 7-2, 52~57쪽.

은 점이 생겼다. 그 후 부사가 아들을 두었는데, 얼굴에 점이 있어서 이름을 ‘자점(自點)’이라고 했다. 김자점이 역적이 되어 삼족이 멸망하는 화를 당했는데, 이것은 지네의 복수였다고 한다.<sup>103)</sup>

(가)에는 뱀이 아이로 환생하여 집안을 말하게 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인간을 희생시키는 존재가 뱀이 아닌 지네로 등장하고 있다. (나)에서 특이한 점은 神格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을 희생 제물로 요구하던 뱀이 지네로 변모된 것이다. 이러한 희생 제물이 처녀, 청년, 관리로 다양하게 변모되어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傳承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蛇神에게 처녀를 희생 제물로 바쳤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어, 이런 처녀의 犧牲譚이 口傳되는 동안 그 의미가 변모되면서 蛇神이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로 바뀐 것이다. 즉 傳說이 民譚으로의 변화가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蛇神과 人間이 對決하는 이야기'의 變貌 過程

徐憐 관관, 이형상 목사와 같은 관리와 관련된 실제 있었던 일이 傳承 과정에서 변모가 일어나 人間과 蛇神과의 對決이라는 傳說 단계로 전환된 것이다. 실제 있었던 일들은 가려지거나 윤색되어 傳說로 남게 되었다. 文化基層의 잠재적 소망과 傳說로 전이된 민중의 恨이 어떤 일어난 일을 직감·직시시키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sup>104)</sup>이 傳說 형식이다. 이어서 傳說이 事實로 이해되는 단계<sup>105)</sup>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실제 있었던 歷史的 事實은 傳說을 형성시킨다. 이어서 새로운 話素가 삽입되면서 民譚的 요소까지 가미되고 있다.

103) <함흥부사와 지네>, 『한국의 민담』 (1), 131~134쪽.

104) 이상일, 「說話의 歷史化와 역사의 傳說化」, 崔來玉 외, 『說話와 歷史』, 집문당, 2000, 63쪽.

105) 趙東一, 「人物傳說의 意味와 機能」,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9, 432~433쪽.



### 3) 意味

이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富神으로서 모습으로 나타났던 蛇神은 인간과 대립·갈등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제주의 蛇神說話의 경우,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堂神을 철폐하려는 이형상 목사의 행위를 통해 토착적인 신앙을 부정하는 지배 집단과 堂神 사이에서 벌어진 대립과 갈등은 堂神의 철저한 승리로 끝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堂神仰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 특유의 질서와 儒敎的 질서 체계를 지니고 있는 중앙 지배 권력 집단 사이의 대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허좌수, 李衡祥 목사라는 개인과 堂神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나타냈다. 堂神仰을 파괴하는 중앙 권력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과 蛇神이 대결하는 이야기’형 설화는 민간 신앙에 기반을 둔 土着民들이 중앙의 儒學的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동조하지 않는 의식이 표출된 것이며, 또한 邊方에 거주하여 주변인적인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을 그려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설화는 주변부 사람들의 信仰의 모습과 그것을 통해 살아가는 한 방법으로서의 中央에 대한 反支配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본토의 蛇神說話에는 제주의 蛇神說話에 나타나는 것처럼 蛇神을 妖邪한 대상으로 여겨 이를 퇴치하려는 관리가 蛇神에게 복수를 당하고 패배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蛇神에게 처녀가 희생되었다가 청년, 관리까지 희생되고 있는데, 이렇게 희생물이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는데, 이것은 蛇神說話가 가지고 있는 傳承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 즉,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蛇神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졌던 처녀의 犧牲譚이 口傳되는 동안 그 의미가 변모되면서 蛇神이 다양한 인간을 희생 제물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가 생긴 것이다. 즉 실제 있었던 사실이 傳說로 변화가 생겼으며, 후에 民譚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 人間이 蛇神보다 優位에 있는 이야기

蛇神이 優位에 있던 人間과의 관계가 對決로 이어지고, 이런 양상이 변모하여 人間이 蛇神보다 優位를 보여주는 유형의 이야기들이 나타난다. 崇拜의 대상으로 인간에

게 福을 주었던 蛇神이 人格을 지닌 대상으로 내려와 인간과 蛇神은 友好的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며, 인간이 절대적인 위치에서 蛇神을 懲罰하기도 한다. 즉, 인간이 먼저 곤경에 처한 蛇神을 도와주고 蛇神은 人間에게 보답을 하는 유형이 형성되기에 이른 것이다.

### 1) 濟州의 境遇

本土와는 달리 蛇神信仰과 傳承이 원형대로 잘 전해지고 있는 제주에서도 절대적인 위치에 있던 蛇神의 위치가 많이 하락된 형태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다음 이야기들을 통해 제주에 傳承되는 ‘人間이 蛇神보다 優位에 있는 이야기’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15명의 머슴을 거느리고 사는 부자가 하루는 수종에게 머슴들을 일할 곳에 배치하라고 이르는데 그 중에 한 부인이 마음에 들어 그 부인에게 후원을 깎도록 한 후에 접탈을 하는데, 그만 부인이 뱀에 물려 사경을 헤매게 된다. 차마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지는 못하고 중놈을 몇차례 부인네 집에 보냈는데, 한번은 뱀이 부인의 몸을 감고 있다고 하자 밤새 걱정한다. 날이 밝아 가보니 부인이 살아났는데 이는 낮에 뱀이 여자를 물었을 때 주인이 죽이려고 하자 부인이 죽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뱀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부인을 살려낸 것이다.<sup>106)</sup>

(나) 구씨 형제는 도술을 하였는데, 형은 정승이 되었고, 동생은 하는 일이 없이 지냈다. 남대문 밖에 도깨비가 나타나 백성들을 괴롭히자 구정승은 임금의 명을 받아 도술로 이를 물리쳤다. 구정승의 부하의 동네에서는 부모가 나이가 들면 반석에 올려 놓았다. 이렇게 하면 신선이 되어 올라간다는 신앙이 있어 부하가 휴가를 청하였다. 구정승은 부하와 동행하여 반석에 송곳 9개를 반석에 꽂아 놓았다. 2, 3일 후에 구정승의 부하가 다시 가보니 송곳에 큰 뱀이 걸려서 죽어 있었고, 아버지는 곁에서 놀라서 죽어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그 동네에서는 부모를 버리는 풍습을 없애고 돌아가시면 땅에 매장하게 되었다. 뱀을 죽인 후 구정승의 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구정승의 동생은 뱀이 환생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동생은 아들을 죽이라고 했지만, 구정승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몇 년 후 구정승은 중국에 사신으로 가게 되는데, 전날 남대문 밖

106) <은혜 갚은 뱀>, 『集成』(1), 453~454쪽.

으로 쫓겨난 도깨비의 소행으로 간신히 압록강을 건넌다. 구정승의 아들은 7살이 되자, 궁궐을 넘나들면서 행패를 부리고 다녔다. 아들은 잡히게 되고, 구정승 집안은 멸족을 당한다.<sup>107)</sup>

(다) 중병이 든 홀어머니를 위해 효자인 외아들이 의원을 찾아가다가 구렁이를 서로 싫어하는 것을 말했다. 구렁이는 담뱃대의 진을 싫어하고, 외아들은 돈을 싫어한다고 하자, 다시 만났을 때에 구렁이는 담뱃대의 진을 뿌린 원수 갚음으로 돈을 뿌려 놓으니, 외아들은 부자가 되었다. <sup>108)</sup>

이야기 (가)는 욕심 많은 주인이 머슴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뱀에게 물리게 했지만, 그 부인이 뱀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뱀은 인간의 도움으로 목숨을 유지하는 처지로 전략하게 된다. 神格의 하락이고, 人間이 蛇神보다 優位에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나)는 나이 든 부모를 잡아먹는 뱀의 소행을 구정승이 징벌하고 있다. 부모를 반석에 올려 놓으면, 神仙이 된다고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었지만, 뱀이 잡아 먹고 있었던 것이다. 구정승은 그런 뱀을 죽임으로써 악습을 해결하지만, 뱀이 환생하여 아들로 태어나게 된다. 갖은 악행을 저지른 아들도 인간에 의해 붙잡히고 있다. 인간에 의해 사신이 쉽게 제치되는 모습에 神格의 하락을 확인할 수 있다.

(다)는 뱀이 싫어하는 것을 주고 人間에게 이로운 것은 얻어 내는 지혜를 통해 人間이 蛇神보다 優位에 있음을 보여 준다. 어리석은 뱀의 행위가 인간에게는 오히려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또한, 蛇神의 모습이 동물적인 속성보다는 인간적인 면모를 강하게 드러낸다. 人間과 意思疏通을 하며, 인간에게 대하는 태도는 인간 세계의 가치관에 입각한 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이야기는 뱀이 財運을 나타내는 소재이지만, 崇拜의 대상은 아닌 예이다.

봉사가 앓은뱀이를 업고 얻어 먹으러 다니면서도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다니다가 앓은뱀이의 눈에 큰 황금 덩어리가 보였다. 자기가 황금을 차지하면 봉사가 섭섭할 것이고 봉사가 가져도 자기가 섭섭할 것 같았다. 그래서 어떤 장사하는 사람에게 황금

107) <구정승과 뱀 아들>, 『集成 (1)』, 287~295쪽.

108) <돈으로 원수 갚은 구렁이>, 『大系 9-2』, 212~216쪽.

있는 곳을 알려 주었는데, 장사치가 가보니 구렁이었고, 화가 나서 구렁이를 장도칼로 두 개로 갈라 끊어 버렸다. 앓은뱀이와 봉사가 다시 가보니 황금이 두 개로 나뉘어 있었다. 황금을 서로 나눠 가지고 잘 살았다.<sup>109)</sup>

앓은뱀이와 봉사는 현대적 표현으로 사회적 약자이다. 이들이 서로의 처지를 보완하며, 얻어먹는 처지지만, 서로 간의 의리를 해칠 수 있는 物慾을 멀리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구렁이는 장사치가 휘두르는 칼에 맥없이 잘리고 마는 존재이다. 악의 화신이거나, 인간에게 행패를 부리는 구렁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인간의 의지에 의해 사라지고 마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한편으로 뱀이 황금덩어리였다는 사실은 구렁이가 財運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이야기는 본토부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昇天譚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설섬에는 새빨간 뱀이 살고 있었는데, 용왕님께 기도를 드리며 용이 되기를 소원하였다. 설섬과 지귀섬 사이에 숨겨 둔 야광주를 찾으면 용이 될 수 있다는 용왕님의 말을 듣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으나, 100년 동안이나 찾아 낼 수가 없었다. 기진맥진한 뱀은 원한을 묻은 채 죽고 말았다. 그 후부터는 비가 오려면 설섬의 상봉에는 안개가 끼었는데, 사람들은 뱀신의 조화라고 말하며, 그 것으로 인해 거기에 ‘당’이 생기고 어부들은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sup>110)</sup>

뱀이 용이 되려고 하나, 좌절하는 이야기이다. 용이 되려다 기진맥진한 뱀이 죽고 어부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崇拜의 대상으로 蛇神을 보신다기보다는 원한을 품은 채 죽은 蛇神을 위로하는 人間의 배려하고 볼 수 있다. 본토부에서 비교적 많이 傳承되고 있는 뱀의 變身과 昇天이 제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는 이야기이다.

마지막으로, 뱀이 微賤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 <구렁이가 된 막내> (『集成 (1)』, 154~163쪽)와 <뱀으로 환생한 박씨>(『集成 (1)』, 824~829쪽)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들은 인간이 뱀으로 환생한다는 내용으로, 본격적인 蛇神說話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뱀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살필

109) <황금과 구렁이>, 『大系 9-2』, 664~666

110) <설섬[森島]과 뱀>, 『南國의 傳說』, 157~158쪽.

수 있기 때문에 제시한다. <구렁이가 된 막내>에서 뱀은 忌避의 대상으로서 인간에게 미친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구렁이는 악한 사람의 화신으로 惡行에 대한 징치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뱀은 凶物스런 대상이 되고 天罰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지닌다. 즉, 악한 막내가 구렁이가 된 것은 因果應報의 결과로, 勸善懲惡이라는 儒教的 倫理意識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다. <뱀으로 환생한 박씨>는 전형적인 警世譚이다. 친구 사이에 의리를 중히 여긴 사람은 神仙으로, 의리를 배신한 사람은 뱀으로 환생하고 말았다. <구렁이가 된 막내>와 같이 勸善懲惡의 윤리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친구 사이에 의리를 배신한 사람이 뱀이 된다는 이야기는 本土에도 많이 傳承되고 있다.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적으로 神仙 세계의 시간과 흐름이 인간 세상의 시간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좋은 경치를 구경하며 神仙世界에서 지내는 짧은 시간은 인간 세상의 몇 십 년에 해당한다. 오래 살려는 욕구는 太古 이래로 인간이 지내온 가장 절실한 소망이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神仙 사상이 성립될 수 있었던 이론적 근거<sup>111)</sup>를 찾을 수 있다.

## 2) 本土의 境遇

本土의 경우도 人間이 優位에서 蛇神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그러한 형태가 드러나는 이야기들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옛날에 한 사람이 산길을 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짐동 같은 것이 나타나 사람들을 해치니 산길을 넘지 말라고 말했다. 이 사람은 용이 되지 못해 고통스러워 하는 커다란 깡철이를 본다. 그 사람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 가라고 빌었다. 그러자 깡철이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고 그 사람은 많은 복을 받았다.<sup>112)</sup>

(나) 어떤 가난한 집안의 가장이 집을 나와 산중에서 큰 기와집에 하루를 묵게 되었다. 그 집 여주인과 동침을 하게 되어 한 달 모자란 10년을 같이 살게 된다. 문득 집 생각이 나서 집으로 와보니 큰 부자가 되어 있었다. 다시 산으로 향하던 중 여우를 만나게 되어 절색의 부인은 이무기라는 사실과 밥을 먹을 때 침을 세 번 뱉고 먹으라는 얘기

111) 曹喜雄, 『說話學綱要』, 새문社, 1989, 103쪽.

112) <용 못된 깡철이>, 『대계』 8-1, 113~114쪽.

를 듣는다. 가장은 여우의 말처럼 부인에게 하지 못하고 이무기는 용이 되어 승천을 하게 되고 가장을 도와 주었다.<sup>113)</sup>

(다) 구렁이 한 마리가 승천을 하려는데 사람들이 ‘구렁이 봐라’고 하자 승천을 하지 못한다. 이 구렁이는 강철이가 되어 지나는 곳마다 흉년이 들게 한다. 할머니가 유급이를 업고 지나다가 승천하려고 꿈틀거리는 구렁이를 본다. 유급이는 ‘할매, 용봐래이’ 하고, 이 말을 듣고 구렁이가 용이 되어 승천을 한다. 승천하면서 비를 많이 내리 이후 흉년이 계속된다. 그 아이의 이름을 ‘유급이 들’이라 한다.<sup>114)</sup>

(가)에는 龍이 되어 昇天할 수 있는 강철이<sup>115)</sup>가 人間으로부터 神格 인정을 받지 못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강철이가 산길에서 사람들을 해치는 행위는 인간에게서 용으로 인정받고 싶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마침내 강철이의 고통을 인지한 사람으로부터 “용님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라”는 기원을 받고 昇天한다. 蛇神이 겪는 고난을 인간이 해결해 주고 있다. 인간에게서 도움을 받은 뱀은 인간에게 복을 줌으로써 보상을 하고 있다. 신성한 존재로 崇拜를 받던 대상이 이런 변모를 보이는 것은 神格의 神聖性이 衰退<sup>116)</sup>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가난한 집안의 가장이 우연히 여인으로 변한 이무기에게 도움을 받아 살게 되고, 승천하지 못하는 이무기를 도와 龍이 되어 昇天을 하게 도와주는 이야기이다. 이무기는 가장의 집안까지 도와 주었고, 인간은 이무기의 은혜를 잊지 않고 여우의 말대로 하지 않아 이무기가 昇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장이 집에서 나와서 여인에게 가는 길에 만난 여우는 여인의 실체를 말하며 밥을 먹을 때 침을 세 번 뱉고 먹으라고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여우는 昇天을 하게 되고 이무기는 좌절하게 되는 것인데, 가장은 의리를 생각하여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만약에 여우의 말대로 했더라면, 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을 것이다. 결국, 義理를 지킨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나)는 (가)와 같이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가 인간의 도움을 받고 용으로 昇天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에 따른 보상으로 복을 받는다는 공통적인 내용을 담

113) <용이 된 이무기>, 『大系 4-1』, 235~239쪽.

114) <유급이 들과 용의 득천>, 『大系 7-2』, 289~290쪽.

115) ‘강철이’는 꿩철이, 구렁이, 이무기로 달리 불린다.(박민호, 『龍蛇神 說話 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8쪽에서 참조)

116)李志暎, 韓國 敘事文學의 研究, 國學資料院, 1997, 245쪽.

고 있다.

(다) 이야기는 ‘유금이 들’이라는 지명이 제시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神格인 구렁이는 잠재적 능력을 지닌 존재이며, 그 잠재적 가능성의 진행은 오랜 適地 생활에서 천상계로 昇天할 때로 나타난다. 그러나 인간들이 ‘구렁이 뱀’이라고 말한 것은 용이 되려는 구렁이에게는 금기이며 神格의 격하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구렁이에게는 방해자로서 그 言述로 인해 구렁이는 방해를 받고 마침내 昇天의 목적은 좌절된다. 그러자 구렁이는 흉년이 들게 함으로써 龍으로 昇天하려는 몸부림을 하는데, 이것은 인간에게 龍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한 행위이다. 구렁이가 人間에 의해 인정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格下될 수도 있음을 알게 한다. 마침내 유금이 구렁이에게 ‘용님’이라고 부름으로써 神格을 인정받은 구렁이는 비로소 용으로 昇天하고 있다. 이는 곧 인간에 의해서 蛇神인 구렁이가 神格을 인정받을 때 신격으로서 蛇神의 모습은 갖추어지고, 그 능력 또한 배가되어 발휘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그리하여 蛇神은 능력을 발휘하여 비를 내리게 하고 풍년을 이루게 하여 인간에게 施惠를 베풀고 昇天 이후에도 복락은 계속되어 유금자들은 풍년이 지속된다는 이야기이다.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昇天한 용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늘은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고 싶어하는 인간의 꿈의 대상인 동시에 도달할 수 없는 敬畏의 공간이다. 인간은 현실 속에 살면서 超越的인 세계를 동경하고, 일정한 공간에 한정된 존재이면서 동시에 무궁한 세계를 추구한다. 구렁이가 龍이 되어 昇天하는 것은 地上的 존재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 심리가 반영<sup>117)</sup>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 意味

위에서 살펴 본 이야기들은 절대적 崇拜의 대상에서 人間도 뱀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이다. 어리석은 蛇神의 행위가 인간에게는 오히려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 주고 경우가 있는가 하면, 蛇神의 모습이 동물적인 속성보다는 인간적인 면모를 강하게 드러내는 경우도 보이고 있다. 人間과 意思疏通을 하며, 인간에게 을 대하는 태도는 인간 세계의 가치관에 입각한 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뱀은 기피의 대상으로서 인간에게 미친한 존재로 인식된다. 여기에 勸善懲惡이라는 儒教的 倫理意識을 담고 있는 이야기 유형이 드러나고 있다.

117) 신월균, 「한국설화에 나타난 용의 이미지」, 『용, 그 신화와 문화(한국편)』, 민속원, 2002, 255쪽.

또한, 뱀과 人間이 상호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비교적 인간이 우위에 있는 이야기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주의 蛇神說話에는 本土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간의 도움으로 蛇神이 승천하는 蛇神의 變身譚이 드러나고 있지 않으며, 本土에서 보이는 이시미, 龍 등과 같이 蛇神의 다양한 형태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을 통해 제주도에는 남아 있는 蛇神說話의 흔적이 비교적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傳承되고 있고, 本土에는 희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Ⅲ. 蛇神說話의 文學的 受容의 樣相과 意味

#### 1. 文學的 受容의 樣相

<春香傳>, <배비장전>, <壘固執傳>을 비롯하여 많은 古小說이 說話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현대소설에서도 說話를 改作·變容하여 작품화하는 일은 흔하다.

일반적으로 설화를 소설화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옛날 설화의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대와 무대를 옛날 그대로 두고 再構하는 방법이다. <景文大王>을 새 인간상으로 재구성한 方基煥의 <귀>, 김유신을 재구성한 黃順元의 <차라리 내 목을>이 이런 예에 속한다. 둘째는 고전 세계와 현재와의 迎合이다. 鄭漢淑의 <禮成江曲>, <海鄕祠의 慶事>가 그 예이다. 이것은 옛 설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던가, 아니면 현대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고전적 소재가 완전히 현대적으로 융화되어 버리게 하는 방법이다. <장자못 전설>의 돌을 소재로 한 韓戊淑의 <돌>, 吳永壽의 <실겉이 꽃>이 이런 예에 속한다.<sup>118)</sup> 이 세 가지 방법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서로 혼용되어 나타난다. 한편, 소설 작품에 등장하는 많은 설화들을 유형별로 먼저 하나의 설화가 소설전체의 구조로서 참여하는 ‘구조로서의 설화’와 설화의 화소가 소설 속에 다양하게 삽화로 등장하며, 소설의 부분적 요소로 작용하는 ‘삽화로서의 설화’<sup>119)</sup>로 나누기도 한다.

뱀을 신성시한 경우는 古小說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崔孤雲傳>이다. 이 작품은 신라 말의 대학자인 최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역사적 사실을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작가의 독창성을 발휘한 고소설이다. 이 소설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1. 최충이 문창 수령으로 부임했을 때, 금돼지가 부인을 납치한다. 그러나 부인의 기지로 금돼지를 죽이고 돌아와 여섯 달만에 곧 최치원을 낳았다. 충은 아들이 금돼지의 자식

118) 張德順, 『韓國說話文學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8, 310~311쪽.

119) 文聖淑, 「제주설화의 현대문학적 변용」, 『濟州文學』 제22집, 濟州文人協會, 1992, 130~131쪽.

이라 하며 길거리에 버리지만, 선녀가 내려와 치원을 기른다. 뒤에 충이 데려오려 했더니, 부모의 無道를 힐난하며 거절하였다.

2. 하루는 중원의 천자가 치원의 시 읊은 소리를 듣고, 才士 두 사람을 보내 대적하게 했으나 패배하고 돌아간다. 천자가 크게 노하여, 돌함에 계란을 넣고 밀봉하여 신라에 보내 돌함 속에 든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짓지 못하면, 신라를 섬멸하겠다고 한다. 이 때 치원이 나 승상의 딸을 아내로 삼아 주는 조건으로 돌 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짓는다.
3. 시를 받아 든 천자가 놀라 치원을 죽이려고 중국으로 불러들인다. 치원은 중국으로 가는 길에 용궁에서 환대 받고, 老驅와 미녀로부터 난관을 극복할 방법을 알게 된다. 낙양에 도착한 최치원은 천자의 奸計를 모두 물리치고 중원 학자들과의 문장 대결에서도 승리한다.
4. 때마침 黃巢의 亂이 일어나자, 치원이 檄文을 지어 항복을 받으니, 천자의 신하들이 시기하여 죽이려고 孤島로 유배를 보내지만 치원은 살아서 돌아온다. 치원은 사람을 몰라보는 황제 밑에서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신라로 돌아와 가야산에 들어가 신선이 된다.<sup>120)</sup>

<崔孤雲傳>은 작자 및 연대 미상의 고소설이다. 이 작품은 신라 말의 渡唐留學生이며, 대학자인 최치원의 傳奇的인 사실을 근간으로 삼았지만, 그의 실제 삶과 행적보다는 그와 관련되어 민간에 널리 유포되었던 설화에 기반으로 하여 성립<sup>121)</sup>된 작품이다. 소설에서 최치원은 뛰어난 시로써 천자로 하여금 감탄이 나오게 하였다. 최치원의 뛰어난 능력에 놀란 천자는 최치원을 죽이려고 중국으로 불러들인다. 최치원이 중국에 들어갈 때 여인을 만나 앞으로 닥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 여인은 최치원이 중국에 가면 쉽게 살아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앞일을 예언한다. 여인은 비단 주머니에서 부적 쓴 것을 내주며 “첫 문의 다다라 청서부를 더지고 둘째 문의 다다라 홍서부를 더지고 셋째 문의 다다라 백서부를 더지고 네지 문의 다다라 흑서부를 더지고 다섯째 문의 니르러 황서부를 더진 후의 그 밧기 문을란 글노써 화답하면 어려운 화를 쇼멸호리라”라고 가르쳐 주었다. 난관이 닥치자 여인이 준 부적을 차례로 던지고, 셋째 문에 이르러 부적을 던지자, 뱀으로 변하여 꼬끼리 꼬에

120) 히브리대학 도서관 소장 국문 필사본 <최충전(崔忠傳)>, 최삼룡 외 역주, 『유충렬전·최고운전』,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6, 478~541쪽.

121) 玄丞桓, 『崔孤雲傳의 樣相과 小說化 過程』,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45쪽.

감기나 코끼리가 능히 입을 열지 못하였다. 결국 뱀 덕분에 최치원은 무사히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서 뱀은 인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문학에서의 뱀은 李光洙의 <나는 바보다>, 蔡萬植의 <태평천하>, 徐廷柱의 <花蛇> 등에 나타나는 것처럼 징그럽다는 선입관과 뱀이 지닌 독으로 인해 부정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尹興吉의 <장마>에는 恨을 품은 채 죽은 사람의 現身과 집안을 지켜주는 崇拜의 대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작품들은 본격적으로 蛇神說話를 현대적으로 개작시킨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경우들이다. 위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설화의 소설화는 내용과 구조를 온전하게 수용하는 경우와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장에는 蛇神說話가 문학에 본격적으로 受容된 경우와 부분적이나마 蛇神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작품들을 통해 蛇神說話의 문학적 受容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蛇神의 優位

제주 문학의 경우 제주의 蛇神說話를 본격적으로 소설화한 작품인 李在洪<sup>122)</sup>의 「여드렛당의 숙명」은 그의 첫 창작집인 『팔녀각(八女閣)』에 실려 있다. 이 작품은 위에 제시한 說話의 현대화 방법 중 세 번째인 고전적 소재가 완전히 현대적으로 용화되어 버리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면서, 설화가 소설의 삽화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여드렛당의 숙명」은 고향과 土俗, 뱀의 傳說에 얽혀 묶여있는 정어진이 뱀의 저주의 숙명에서 빠져나오려는 고통 끝에 다시 그 세계로 回歸해 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작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정어진은 어릴 적 서로 뒤엉켜 나뉘는 무더기의 뱀들이 나오는 꿈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면서 오르가즘에 취해 있는 자신을 발견했던 일을 회상한다.

---

122) 1959년 전라남도 목포에서 출생하여 제주도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소년기에 서울로 올라와 숭실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하였다. 1987년에 渡日, 도쿄대학 종합문화연구과에서 연구과정과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하였다. 1996년 서울게임대학의 게임시나리오 창작학과 전임교수, 여러 대학에 출강하다가 현재 서강대학교 디지털게임교육원의 부원장이며 게임시나리오 창작전공의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7년 《창조문학》에 단편 <팔녀각>으로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하였고, 저서로는 《게임시나리오 작법론》, 《한일 근대문학에 나타난 전통가족의 붕괴》 등이 있다.

2. 정어진의 어머니는 토산 출신으로 결혼 후, 교회를 다니는 시어머니가 뱀을 모시지 않아 술한 병치레를 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뱀일을 하던 남편마저도 두렵한 이유없이 시름시름 앓았다. 결국 여드렛당을 모시고 나서야 병은 호전되었고 뱀일을 하며 넉넉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3. 생활이 안정을 되찾게 되자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고, 여드렛당을 없애버렸다. 그러자 정어진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어미를 한꺼번에 잃었다. 김노파는 아들의 죽음이 ‘토산년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날까지도 가슴을 치고 있다.
4. 그녀는 귀향 후 앓기 시작하는데, 밤마다 뱀 꿈에 시달린다. 뱀들은 매일 밤 그녀의 몸뚱이를 뚫뚫 감아 강하게 갓밟고 유린하며 온몸을 흥건하게 적시어 놓았다.
5. 할머니는 정어진을 위해 무당을 불러온다. 굿의 진행과 함께 그녀는 현수를 그리워하며 과거를 회상한다.
6. 현수네 아버지 김씨는 폐병을 앓고 있었다. 마을 당산나무 주변에는 마을 어른들이 마을을 지켜주는 뱀으로 믿는 1미터가 넘는 황구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현수 아버지가 잡아먹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7. 정어진은 서울로 상경하여 취직하고 나서 현수와 다시 만나고, 그녀와 현수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서 뱀 꿈은 시작되었다. 자재창고에서 커다란 뱀을 발견하고, 그 존재를 알렸으나, 현수를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다.
8. 뱀이 현실로 나타나고 현수가 뱀을 죽이고, 사장은 황재했다면서 뱀을 먹어버린다. 그 후부터 뱀의 눈빛이 내내 그녀의 가슴에 남아 그녀를 괴롭혔다. 또한 현수는 뱀 사건 이후로 마을을 쫓겨나던 어린 시절 원망에 가득 찬 눈빛이 그녀를 향했다.
9. 이 후 회사는 망하고, 현수는 안전사고로 다치게 되며, 그녀는 실직을 하게 된다. 더 이상 현수의 곁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고향을 찾아가게 된다.
11. 그녀는 혼절하고 그녀가 깨어났을 무렵에는 무당이 울리는 징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무당의 자지러지는 목소리들 가운데서 뱀을 홀대해서 노여움을 받아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이 선명하게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다.
12. 그 달 초팔일날, 마을 사람들은 그녀와 김노파가 여드렛당을 지어 신에게 치성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sup>123)</sup>

이 작품은 정어진이 뱀의 저주의 숙명에서 빠져나오려는 고통 끝에 다시 神話의

123) 이재홍, 『팔녀각』,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 2005, 239~259쪽.

세계로 돌아가는 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全知的 作家 視點의 소설이다. 蛇神에게 벗어나려고 하고 해를 가했다가 도리어 화를 입는 경우가 드러난다. 정어진의 고통을 치유하는 무당은 “네 어미의 업은 떨굴 수가 없구나. 너에게 남자가 생기면 사신(蛇神)은 어김없이 찾아든단 말이야. 여드렛당의 신이 노여움을 품었어. 네 어머니가 사신을 극진히 모시기만 하였던들, 너희 가문이 멸문을 하진 않았을 게야. 토산출신은 어쩔 수 없어. 여드렛당에 신을 모셔야할 팔자를 타고 태어났으니까……”라는 말을 통해 뱀을 모셔야 하는 것이 숙명이고, 그럼으로써 잘 살 수 있다는 주민들의 믿음을 알게 한다. 예전에 토산에서는 집집마다 뱀신(蛇神)을 섬기고 정성스럽게 치성을 올리곤 하였다. 토산 출신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뱀신이 함께 따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시집가든지 뱀신을 모셔야만 아무런 재앙 없이 잘 살 수 있었다. 蛇神을 모시지 않으면 식구들이 병이 들거나 집안이 우환이 들게 되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토산여자들을 며느리로 맞길 꺼려했었다고 김노파는 그녀에게 전하고 있다.



<그림 3> 紅兒位(조지홍이 아기씨)

또한, 정어진의 눈에는 뱀이 이브를 꼬드긴 사악한 속성을 지닌 뱀처럼 자신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이런 정어진을 위해 할머니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해준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토산 여드렛당> 설화에서 죽은 처녀가 가시리집 외달 아기에게 신병이 내리자 굿을 하여 치유하는 것과 유사하다.<sup>124)</sup> 이런 유래로 뱀을 상징하는 ‘방울 친 돌리는’ 방울푼의 재차가 생겼고, 뱀을 그리는 것도 이때 생겼다.<sup>125)</sup> 이 모습은 내왓당<sup>126)</sup> 무신도<sup>127)</sup>에는 뱀이 머리를 휘감고 있는 ‘홍아위紅兒位(조지홍이 아기씨)’

124) 김유정, 「제주의 무신(巫神圖) : 현존하는 내왓당 무신도 10신위 연구」, 『耽羅文化』 18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7, 208쪽.

125) 김유정, 위의 글, 206쪽.

126) 내왓당[川外祠]는 제주성 서쪽 3리 떨어진 곳에 있다. 친외는 ‘내밖’이라는 제주어인 ‘내팻’ 또는 ‘내왓’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지금은 ‘내왓당’이라고 한다. 원래 제주시 용담동 한내 서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민가가 들어 서 있다. 다만 ‘내왓당’의 분파신이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가를 닮았다. 이 神位는 정절상군농이 낳은 한 아기로써 시집 못 가 죽은 처녀의 혼을 달래주는 신으로 트레머리가 풀린 처녀의 모습이다. 이 트레머리는 구렁이가 영킨 형상<sup>128)</sup>을 하고 있다. 유독 이 여신만 젓가슴이 나와 있고 얼굴의 분위기가 침울하고 음산하다. 가슴에는 청색 술병이 매달려 있다.



<그림 4> 相思位(上事大王)

이런 특성 외에 이 작품은 蛇神說話를 바탕으로 官能的인 면을 결합하여<sup>129)</sup>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뱀은 흔히 남성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또한, 뱀은 달의 에스피니[神顯]이기 때문에, 달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뱀을 손에 들고 있다. 서양의 많은 민족들은 달이 뱀의 형태

를 하고 인간의 여성과 성 관계를 맺는다고 믿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믿는 민족이 있다. 알렉산더 대왕의 어머니 올림피아는 뱀과 놀아났으며, 수에토니우스와 디오카시우스는 어머니가 아폴로의 신전에서 뱀과 포옹하고 임신했다고 한다. 헤르라이인은 처녀가 뱀과 성 관계를 가진다고 믿었다. 고대의 풍요 의식에서 뱀을 男根의 상징으로 崇拜한 민족이 있다.<sup>130)</sup>

卓明煥은 선행 연구<sup>131)</sup>에서 토산 당 뱀 신앙에 대해 뱀이 섹스의 상징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병과 성적 욕구를 연관 지은 해석한 바 있다. 토산당 신화의 뱀은 성의 상징이고 무의식 속에 숨겨진 성적 욕구가 뱀이라는 신앙 대상을 통해 승화되었다는

경내에 있다.(이원진 저, 김찬흡 외 역,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147쪽.) 또한, 내왓당은 제주시 광양당, 대정현 광정당, 정의현 성황당과 더불어 국당 중의 하나였던 당으로, 증보탐라지에 의하면 1882년(고종 19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훼손되었다고 한다.

127) 그 이름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제석천왕 마노라(帝釋位), 어모라원망님(冤望位), 수량상태자마노라(水靈位), 내외 천도마누라(天子位), 새금상감찰지방관(監察位), 상사대왕(相思位), 중전대부인(中殿位), 정절상군농(相軍位), 내외 불도마노라, 즈지홍이 아기씨(紅兒位)의 열 신위와 당굿을 이어온 매인심방들 중 이름 높은 옛선생들의 신위다.

128) 내왓당 무신도에서 뱀의 형상은 相思位(上事大王)에도 그려져 있다(그림 4 참조)

129) <法華經>에 뱀은 유혹이요 애욕이다. 그는 제 몸을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라, 꽃나무 뿌리 밑에 숨어서 사람을 미혹시킨다.(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편, 앞의 책, 327쪽.)

130) 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편, 위의 책, 326~327쪽.

131) 卓明煥, 앞의 글, 71~78쪽.

과장된 해석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재홍의 <여드렛당의 숙명>은 卓明煥의 주장을 일부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주인공의 꿈에 나타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뱀은 외적인 형태나 집요한 생명력으로 남성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蛇神과 人間의 對決

玄吉彦<sup>132)</sup>의 소설에서 제주의 蛇神說話를 소재로 한 <金寧蛇窟 본풀이>와 <廣靜堂記>가 있다. 玄吉彦 소설은 제주도 설화와 이야기를 소설적으로 형상화한 작품 세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음의 언급이 주목된다.

제주 사람들의 생활은 불모의 자연환경의 재난과 행정의 부재에서 오는 학정, 가림주구, 외세의 침탈에서 오는 위협 속에서 ‘언제면 죽어 이 고생을 면할까’ 하는 탄식 속에 살아왔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진(自盡)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극복하려는 피나는 노력 속에 살아왔다. 그래도 꿈을 갖고 부지런히 일했고 때로는 학정에 저항해 난도 일으켰다. 그 모든 것은 생존에의 몸부림이었다. 이 글은 설화를 통해 제주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의도에서 쓴다. 선학(先學)들이 수집 정리해 놓은 설화들을 처음 대했을 때 가졌던 흥분 같은 것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sup>133)</sup>

玄吉彦에게 제주 설화는 창작의 바탕<sup>134)</sup>이면서, 그것을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연자라고 할 수 있다. 「김녕사굴 본풀이」는 위에서 살펴본 설화의 소설화 방법 중에서 첫째 방법에 해당한다. 곧, 옛날 설화의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대와 무대를 옛날 그대로 두고 再構하는 방법으로, 설화가 소설전체의 구조로서 참여하는 ‘구조로서의 설화’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우선 바탕이 되는 설화는 우선 바탕이 되는 설화는 <이시미와 최판관>(『大系 4-2

132) 玄吉彦은 1940년 제주도에서 출생하여 1979년 「성이 무너지는 소리」로 추회 추천, 1980년 「급장 선거」로 추천완료되어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작가이다. 그의 작품 세계는 ① 제주도 설화와 이야기의 소설적 형상화의 세계, ② 폭력적 시대 상황에서의 윤리와 양심의 문제의 세계, ③ 제주4·3과 역사에 대한 인식의 세계, ④ 인간과 종교에 대한 성찰의 세계, ⑤ 아이의 눈을 통해 본 통과 제의의 세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김동윤,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300쪽.)

133) 현길언, 앞의 책, 16~17쪽.

134) 현길언은 소설가이면서 학자이다. 그의 학문적 출발점은 설화에 있었는데, 그의 석사 학위논문, 첫 전국학회 발표 논문, 첫 저서 등이 모두 설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김동윤, 앞의 책, 301쪽.)

』, 552~554쪽), <김녕 사굴>(『大系』 9-1, 39~41쪽), <김녕 뱀굴>(『大系』 9-1, 191~193쪽), <김녕 뱀굴>(『大系』 9-2, 637~638쪽), <金寧 뱀굴>(『大系』 9-2』, 719~721쪽), <金寧 뱀굴>(『濟州島傳說』, 114~116쪽), <金寧 뱀굴>(『濟州島傳說』, 116~118쪽), <金寧 뱀굴>(『濟州島傳說』, 118~119쪽), <뱀굴(金寧蛇窟)>(『南國의 傳說』, 154~155쪽), <金寧窟의 구렁이>(『韓國民間傳說集』, 175~176쪽), <병와(瓶窩)선생 괴물 퇴치>(『大系 7-1』, 40~42쪽), <金寧蛇窟>(任哲宰, 『韓國口傳說話(全羅南道·濟州道篇)』, 206쪽), <구렁이(또는 지네) 퇴치 설화>(한국민화에 대하여』, 43~45쪽) 등이 채록되어 있다.

이들은 대체로 蛇神과 인간은 갈등하는 양상을 드러낸다. 이렇듯 ‘김녕뱀굴’ 설화는 ‘지하국대적제치’형의 대표적인 설화로 蛇神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설화를 근간으로 한 玄吉彦의 <金寧蛇窟 본풀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교수가 김녕사굴에 임한 전설과 본풀이를 조사한다.
2. 김녕 본향당의 무당이 마을 집집마다 모아 놓은 제물로 본향당신이 모셔진 굴 앞에서 굿을 한다.
3. 변방의 수비를 튼튼히 하여 기강을 바로 잡으려는 조정의 의도로 젊은 판관이 부임한다.
4. 판관이 무당들을 잡아들이고 뱀을 퇴치할 생각으로 굿을 진행시키려고 한다.
5. 굿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관이 신당을 불태우고 심방들을 포박한다.
6. 판관이 노루 사냥을 나갔다가 낙상하여 죽자, 김녕 본향당 할머니님이 판관을 말에서 떨어뜨려 버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sup>135)</sup>

단락 1은 소설의 도입부(외부이야기)로, 玄吉彦은 설화를 소설로 수용하면서 이러한 도입부를 즐겨 활용하였다.<sup>136)</sup> 단락 2에서 무당이 굿을 할 때에는 <蛇神七星 본풀이>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이것은 작가가 현전하는 蛇神說話를 모두 취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알게 해준다. 단락 2~6까지는 설화의 내용과 비슷하다.

설화와 소설을 비교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35) 玄吉彦, 『龍馬의 꿈』, 문학과지성사, 1984, 93~117쪽.

136)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김녕사굴 본풀이」를 비롯하여 「광정당기」, 「세 장사 소진」, 「배큰뉘서방」 등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김동윤, 앞의 책, 304쪽.)



	설화 <金寧蛇窟>	소설 <金寧蛇窟 본풀이>
除治者	徐憐 判官	判官
除治의 대상	蛇神	蛇神
犠牲 祭物	처녀	집마다 모아 놓은 제물
禁忌 事項	뒤를 돌아 보지 말아야 함	없음
助力者	있음	없음
結果	判官의 패배	判官의 패배

<표 2> 설화 <金寧蛇窟>와 소설 <金寧蛇窟 본풀이>의 비교

이 소설에서 뱀이 비록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매년 정해진 때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정성 들여 마련한 제사를 받는다는 것으로 봐서, 마을 사람들이 받들어 모시는 堂神 임에 틀림없다. 이에 대하여 김영화는 뱀이 나온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으로, 傳說과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민중들은 소문을 만들어내고, 그런 소문을 검증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이 소설의 메시지<sup>137)</sup>라고 하였다. 현대인에게 뱀의 출현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인들은 뱀의 출현을 왜 믿었는가 하는 물음에 ‘민중들의 어리석음’이라는 해석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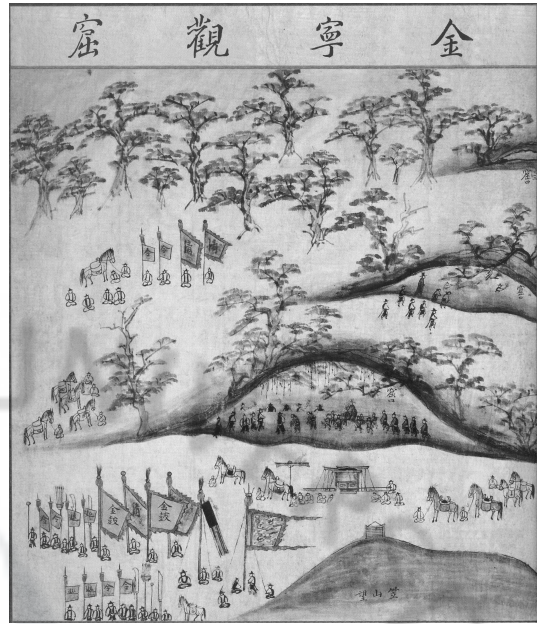
유교적 가치관을 지닌 관리의 입장에서는 蛇神에 대한 제주민들의 신앙 행위가 폐단으로 인식되어 蛇神을 제치한다. 이 설화에서도 본토부 이야기에 나타나는 용기 있는 관원이나 지방 수령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귀를 퇴치해서 백성들의 평안을 도모했다는 이야기와 같은 유형이다. 그런데, <廣靜堂> 설화처럼 이 설화에서도 결구에서 상황은 뒤바뀐다. 소설의 서두에 “육지부에도 음사(淫祀)나 요귀를 용기 있는 관원들이 퇴치하여 백성들의 안위를 도모하였다는 이야기는 많이 전해지고 있으나 퇴치한 자가 요귀의 흥함에 의하여 패배 몰락하는 경우를 이 교수는 들어 보질 못했다.”<sup>138)</sup>라고 하였다. 즉 요귀의 퇴치자인 관원이 蛇神에게 복수를 당하고 패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말은 堂神의 편에 선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향유했다는 점에서 지배 세력에 대항하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堂神에 의해 관리가 패배하는 모습은 <耽羅巡歷圖>의 ‘金寧觀窟’<sup>139)</sup>에 잘 기록되어

137)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1, 57쪽.

138) 현길언, 앞의 책, 94쪽.

있다. ‘金寧觀窟’은 1702년(숙종 28년) 10월 30일 실시되었다. 濟州牧使(節制使) 李衡祥은 제주판관 徐憐<sup>140</sup>의 무용담을 듣고 난 후 제주성을 떠나면서 줄곧 김녕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sup>141</sup> ‘金寧觀窟’은 별방진을 순시하러 가다가 수행원들과 말을 잠시 쉬도록 하는 과참 동안 김녕굴을 구경하며 서런 판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림 5> 金寧觀窟

판관 서런은 1513년(중종 8년) 2월에 도입하고 그 후 2년이 지나서 을해년 4월 10일에 죽었다. 구좌면 김녕굴에 있는 큰 구렁이를 사살하고 백성을 해치는 일을 제거시켰다. 어떤 전설에 “공이 큰 뱀을 사살하고 군부대의 말을 타서 주성(主城)으로 달리는데 배후에 한점 붉은 기운이 몰려와 덮쳤다. 관아에 도착하고 자빠져 10여일 만에 죽으니 그의 나이가 19세였다”고 했다.<sup>142</sup>

金寧蛇窟<sup>143</sup> 입구에는 현재 판관 徐憐의 은덕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功德碑 2기가 서 있다. <그림 6>의 왼쪽에 있는 비는 1937년 봄에 東隱 康共七이 세운 ‘判官徐公憐紀念碑’이고 <그림 6>의 오른쪽에 위치한 비는 1972년에 濟州判官徐憐公事蹟碑建立委員會에서 세운 ‘濟州判官徐憐公事蹟碑’이다. 두 功德碑에는 판관 徐憐의 덕행을 기념하는 내용이 비문<sup>144</sup>에 새겨져 있다.

139) 壬午十月三十日 過站 高三十尺 廣二十尺 深五里(‘金寧觀窟’, <耽羅巡歷圖>, 제주시, 2002(제4판), 42~43쪽.)

140) 1494년(성종 25년)~1515년(중종 10년). 조선조의 무신. 본관은 이천. 定山 현감을 지낸 徐宗秀의 아들로 강원도 홍성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외조인 良敬公 鄭文炯에게 의탁하여 자랐다. 1511년(중종 6년) 무과에 장원급제하고 전설에는 1515년(중종 10년) 3월에 妖蛇를 죽였다. 이에 앞서 妖蟒 이 五石缸 만큼 큰 것인데 굴 속에 살면서 妖蟒을 일으키자 그 지방민은 매년 초에 酒食으로 제사를 지내고 만 15세의 처녀로서 희생에 대신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질풍·怪雨가 연중 그치지 않았다.(譯註增補耽羅誌 編纂委員會 譯, 『譯註 增補耽羅誌』, 濟州文化院, 2005, 747쪽.)

141) 김오순, 『탐라순력도 산책』, 2001, 65쪽.

142) 譯註增補耽羅誌 編纂委員會 譯, 『譯註 增補耽羅誌』, 濟州文化院, 2005, 747쪽.

143) 김녕굴은 천연기념물 제98호로, 총 길이가 705m이며, 꾸불꾸불한 형태 때문에 사굴, 뱀굴이라고 불리어 왔다.

144) 1937년 건립된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음각되어 있다. “公距今四百二十三年前 乙亥爲濟州

功德碑가 담고 있는 내용은 傳承되고 있는 설화의 내용이나 소설로 형상화된 내용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功德碑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고, 설화와 소설은 당시를 살았던 제주의 민중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 徐憐判官功德碑

玄吉彦의 <廣靜堂記>는 ‘李衡祥 목사의 神堂 철폐’에 대한 설화를 소설화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술자가 덕수리 학술조사에서 채록한 ‘목사가 광정당을 부순 이야기’를 소개한다.
2. 매달 초이레마다 광정당에서는 당제가 벌어지고 굿판을 겸한 굿놀이가 벌어진다. 이 대정 고을 근방의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한 달에 한 번은 광정당에 모여 이런 일을 치러야 가슴 속에 서려 있는 온갖 것을 씻어낼 수 있다.
3. 새로운 목사가 당을 부수고 무당들에게 굿을 못 하도록 영을 내린다.
4. 목사는 신당을 철폐하고, 관아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제주 백성 대회’를 열어 임금의 윤희 사항을 발표한다. 임금이 베푼 은전의 대가로 신당을 부수는 일을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의 원망이 시작된다.
5. 제주의 당들을 차례로 철폐하는데, 목사는 광정당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소문을 듣고 광정당으로 행차하게 된다.
6. 목사는 광정당 앞을 지날 때에는 그 누구라도 下馬해야 화를 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내리지 않고 가려고 하나 말은 움직이지 않았다.
7. 목사는 광정당의 귀신을 나오도록 굿을 할 것을 명한다. 굿이 행해지고 당은 철폐된다.
8. 목사는 이상한 일에 연루되어 파직되고 육지로 쫓겨나듯 떠나고, 고향에 돌아와 보니 세 아들이 죽어 있었다는 소문이 퍼진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나고, 쓰러진 팽나무 밑 등지에 단을 쌓아 매달 정성껏 제물을 바쳤다.<sup>145)</sup>

通判 時年九月 先時有一大蟒 居此窟中 作妖興凶 土人歲供一處女 代牲而祭之 否則有風雨之災云 公聞甚慨歎 卽刺燒之 以杜千秋之弊 其剛正之氣 除害之功 宣乎 食息不忘而湮沒 無稱之者 惜哉 不佞會在面吏 念念而未遑 今茲略述往跡 爲堅短碣 并書一絕爾 孫郎 行東隱 一劍并二難 鄴候絕淫祀 千秋名不死”(濟州大學校博物館 編, 『北濟州郡의 文化遺蹟 I : 先史·歷史』, 北濟州郡, 1998, 214에서 참조)

단락 1은 소설의 도입부(외부이야기)로, 단락 2~8까지가 본격적인 이야기로, 설화의 내용과 비슷하다. 설화와 소설을 비교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설화 <廣靜堂 설화>	소설 <廣靜堂記>
除治者	李衡祥 목사	새로운 목사
除治의 대상	蛇神	蛇神
犠牲 祭物	처녀	집마다 모아 놓은 제물
禁忌 事項	뒤를 돌아 보지 말아야 함	없음
助力者	있음	없음
結果	목사의 패배	목사의 패배

<표 3> 설화 <廣靜堂 설화>와 소설 <廣靜堂記>의 비교

단락 2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매달 초이레마다 벌어지는 굿놀이를 통해 가슴 속에 서려 있는 것을 씻어낸다고 하였다. 단락 3과 에서는 신당을 철폐하는 일이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의 원망이 시작된다는 내용이다. 단락 8에서는 목사에게 의해 광정당 팽나무가 쓰러지고 무당들이 잡혀간 날부터 기운이 없고 어둑어둑한 얼굴로 다니던 마을 사람들이 “생기가 나고 하는 일에 힘이 붙어 흥얼흥얼 신이 나는 듯 싱글벙글하였고, 그들은 다시 쓰러진 팽나무 밑둥지에 단을 쌓아 매달 초이레마다 없는 살림에도 정성껏 제물을 만들어 드나들기 시작하였다.”<sup>146)</sup> 이것을 통해 무속에 행해지는 제의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祭儀에서 구연되는 본풀이가 儀禮的인 모습과 더불어, 사람들 사이에 형태의 설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설화는 朝鮮朝 때의 중앙의 지방에 대한 완전한 支配라는 支配 이데올로기에 대립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앙의 지방에 대한 태도는 현대에도 연결되고 있는 문제라는 관점으로 이 소설에 접근하는 시각이 있다. 즉, 제주도가 무분별로 개발로 인해 폐해가 많아지게 되면서, 주민들은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고려 시대부터 지속되었던 수탈의 양상이 당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점에 玄吉彦은 설화를 변용하면서 발언한

145) 玄吉彦, 『우리들의 스승님』, 문학과지성사, 1985, 54~77쪽.

146) 현길언, 위의 책, 77쪽.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sup>147)</sup>이다. 이와 관련하여 玄吉彦은 “제주 전설이 제주 사람들의 삶의 방법과 존재 양식이라고 할 때, 단지 그 표현 양식이 문제일 뿐이지 전설은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제주사람들이 향유했던 그 많은 구비문학 작품들에 대한 탐구는, 인간들의 삶의 역사와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비단 그것은 제주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벌어졌던 이야기로서 끝날 것이 아니다. 한국적인 것이면서 모든 인간의 이야기와 통하기 때문”<sup>148)</sup>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 3) 人間의 優位

‘人間이 蛇神보다 優位에 있는 이야기’ 유형을 전면적으로 현대화한 작업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나마 蛇神說話를 현대적으로 수용, 변용한 예로 제주 출신 작가 玄基榮의 <지상에 손가락 하나>를 주목하게 되었다.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自傳的 사실을 바탕으로 전개하고 있는 長篇小說이다. 여러 소재목 아래 유니버스 형식으로 이야기가 엮어져 있다. 작가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소재들은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풍속 속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서 蛇神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이 여러 소재들 중 <증조 할아버지>, <뱀>과 관련된 에피소드이다. 주인공 ‘똥강이’를 비롯하여 친구 ‘누렁코’, ‘웬강이’ 등 어린 개구쟁이들이 사춘기 소년으로 자라날 때까지의 이야기가 웃음과 함께 눈물을 함께 선사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공동체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제주4·3사건과 6·25전쟁 등의 큰 사건들로 인해 어린 소년들의 개인사는 역사 속에서 함께 호흡을 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인간이 역사적 실존을 담아낸 成長小說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위에 제시한 설화의 현대화 방법 중 세 번째인 고전적 소재가 완전히 현대적으로 융화되어 버리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면서, 설화가 소설의 삽화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蛇神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자.

(가) 증조부는 그 징그러운 뱀을 그렇게 영감이라고 불렀다. 집구렁이를 재산을 지켜주는 업신으로 신성시하는 이러한 관념은, 무릇 신의 존재가 그렇듯이 고마움과 두려움의 혼합된 감정에서 빚어진 것이리라. 집구렁이는 곡식을 축내는 쥐들을 없애주는 고마운

147) 김동윤, 앞의 책, 310쪽.

148)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弘盛社, 1981, 203쪽.

존재이면서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sup>149)</sup>

(나) 사태 전만 해도, 뱀은 업신, 혹은 칠성신이라고 해서, 헤쳐서는 안될 영물로 여겼다. 뱀을 죽이면 해코지당한다고, 심지어 뱀을 손으로 가리키기만 해도 그 손이 썩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뱀의 형상으로 밤하늘에 떠서 북극성 주위를 구불구불 기어다니는 북두칠성, 그래서 뱀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칠성신이었고, 곳간의 양식을 관장한다고 해서 업신이였다.<sup>150)</sup>

(가)와 (나)를 보면,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들에게 뱀은 영물로서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고 곳간의 양식을 관장하는 칠성신, 업신으로 崇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자 蛇神에 대한 인식도 변하게 되는데, 다음 인용문에서 그러한 면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그 믿음도 이제는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다. 사태의 그 무서운 재앙불에 술한 사람 목숨과 업신들이 죽었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는가. 이제 뱀은 인간을 보호하는 영물이 아니라, 징그러운 흉물일 뿐이었다. …… 손에 잡힌 뱀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웬깅이는 그 뱀을 가죽체쩍 휘두르듯이 확확 휘둘러, 머리 부분을 바윗돌에다 몇 번 세차게 내리쳤다.<sup>151)</sup>

‘웬깅이’는 평소 뱀을 잘 잡았지만 모두 놓아 주었다. 그러나, 윗동네 아이가 뱀에 물려 죽었고, 어느 날 형의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뱀을 잡아 잔인하게 죽이고 있다. 형과 친구에 대한 처절한 복수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뱀이 靈物이 아니라, 凶物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 해를 가한 뱀이 소년에게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고 微賤한 구렁이가 된다는 이야기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인간의 인식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인간이 蛇神보다 優位에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신성한 대상으로 崇拜를 받던 뱀은 기피의 대상으로서 인간에게 미천한 존재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까운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 대상에 대한 징벌로서 勸善懲惡이라는 인간 사회의 윤리의

149) 현기영, 『지상에 숭가락 하나』, 실천문화사, 1999, 188쪽.

150) 현기영, 위의 책, 188쪽.

151) 현기영, 위의 책, 188~189쪽.

식을 담고 있다. 신성한 존재로 崇拜를 받던 대상이 이런 변모를 보이는 것은 神格이 지녔던 神聖性的의 衰退이다.

## 2. 文學的 受容의 意味

이재홍의 <여드렛당의 숙명>는 고전적 소재가 완전히 현대적으로 용화되어 버리게 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설화가 소설의 삽화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토산 여드렛당> 설화를 바탕으로 여드렛당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을 다루고 있다. 주인공 정어진의 고향인 제주의 토속, 뱀의 전설에 얽혀진 뱀의 저주의 숙명에서 빠져나오려는 고통 끝에 다시 그 토속의 세계로 회귀해 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玄吉彦의 <金寧蛇窟 본풀이>와 <廣靜堂記>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제주 민중의 저항을 통해 주변성의 의미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金寧蛇窟 본풀이>와 <廣靜堂記>는 김녕뱀굴과 廣靜堂과 관련된 전설의 의미를 충실히 수용하였다. 옛날 설화의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대와 무대를 옛날 그대로 두고 再構하는 방법으로, 설화가 소설전체의 구조로서 참여하는 ‘구조로서의 설화’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玄吉彦의 작품들은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변용하고 재창조함으로써 제주설화의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玄基榮의 <지상에 손가락 하나>를 통해 신성한 대상으로 崇拜를 받던 뱀은 기괴의 대상으로서 인간에게 미친한 존재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사신을 대하는 인간의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더불어, 가까운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 대상에 대한 징벌로서 勸善懲惡이라는 윤리의식을 담고 있다.

이상의 논의처럼 제주도 蛇神說話는 口碑傳承의 과정을 통해 현대 소설문학에서 재구성되어 受容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소설에서의 설화 수용은 자칫하면 단순한 소재주의로 전락해버릴 우려가 없지 않으나, 논의한 작품들은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변용하고 재창조함으로써, 제주설화의 의미를 잘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口碑傳承과 현대문학은 서로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이야기의 話素들이 끊임없이 수용되고 새롭게 창조되면서 문학의 큰 흐름 속에 잘 용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IV. 結 論

본고는 제주도 蛇神說話의 樣相과 그 意味를 검토해 보고, 이를 本土와 비교하여 특성을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의 蛇神說話의 樣相과 意味를 ‘蛇神이 人間보다 優位에 있는 이야기’, ‘蛇神과 人間이 對決하는 이야기’, ‘人間이 蛇神보다 優位에 있는 이야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런 분류를 통하여 제주의 蛇神說話의 면모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었다. 아울러 現代 小說文學에서의 受容 樣相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의 <칠성본풀이>형의 ‘蛇神이 人間보다 優位에 있는 이야기’ 설화에서는 蛇神이 재화, 부귀와 직접 관련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뱀은 조상 신이고, 豊饒의 신앙적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본토의 경우에도 뱀은 人間에게 복을 주는 존재임을 알 수 있지만, 본토에는 유사한 설화가 거의 전하고 있지 않다. 濟州島의 蛇神說話만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본토의 경우 논농사 지역으로 물을 가져다주는 龍이 뱀을 代置하여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주는 논농사를 짓지 않고 海洋 작업을 위주로 하는 곳이므로 뱀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蛇神과 人間이 對決하는 이야기’에서는 蛇神에의 忌避와 崇拜의 兩面을 동시에 나타내면서, ‘蛇神이 人間보다 優位에 있는 이야기’에서 보이는 蛇神에 대한 절대적 崇拜에서 對決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또한 중앙에서 내려온 관원들은 표면상으로는 중앙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이런 설화들이 중앙의 지방에 대한 완전한 지배라는 儒學的 이데올로기에 대립되는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의 전통 사회가 중앙과는 다른 나름대로의 체계로 움직이고 있어서 儒教的 질서로 편입할 수 없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신당 철폐는 제주의 전통적인 祭祀인 漢拏山祭의 儒教式으로의 변질과 風雲雷雨祭의 혁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당을 비롯한 제주 전통 제의의 혁파는 중앙 지배 질서의 강화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설화에 등장하는 허좌수와 영천 이목사로 대표되는 지배 집단은 堂信仰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의 질서 체계를 중앙 집권의 장애 요인으로 보고 이를 파괴하려는 중앙 지배 권력으로 파악



된다. 이런 모습은 본토의 蛇神說話에서도 비슷한 양상과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제주의 蛇神說話에는 본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人間의 도움으로 蛇神이 승천하는 變身譚이 드러나고 있지 않으며, 본토에서 보이는 이시미, 용 등과 같이 蛇神의 다양한 형태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제주에는 남아 있는 蛇神說話의 흔적이 본토에는 희미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제주의 蛇神說話에는 많이 남아 있는 ‘광정당과 이형상 목사’와 같은 설화가 본토에는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이 유형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民譚化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蛇神說話의 소재가 현대문학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재홍의 <여드렛당의 숙명>, 玄吉彦의 <金寧蛇窟 본풀이>, <廣靜堂記>, 玄基榮의 <지상에 손가락 하나>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재홍의 <여드렛당의 숙명>는 고전적 소재가 완전히 현대적으로 융화되어 버리게 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설화가 소설의 挿話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토산 여드렛당> 설화를 바탕으로 여드렛당을 모시지 않으면 안되는 숙명을 다루고 있다. 고향과 토속, 뱀의 전설에 얽혀진 뱀의 저주의 숙명에서 빠져나오려는 고통 끝에 다시 그 세계로 회귀해 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金寧蛇窟 본풀이>와 <廣靜堂記>는 김녕뱀굴과 廣靜堂과 관련된 전설의 의미를 충실히 수용하였다. 옛날 설화의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대와 무대를 옛날 그대로 두고 再構하는 방법으로, 설화가 소설전체의 구조로서 참여하는 ‘구조로서의 설화’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玄吉彦의 작품들은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변용하고 재창조함으로써 제주설화의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玄基榮의 <지상에 손가락 하나>를 통해서도 업신으로 崇拜의 대상이었던 蛇神에 대한 인간 인식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蛇神說話의 연구는 지렁이, 지네, 거북 등을 포괄할 수 있는 龍蛇說話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 의미가 견고해질 것이며, 인류학·비교문학 등 다양한 인접학문의 도움으로 연구의 영역을 확대·심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의 海南島, 일본의 오키나와를 비롯한 여러 지역,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 등과의 비교를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자료 수집 및 보완이 계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 參 考 文 獻

### 1. 資 料

- 고창석 외 역.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 金榮敦·玄容駿·玄吉彦. 『濟州說話集成(1)』.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
- 손진태. 김헌선 외 역. 『한국 민화에 대하여』. 역락출판사, 2000.
- 譯註增補耽羅誌 編纂委員會 譯. 『譯註 增補耽羅誌』. 濟州文化院, 2005.
- 呂榮澤 編. 『울릉도의 傳說·民謠』. 正音社, 1978.
- 이재홍. 『팔녀각』.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 2005.
- 李衡祥. 『耽羅巡歷圖』. 제주시, 2002(제4판).
- \_\_\_\_\_. 金奉玉 역. 「南宦博物(II)」. 『제주도』 통권 제93호. 濟州道, 1993. 1.
- \_\_\_\_\_. 『國譯 瓶窩集(III)』.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0.
- 임동권. 『한국의 민담』. 서문당, 1996(개정판).
- 任哲宰. 『韓國口傳說話(全羅南道·濟州道 篇)』. 평민사, 1992.
- 제주도 교육위원회. 『耽羅文獻集』.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6.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건』. 민속원, 1991.
- \_\_\_\_\_. 『남국의 민담』. 형설출판사, 1976.
- 최삼룡 외 역주, 『유충렬전·최고운전』,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6.
- 최운식. 『한국의 민담』 1, 2. 시인사, 1999(제2판).
- 『韓國口碑文學大系』 전 83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1989.
- 현기영. 『지상에 순가락 하나』. 실천문학사, 1999.
- 玄吉彦. 『龍馬의 꿈』. 문학과지성사, 1984.
- \_\_\_\_\_. 『우리들의 스승님』. 문학과지성사, 1985.
-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 \_\_\_\_\_. 『濟州島神話』. 瑞文堂, 1976.
- \_\_\_\_\_. 『濟州島傳說』. 瑞文堂, 1976.
- \_\_\_\_\_. 『濟州島 民譚』.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6.
- \_\_\_\_\_.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 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편. 『韓國文化상징사건 1』. 동아출판사, 1992.
- 三國遺事  
三國史記  
三國史節要  
新增東國輿地勝覽
-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全羅北道篇)』,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1.
- 『全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
- 赤松智城·秋葉 隆, 『朝鮮巫俗の研究(上)』, 大阪屋號書店, 1937.

## 2. 論著

- 姜信姬. 「龍文樣 研究 : 龍神信仰을 中心으로」. 弘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4.
- 강 철, 「蛇神說話와 그 小說的 變異」. 영주어문학회 학술심포지엄 발표문, 2002.11.27
- \_\_\_\_\_. 「蛇神說話와 그 小說的 變異」. 『영주어문』 제5집, 영주어문학회, 2003.
- \_\_\_\_\_. 「제주도 사신설화의 특성」. 『영주어문』 제6집, 영주어문학회, 2003.
- 고대경. 『神들의 고향』. 도서출판 증명, 1997.
- 高昌錫 외.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일지사, 1997.
- 具美來, 『한국인의 상징세계』. 敎保文庫, 1992.
- 김광언. 『한국의 집지킴이』. 다락방, 2000.
- 金東燮. 「兎山堂 본풀이 研究」. 濟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9.
- 김동윤,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2000.
- 金烈圭.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一潮閣, 1971.
- 金永德. 「濟州道 蛇神信仰에 關한 研究」. 延世大學敎 碩士學位論文, 1982.
-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개정·증보판)』.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 김오순. 『담라순력도 산책』. 제주문화, 2001.
- 김유정. 「제주의 무신(巫神圖) : 현존하는 내왓당 무신도 10신위 연구」. 『耽羅文化』 18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7,
- 김종대. 『33가지 동물로 본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다른세상, 2001.
- 김현선. 「서사무가와 고소설의 관련양상 재론」. 『古小說史의 諸問題』, 성오 소재영 교수 환력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93.
- 김형주. 『민초들의 지킴이 신앙』. 민속원, 2002.
- 金和經. 『韓國說話의 研究』, 嶺南大學校出版部, 1987.
- 羅貞姬. 「濟州島 民間信仰 調查(1) : 濟州島의 蛇信仰과 蛇에의 感染現象에 對하여」. 『濟大社會科敎育』 第3輯.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1986.
- 문무병. 「濟州島 蛇神信仰 研究 : 蛇神儀禮를 중심으로」. 『濟州島言語民俗論叢』. 玄容駿博士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92.
- \_\_\_\_\_. 「濟州島 堂信仰 研究」.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박민호. 「龍蛇神 說話 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朴湧植, 『韓國說話의 原始宗教思想研究』. 一志社, 1984.
- 박종성. 「蛇神說話의 形成과 變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_\_\_\_\_. 『구비문학, 분석과 해석의 실제』. 도서출판 월인, 2002.
- 백남극·심제한. 『뱀』. 지성사, 1999.
- 徐大錫. 「敍事巫歌研究 : 說話·小說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國文學研究』 第8輯. 서울대 國文學研究會, 1968,
- \_\_\_\_\_.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 成耆說. 『韓國口碑傳承의 研究』. 一潮閣, 1976.
- 소재영. 「제주지역 설화의 문학적 성격」. 『조선조 문학의 탐구』(승실어문총서 3). 아세아 문화사, 1997.
- 송화섭. 「용신앙과 농경의례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서영대·송화섭 편. 『용, 그 신화와 문화(한국편)』, 민속苑, 2002.
- 심재한. 『꿈꾸는 푸른 생명 거북과 뱀』. 다른세상, 2001.
- 俞達善. 「韓國蛇神退治說話研究 : 蛇神退治傳說的 形成과 民譚化에 대한 考察」.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幽泉 金源澤 教授 停年退任 記念集 『제주의 야생동물 이야기』. 幽泉 金源澤 教授 停年退任 記念集 發刊委員會. 아트 21, 2009.
- 윤열수. 『龍, 불멸의 신화』. 대원사, 1999.
- \_\_\_\_\_. 「우리 문화 속에 나타난 용신앙」. 서영대·송화섭 편. 『용, 그 신화와 문화(한국편)』, 민속苑, 2002.
- 元裕漢. 「이형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李瑄淑. 「濟州島 民間信仰 調査(2) : 濟州島의 蛇信仰에 대한 民譚事例」. 『濟大社會科教育』 第4輯.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1987.
- 李起旭. 「濟州島 蛇神崇拜의 生態學」. 『濟州島研究』 제6집. 濟州島研究會, 1989.
- 李杜鉉 외. 『韓國民俗學概說(改訂版)』. 學研社, 1983.
- 李恩奉. 「韓國 古代宗教思想의 構造的 探求 : 神觀念을 中心으로」.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4.
- 李志映. 『韓國 敍事文學의 研究』. 국학자료원, 1997.
- 林甲娘. 「뱀說話 研究」.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역락, 2001.
- 張德順. 『韓國說話文學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8.
- 정진희. 「제주도 당분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제주도. 『濟州의 民俗 V : 民間信仰·社會構造』. 濟州道, 1998.
- 趙東一. 「人物傳說의 意味와 機能」.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9.
- \_\_\_\_\_.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0.
- 조성윤 외 2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 曹喜雄. 『說話學綱要』. 새문사, 1989.
- 秦聖麒. 「濟州道의 뱀信仰」. 『韓國文化人類學』 第10輯. 韓國文化人類學會, 1978.
- \_\_\_\_\_. 『南國의 巫俗』. 螢雪出版社, 1987.
- \_\_\_\_\_. 『제주무속학사전』. 제주민속연구소, 2004.
- 최종성. 「용과 기우제[祈雨祭龍] : 潛龍祈雨를 중심으로」. 서영대·송화섭 편. 『용, 그 신화와 문화(한국편)』, 민속苑, 2002.
- 천진기. 『한국동물민속론』. 민속원, 2003.
- 崔常壽. 「뱀에 얽힌 民俗과 傳說」. 『濟州商工』 52號. 濟州商工會議所, 1977.1.

- 최종성. 『조선조 무속 國行儀禮 연구』. 일지사, 2002.
- 卓明煥. 「濟州 蛇神信仰에 對한 小考 : 兎山堂 蠅信仰을 中心으로」. 『韓國文化人類學』, 第10輯. 韓國文化人類學會, 1978.
- 표인주.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전통문화예술』. 민속원, 2004.
- 하순애. 『제주도 신당(神堂) 이야기』.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 하정룡. 「신라시대 용신앙의 성격과 신궁」. 서영대·송화섭 편. 『용, 그 신화와 문화(한국편)』, 민속원, 2002.
- 정승모. 「군현제의와 국가정책」.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반 편.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2000.
- 許 椿. 「濟州 說話 研究의 몇 問題」. 『湧上古典研究』 제11집. 열상고전연구회, 1998.
- \_\_\_\_\_. 「濟州 說話의 特性 研究」. 『濟州島 研究』 제16집. 濟州學會, 1999.
- 玄吉彦.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성사, 1981.
- \_\_\_\_\_. 「蛇神傳說의 考察 : 金寧蛇窟전설을 중심으로」. 『蘭斯 石宙善博士古稀紀念 民俗學論叢Ⅱ』. 蘭斯 石宙善博士 古稀紀念論叢 刊行委員會, 1982.
- \_\_\_\_\_. 「說話와 濟州文學」. 『耽羅文化』 第15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
- \_\_\_\_\_. 「제주설화와 그 주변성」.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2001.
- 玄丞桓. 『崔孤雲傳의 樣相과 小說化 過程』.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玄容駿.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集文堂, 1992.
- \_\_\_\_\_.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_\_\_\_\_. 「김녕사굴」. 『월간 관광제주』 13호. 월간 관광제주사, 1985.10.
- \_\_\_\_\_. 玄丞桓. 「濟州島 蠅神話와 信仰 研究」. 『耽羅文化』 第15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
- 홍태한. 「한국 민속과 용」. 서영대·송화섭 편. 『용, 그 신화와 문화(한국편)』. 민속원, 2002.

### 3. 國外 論著

- 제레미 나비. 김지현 역. 『우주뱀=DNA : 샴머니즘과 분자생물학의 만남』. 들녘, 2002.
- 小島瓔禮 編. 『蛇の宇宙誌』. 東京美術, 1991.
- 那谷敏郎. 『龍と蛇<ナ-ガ> : 權威の象徴と豊かな水の神』. 集英社, 2000.
- 鳥越憲三郎. 「蛇神と兎山里の事件」. 『耽羅』 第1號. 大阪 : 日本耽羅學會, 1988.
- 篠田知和基. 『龍蛇神と機織姫 : 文明を織りなす昔話の女たち』. 人文書院, 1997.
- 秋葉 隆. 심우성 譯. 『朝鮮民俗誌』. 동문선, 1993.
- \_\_\_\_\_. 심우성·박해순 역. 『춤추는 무당과 춤추지 않는 무당』. 한울, 2000.
- 吉野裕子. 『蛇 : 日本の蛇信仰』. 講談社, 1999.

## Abstract

# A Study on the Traits of Snake Tales in Jeju-do

-Comparison with Snake Tales in Mainland-

Kang Cheol

(Supervised by professor Heo Chun)

I will check the aspects of snaketales in Jeju-do and extract the features of them, compared with those of mainland. For this, I am considering the aspects and meanings of snake tales in Jeju-do as follows: “the story that snake is superior to human beings”, “the story that snake and human beings are fighting each other”, “the story that human beings are superior to snake”. I treated the various aspects of snake tales in Jeju-do through this classification. Also, I looked this story as the possibility among current novel. The main contexts that is being discussed are as follows.

At first, snake is the object of religion that is directly related with the wealth and honor in the tales of “the story that snake is superior to human beings” as <Chil-seong bonpoori> in Jeju-do. The snake is an ancestral god, and the religious object of richness. The snake in mainland is the fortunate being for human brings, but there is no any tale similar to tales in Jeju-do. So this is the unique feature of tales in Jeju-do. In mainland, the dragon bringing water into paddy fields area replaced the snake. On the contrary, in Jeju-do, people didn't do rice-farming but work at the sea.

Secondly, in “the story that snake and human beings are fighting each other”, the hatred and worship toward the snake coexist. And this leads to from the absolute worship to the confrontation against snake in “the story that snake is superior to human beings”. Also, in this story, government officials are seemingly trying to reinforce the ruling ideology of the government. But, on the other hand, these tales show the adversarial nature against the confucian ideology that expresses the government's complete dominance over the district. We know that the traditional society of Jeju-do couldn't be assigned to the confucian system because Jeju-do had an independent system different from the government. In this context, abolishing traditional and religious temples degenerate the traditional Mt. Hala ritual of Jeju-do into the confucian ritual, and innovate “Windy rain and thunderstorm ritual”. The innovation of traditional rituals in Jeju-do, including the innovation of religious temples, was made for the reinforcement of government. So, the dominant group

represented by Huh Jwasoo, Yeongcheon Lee moksa in these tales considered the temples in Jeju-do as the obstacles for the government and was trying to destroy them. This is similar to the snake tales in mainland.

Third, there is no transformation-story that snake ascends to heaven with the help of human beings, which is common in mainland, including the story of dragon as the various kinds of aspects for snake, in these tales. This prove that the trace of snake tales remaining in Jeju-do can't be found in the mainland. Also, the tales such as "Khwangjeongdang and Lee Hyung-sang moksa" that can be easily found in the tales in Jeju-do can't be found in the mainland, which is the evidence that this story was turned into the tales in later generations.

Fourthly, I studied how the materials of snake tales can appear in modern literature in <Yeodretdang's fate> by Lee Jae-hong, <Kimnyoung snake cave bonpoori> by, Hyun Gil-un, <The story of Khwangjeongdang>, <A spoon on the ground> by Hyun Ki-young. In <Yeodretdang's fate> by Lee Jae-hong, tales served as the illustration in novels, and traditional materials were completely fused. Through <Tosan Yeodretdang> tale, the fate that had to take Yeodretdang appears. In this tale, the fate entangled with the hometown, the folk, and the legend of snake shows the pattern of repetition and going back. <Kimnyoung snake cave bonpoori> and <The story of Khwangjeongdang> accept truly the meaning of the legend related with Kimnyoung snake cave and Khwangjeongdang. And this serves as 'tale as a structure' that tale is involved in the whole novel as a structure, in a way that age and stage are restructured tracing back to the world of tale. Especially, Hyun Gil-un's works serve as the modern narrator for the tales in Jeju-do recreating and changing them related with the social situations at the time. Through <A spoon on the ground> by Hyun Ki-young awareness of the snake that was considered as a guardian for worship is changed.

The research of snake tale can be meaningfully fortified in a relationship with dragon-snake tales including earth worms, centipedes, turtles, and intensifies the realm of research with the help of various neighboring literatures like anthropology, comparative literature. Also, the comparison with the literature of Hainan island in China, Okinawa in Japan, South Asia, and Northern Asia will be necessarily needed. And additional data-gathering and data-supplement have to go together with this work. I am going to hand additional discussion about this down the later stage.

<附錄> 全國의 蛇神說話 資料 概要

제 목	출 전	내 용 요 약
김녕 케내깃당	『大系』 9-1, 146~152	소로소천국이 무릎실락에 띄워져 구좌면(舊左面) 세화리(細化里)로 오게 되었고, 돼지를 잡아서 당신에게 지내는 제인 '돛제(豚祭)'를 지내게 된 유래가 되었다. 케내깃당은 주변에 널리 알려진 김녕의 당으로 돼지를 한 마리 잡아 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아 올려 굿을 해야 한다는 당이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당의 유래담, 곧 본풀이인 것이다. 이 본풀이는 이 당에서 굿을 할 때에 심방(무당)이 노래하는 무가인데, 이것이 일반인에 의해 전설로 이야기된 것이다.
사신(蛇神) (1)	『大系』 9-3, 1115	표선면 토산리 여드랫당 당신을 위하여 안덕면 창천리 강씨덕에서 굿을 했다.
사신(蛇神) (2)	『大系』 9-3, 1118	사신을 위해 표선면 가시리 강씨덕에서 굿을 했다.
안할망과 광주할망	『大系』 9-3, 487	안할망은 동헌 안에 모시는 당신이고 광주 할망은 영험이 있는 당신이다.
부자집 업 돌려주기	『한국의 민담』 (1), 611~613	옛날 어느 대감집 옆에 그 집 하녀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대감집에는 뱀이 한 마리 살고 있는데, 그 집에는 그것을 업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것을 알고 있는 하녀의 아들은 눈 오는 날 동아줄 자국을 내서 대감집 업이 자기 집으로 온 것처럼 꾸몄다. 그러자 업을 돌려달라고 해서, 다시 동아줄 자국을 내서 뱀이 다시 그 집으로 간 것처럼 해두고, 눈 60마지기과 돈 600냥을 받아서 잘 살았다.
뱀 이야기	『集成』 (1), 423~424	육지에서 곡식을 싣고 제주로 오던 배가 관탈섬 근처에서 풍랑으로 침몰 위기에 놓였으나 그 위기를 넘기고 제주에 도착해 보니 뱀이 떼지어 물이 배에 스며드는 구멍을 막고 있었다
양돈어네 조상	『大系』 9-2, 240~246	조상의 제사를 정성껏 지내니 그 영혼이 뱀을 갖다 주고 그 뱀을 모셔 부자가 되었다.
통영부자와 업	『大系』 8-2, 145~146	김성부가 통영에서는 제일 부자인데, 젊었을 때는 농토도 없고 일가도 없고, 가문도 없어서 종이 장사를 했다. 한번은 그 종이를 짚어지고 오다가 고단해서 쉬고 있는데, 뱀이 종이 틈에 포개 들어 갔다. 이 후로 다른 사람들은 적자를 내는데도, 김성부는 종이 장사를 해서 벼락부자가 되었다.
귀돈은 배염	『南國의 民譚』, 23~25	옛날 수산에 새 부자집이 있었는데, 이 새 부자집은 처음엔 가난하게 살았다. 하루는 이 집 할머니가 부주사집에 가서 덜 마른 조 서 말을 빌려 와서 그것을 말리고 있으니 작은 뱀이 나타났다. 할머니는 그 뱀을 富君이라면서 치마에 받아 고향으로 좌정하도록 했고, 이후에 큰 부자가 되었고, 부주사집은 망하였다.
귀친돌 구렁이	『大系』 4-1, 336~338	위와 비슷한 이야기
이시미와 최관관	『大系』 4-2, 552~554	옛날 제주도 한라산 밑 큰 굴에 뱀(이시미)이 살았다. 해마다 사람을 한 사람씩 잡아 먹었는데 못잡아 먹으면 흉년이 들게 한다. 제비뽑기를 해서 어떤 처녀가 제물이 되게 되었다. 충주에 사는 최관관이 제주 관관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고 나졸들을 시켜 옥노를 놓아 잡아서, 칼과 활로 뱀을 죽였다. 최관관의 꿈에 하얀 노인이 나타나서 내일이면 죽을테니 빨리 돌아가라고 했다. 돌아가되 누가 뒤에서 불러도 돌아보지 말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 오는데 천둥과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누가 뒤에서 불렀다. 돌아보지 않고 집에 돌아와 문을 열면서 돌아보다 죽게 되었다.
김녕 사굴	『大系』 9-1, 39~41	서관관이 뱀을 죽이나 하인이 말을 걸지 말라는 금기를 어겨 죽게 되었다.
김녕 뱀굴	『大系』 9-1, 191~193	김녕뱀굴의 뱀을 죽인 영천 목사가 고향으로 가려고 하자 대풍이 불어 못가는데, 골충귀신들의 도움으로 가게 되었다.
김녕 뱀굴	『大系』 9-2, 637~638	사람이 죽으면 뱀굴에 갖다 놓으면 뱀이 먹었는데 목사가 뱀을 폭파시켜 죽였다.
金寧 뱀굴	『大系』 9-2, 719~721	서련관관이 뱀을 죽이고 그 보복으로 죽었다.
뱀굴(金寧蛇窟)	『南國의 傳說』, 154~155	구좌면 김녕리에는 '뱀굴'이라는 커다란 굴이 있는데, 이 굴에는 큰 뱀이 살고 있었다. 이 뱀은 요망스러운 것으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므로, 사람들은 해마다 술과 떡뿐만 아니라, 15세 되는 어린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했다. 중종 11년 담력이 있는 서련이 관관으로 부임하여 어느 때처럼 제사를 지내다가 구렁이가 나오자 찢려 죽었다. 관아로 돌아오다가 부르는 소리가 있어 돌아오다 뒤를 돌아본 후 서련은 신음하다가 죽고 말았다.



제 목	출 전	내 용 요 약
金寧 뱀굴	『濟州島傳説』, 114~116	구좌면 김녕리 마을의 큰 굴에 큰 뱀이 살았다. 굶을 하지 않으면 뱀이 횡포를 부려서 매년 처녀를 제물로 큰굿을 했다. 서연(徐隣) 판관이 부임하여 이 뱀을 창검으로 찢러 죽였다. 이를 본 무당이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일러 준다. 서판관은 군졸의 소리에 무심코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 순간 죽었다.
	『濟州島傳説』, 116	서판관은 굶을 하여 뱀을 죽여 악습을 없앤 후, 배를 타고 제주를 떠났다. 그러나 蛇神의 복수로 제주와 추자도 사이의 무인도까지 가서 판선당하고 죽었다.
	『濟州島傳説』, 116~118	김녕리 뱀굴에 큰 뱀이 살고 있었다. 이 뱀이 횡포를 부려자, 지나가던 중이 처녀를 제물로 제를 지내면 무사할 거라 하여 제를 지내니 무사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이삼만이 처녀 대신 자신이 제물로 제를 지내다 뱀이 나오니, 퇴치하였다. 그러나 절쟁이의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 죽어 버렸다. 이후에 뱀굴은 구경거리가 되고, 김녕과 월정 사람들이 소유권 다툼을 하게 되고, 결국 경주에서 이긴 김녕리 소유가 되었다.
	『濟州島傳説』, 118~119	김녕리 뱀굴에 大蟒이 살고 있었다. 이 이무기에게 제를 올린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가 이를 죽였다. 목사는 뱀을 항아리에 담아 서울의 정승에게 반드시 간히 쓰일 때가 있을 거라며 올린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만반진수를 올려도 음식을 듣지 않는 명나라 장수에게 김녕 뱀굴의 뱀젓을 올렸고, 임진왜란을 평정해 주었다.
金寧窟의 구렁이	『韓國民間傳説集』, 175~176	제주도 김녕 해안에 큰 굴에 커다란 구렁이가 살고 있어, 사람들은 해마다 어린 처녀를 제물로 바쳤다. 제주 목사들도 구렁이의 횡포를 두려워 하여 극진히 제사를 지냈다. 서린 판관이 부임하여 제를 지내다가 구렁이가 나오자 불에 태워 버렸다. 일을 마치고 성 안으로 돌아오다 뒤를 돌아보자 붉은 빛이 보이더니 서린은 죽어 버렸다.
병와(瓶窩)선생 괴물 퇴치	『大系』 7-1, 40~42	옛날에 제주의 일이다. 배와(瓶窩, 이형상(李衡祥)가 50세 때 제주목사로 부임해 보니, 동짓날 저녁에 늘 팻국을 써서 당집에 갖다 놓고, 처녀를 하나씩 바쳤다. 병와가 이걸 없애려고 처녀 대신 들어가 큰 이시미가 나타나자 태워버렸다. 그 뒤로 고을이 편하게 되었다.
병와선생 무당 퇴치	『大系』 7-1, 42~43	위와 이어지는 이야기로, (이형상 목사가) 어디 내려오니, 마상(馬上)에서 내려오라고 했는데, 내리지 않고 마상에서 당집을 불태우라고 했다. 그래서 무당들이 굶을 하다가 이형상 목사를 망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金寧蛇窟	『韓國口傳話全羅南道·濟州道篇』, 206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렁이(또는 지네) 퇴치 설화	『한국 민화에 대하여』 43~45	옛날 가난한 집에 한 처녀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부업으로 들어온 두꺼비를 불쌍히 여겨 밥을 주면서 길렀다.
大蛇退治說話	『韓國民族說話의 研究』, 188	옛날 어떤 구차한 집에 무남독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두꺼비 한 마리가 부업에 들어와서 처녀가 밥을 주어 키웠더니 몰라보게 자라 큰 개만하게 되었다. 마을에 뱀이 있어 매년 촌민 한 사람을 대사에게 희생하지 않으면 동네에 재난이 생기고 사람과 가축이 상하였다. 그 때 희생자로 뽑힌 이가 두꺼비에게 밥을 준 처녀였다. 이런 이야기를 두꺼비에게 하고 대사의 밥이 되기 위해 굴 앞에 놓이게 되었다. 대사가 처녀를 먹기 위해 나와보니 큰 두꺼비가 있었다. 두꺼비와 대사가 싸워 모두 죽었다. 처녀가 두꺼비를 잘 물어 주고 대사는 불태웠다. 그런 후로 처녀가 희생되는 악습이 없어졌다고 한다.
地下大蛇退治	『韓國口碑傳承의 研究』, 246	어느 대가집에 담을 넘어 처녀 방에 드나드는 남자가 있어 뒤를 따랐더니 커다란 지렁이가 있어 죽어 버린다. 얼마 후 처녀는 아들을 낳았으나, 성을 붙이지 못하였다.
광정당과 이목사	『大系』 9-3, 734	이목사가 순력을 하다 광정당에 이르러 下馬하지 않아 말의 다리가 부러졌다. 굶을 하는데서 뱀이 나오자 죽어 태우자 장평이 되었다. 어느날 이목사의 꿈에 골충귀신이 나타나 담이나 쌓아 달라고 하자, 그렇게 해주었다. 그리고 골충귀신의 하라는대로 해서 무사히 육지로 갔는데 아들 형제가 죽어 있었다. 그래서 당오백 절오백을 없애 버렸다. 자식 생각을 하다가 닭깃으로 목을 찢러 “너들이 암만 물어봐도 나만큼 속이 아프진 않다”고 하였다.

제 목	출 전	내 용 요 약
廣靜堂의 大蟒	『韓國民間傳説集』, 178~179	광정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했고, 말을 타고 가던 사람도 말에서 내려 예배하고 지나갔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말이 다리를 절어서 더 나아갈 수 없다고 한다. 숙종 대왕 때 이형상 목사가 그 말을 지나는데 말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 했으나 말이 더 나아가지 않았다. 목사는 말의 목을 잘라서 그 사당에 제물로 바치고 무당을 불러 제사를 드리게 했다. 제물을 흠양하기 위해 신주인 큰 뱀이 나타났다. 목사는 큰 칼을 빼어서 뱀을 쳐죽이고 사당을 불살라 버렸다. 신당 5백을 모조리 불태워서 미신 타파에 온힘을 기울였다.
광정당과 이형상 목사	『大系』 9-3, 703	광정당에서 굿을 하는데 이형상 목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말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지 않아 그 말이 죽었고 굿을 하는데 뱀이 나오면 태워버리려는데 그 영혼이 뿔이 되어 날아든다고 해서 ‘새당’이라고 하였다.
영찰목사(榮察牧使)	『大系』 9-3, 100.	영찰목사가 순력을 하다 광정당의 근처에 이르러 부하들이 하마하라는 말을 했는데 어기고 가다 말이 밭이 저러 견지를 못하였다. 영찰목사는 뱀을 죽였고, 골충들을 잘 수리해 주고 그 골충귀신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영천 이목사 (永川 李牧使) (I)	『集成』 (1), 190~199	영천 이목사는 강쾌였다. 신하들이 그를 제주목사로 보냈다. 제주 목사는 도입하기만 하면 다음날 죽는 일이 있었다. 도입 첫날밤 혼자 방에 누워 있으니, 우레 소리를 내면서 귀신이 나타났다. 귀신은 자기가 복벌을 지휘했던 장군이나 잘못이 있어 제주로 유배왔고, 유배지에서 죽은 뒤 奉祭를 받다가 요즘 봉제를 하지 않으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했다. 이전 도입자들은 무서워서 죽었던 것이다. 어느날 아전들을 소집하니 이방이 빠졌다. 이방의 딸을 용수에 있는 당에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었다. 희생은 뱀이 잡아먹는 것이라고 했다. 영천 이목사는 뱀이 나오자 칼로 쳐서 시체를 불살라 버렸다. 또 백성을 험잡하는 당과 절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오 백이나 되는 당과 절이 불타 없어지자, 거기서 얻어먹던 귀신들이 옥황상제에게 하소연했다. 이목사를 죽이기로 결정되자, 전날 도움을 받은 장군 귀신이 곧 이 사실을 알려 주었다. 바다에서 빠져나갈 때 혹 뒤를 돌아다보면 죽을 것이므로 병풍으로 뒤를 가리고 떠나도록 했다. 이목사가 빠져나가는 것을 알아차린 귀신들이 뒤쫓아가며 배를 뒤집으려고 큰 파도를 일으켰다. 제주 바다의 수평선을 넘어가니, 귀신들은 힘이 부쳤던지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다.
영천 이목사 (II)	『集成』 (1), 416~422	영천(永川) 이목사가 제주도에 도입하고 보니 당(堂)이 오백, 절이 오백이나 되며, 뱀을 귀신으로 모시고 있었다. 도입하여 전도를 순력(巡歷)하는데 토산(土山)에 이르러 뱀을 장검으로 쳐죽이는데 하면 당 오백, 절 오백을 전부 소화(燒火) 시키고, 김녕사굴의 뱀까지 죽인다. 그러자 하면, 후손 없는 묘, 별초·제사를 하지 않는 묘를 잘 보살피도록 선정(善政)을 베푼다. 임기를 마치고 떠나려 할 때 꿈 속에 고종(古塚) 귀신이 현몽(現夢)하여 당 귀신과 절 귀신의 음모를 일깨워 주며 일찍 떠날 것을 알려 준다. 그러나 교향에 이르고 보니 아들 형제가 죽었고, 부인은 몹시 비탄에 빠져 남편 이목사를 책망한다. 그러나 이목사는 물을 물었다 뿔으면서 피를 함께 토해 그가 얼마나 아들들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
당신(堂神)과 허좌수(許佐首)	『大系』 9-3, 1120	본향당의 당신(大蛇)이 허좌수에게 죽임을 당하고 복수하였다.
굴치 영감과 토산당 뱀	『濟州島傳説』, 279~282	조천면 조천리에 부자고 학식이 높아 남의 사주를 봐주며 한가히 사는 굴치 영감이 있었다. 사주 좋은 토산 신부를 며느리로 삼으며, 뱀 귀신이 따라 올 것을 알고 신부를 따라 온 머리털 같은 뱀 귀신을 큰 독 속에 넣고 붓하고 땅 속에 묻어 버렸다. 그 후로 신부의 오빠가 병이 났다. 신부의 부친은 조상(귀신)을 사돈이 확대하기 때문에 병이 났다고 생각하여 사돈 집에 왔지만, 얘기를 못하다가 굴치영감이 가련한 마음에 독을 파냈고, 오빠의 병은 거뜬히 나게 된다. 이후로 며느리가 아들은 일찍 죽고 집안은 망한다.
廣靜堂 말무덤	『濟州島傳説』, 270~272	조선조 숙종 때 이형상이 제주 목사로 부임하여 광정당을 지나가게 되었다. 하마하라는 권고를 듣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려 하자, 말이 밭을 절며 쓰러져 버렸다. 광정당의 신령을 보기 위해 말을 잡아 굿을 하니, 큰 뱀이 나왔고, 이형상 목사는 그 뱀을 베어버리고 죽은 말은 그 앞에 묻어 주어서, ‘말무덤’이라 한다.
광정당과 이목사	『學術調查報告書』 제7집, 103~109	위와 비슷한 이야기
광정당 이야기	『學術調查報告書』 제7집, 110~111	위와 비슷한 이야기

제 목	출 전	내 용 요 약
광정당과 뱀	『南國의 傳説』, 153	위와 비슷한 이야기
살모사 폭포전설	『大系』 8-6, 155~158	월성군에 살모사 폭포가 있다. 아주 깊은 곳인데 이곳에 몇백년 묵은 살모사가 살고 있다. 매년 예쁜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농사도 제대로 못 짓게 하고 유행병을 가져와 동네를 못살게 하였다. 마을 촌장의 딸이 제물로 자청하고 나서 활을 메고 소(沼)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 있으니 살모사는 똥똥 떠 올라왔지만 처녀는 올라오지 않았다. 지금은 소도 알아지고 제사도 지내지 않지만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한다.
광정당 말무덤	『集成』 (1), 603~606	덕수리에는 영기가 세기로 널리 알려진 광정당이 있었다. 기운과 눈정기가 센 영천 손목사가 제주원에 부임하여 순력(巡歷)을 돌았다. 당시 제주도는 '당 오백, 절 오백'이라 하여 당과 절의 행세가 심하던 때였다. 영천 손목사가 당을 부수며 덕수리 광정당에 이르렀다. 이때 광정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말에서 내려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다리가 꺾여 죽은 말무덤이 주변에 많았다. 손목사 역시 말을 몰아 그대로 지나가려 하자 말다리가 꺾여지곤 하였다. 드디어 무당을 불러 당귀신을 내보이라고 호령하자 무당은 곧 곳을 치렀고 큰 뱀이 나왔다. 손목사는 차고 있던 큰 칼로 뱀의 목을 쳐 죽이고 불사르자 뱀귀신은 두 마리의 꿩이 되어 사계 큰물당과 덕수리당에 날아가 앉았다. 이렇게 당을 부순 손목사는 흩어져 있는 무덤들의 관리를 잘하게 하자 골충귀신의 도움으로 당귀신, 절귀신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손목사가 제주를 떠나 육지에 닿는 순간 당과 정귀신에 의해 다리 한 쪽이 병신이 되었고, 한양에 올라가니 아들 삼형제가 죽어 있었다.
짐승은 구해주되 사람은 구하지 말라	『大系』 8-3, 352~355	옛날에 한 사람이 홍수가 나서 물 구경을 하는데, 노루와 뱀과 어린아이가 떠내려 왔다. 노루와 뱀과 어린아이를 모두 구해 주고 아이는 수양아들로 키웠다. 하루는 노루가 나타나 돈 있는 곳을 알려 주어서 큰 부자가 되었다. 돈이 탐 난 수양아들이 도둑으로 몰아서 옥에 갇히게 되었다. 감옥 속에 뱀이 나타나 다리를 물어서 상처를 낸 뒤 이상한 잎사귀를 물고 와서 낮게 해 주고 가며 임금의 딸을 물어 놓고 갔다. 그 잎사귀로 임금의 딸을 고쳐 주어 죄를 면하고 출세를 했다.
물에서 살아난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	『大系』 5-1, 494~497	위와 비슷한 이야기
은혜를 배반한 이야기	『大系』 3-2 394~397	두 노인네가 고기를 잡으러 가 보니 장마가 져서 사람 하나와 노루 한 마리가 탄 뗏목이 떠내려 왔다. 아잉노루와 굴렁이와 아이를 구해 주고 아이는 수양 아들로 키웠다. 노루가 따라 오라고 해서 따라 갔더니 산삼을 많이 캐고 눈을 사고 집도 잘 짓게 되었다. 수양 아들이 간다고 하여 나갔는데, 노인을 도둑으로 몰아 노인은 옥에 갇히게 되었다. 굴렁이가 노인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낸 뒤 풀 잎새를 가져다 주어 낮게 해 주고 원님의 딸을 물어 얹게 한다. 노인은 그 풀 잎새로 원님의 딸을 고쳐 주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된다.
동구나무 아들	『韓國民俗綜合報告書 (全羅北道篇)』, 634~635	위와 비슷한 이야기
배신한 인간과 은혜 깊은 짐승	『大系』 8-5, 143~147	한 사람이 여름에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내리니 물구경하러 나갔는데, 사람 하나, 노루 한 마리, 굴렁이 한 마리가 떠내려 왔다. 그 셋을 구해 주고, 사람은 그 집의 머슴이 되었다. 노루도 돈을 갖다 주고, 굴렁이도 돈을 가져 오고 해서 풍족하게 살게 되었다. 그런데 머슴이 주인은 도둑질을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 사람은 잡혀가서 매를 맞게 된다. 뱀이 풀잎사귀를 물고 와서, 낳게 하였다. 한번은 굴렁이가 풀잎을 세 개를 물고 와서, 임금 딸에게 병이 나게 할 것이니 풀잎으로 낳게 하라고 한다. 조금 있으니, 임금 딸이 병이 나고 그 사람은 굴렁이가 가져다 준 풀잎으로 임금의 딸의 병을 낳게 한다.

제 목	출 전	내 용 요 약
구렁이 살리고 부자가 된 학자	『大系』 3-3, 569~586	옛날에 가난한 학자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벼를 팔러 장에 갔다 오는데, 청년들이 큰 구렁이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 벼를 판 돈을 몽땅 주고 구렁이를 사서 놓아주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못 쓰는 佩鐵을 얻어서 풍수를 하러 떠났는데, 어느 부잣집에 머물다가 구산을 부탁 받았다. 어떤 아이가 나타나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하면서, 물이 가득찬 대명지를 알려 주고 물이 귀한 이웃 마을에 물줄기를 찾아주고, 샘을 파게 하여 물을 빼냈다. 대명지를 구해주고 돌아오는데, 아이가 목숨을 구해 준 구렁이라고 하면서 앞일을 예견하여 학자의 눈을 백태처럼 만들어 주었다. 대명지를 구해 준 대가로 큰 부자가 되었다.
대를 이은 보은	『大系』 7-6, 632~641	옛날에 참 한 가난한 선비가 부모 덕으로 글자를 배웠는데, 부모가 돌아가시고는 남의 충을 빌려 짐승을 잡아 연명하였다. 짐승도 못잡고 산을 헤메다가 큰 못쪽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데, 못이 물이 딱 갈라지고, 큰 빨 돌은 용(지킴이)이 혀를 낼름하였다. 용을 괴롭히는 까치와 까마귀에게 충을 쏘았다. 그걸 보고 용이 절을 하고 물 속으로 들어 갔다. 선비는 아들이 7살이 되던 해에 죽게 된다. 동네 사람들의 권유로 혼자 남아 남의 집에 품을 팔며 가난하게 사는 선비의 아내는 아들을 공부시켰다. 아들은 재주가 있어 어렵게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게 되는 문 앞에서 도련님하고 부른 사람과 같이 가게 된다. 가는 길에 어느 오두막집에 들어가게 되고 죽은 여자를 살려 놓았더니, 그 여자는 전날 아버지가 구해줬던 지킴이였고 그 뱀의 도움으로 큰 부자가 되었다.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가고 집을 짓고, 노비권속을 거느리고 잘 살았다.
구렁이의 보은	『大系』 1-3, 460~480	옛날에 어떤 아이가 고개 넘어 서당에 다니는데, 배가 고파 보이는 구렁이가 나타나 길을 막았다. 자기 도시락을 주었더니 밥을 먹고 사라졌는데, 매일 도시락을 갈라 먹었다. 십년 후에 아이가 커서 장가를 가게 되었는데, 뱀이 나타나서 君之今日娶妻時에 不寢衾窓邊하고, 春耕黑茬一升時에 秋收冬藏五十斗라는 글씨를 써 주었다. 첫날밤에 글귀의 첫 귀대로 하여 횡사를 모면했으나 신부가 죽어서 살인죄로 몰렸다. 원님의 딸이 둘째 귀를 풀어서 범인인 간부를 잡게 되었다. 누명을 벗고 원님의 딸과 결혼하였다.
실뱀이 갚은 은혜	『大系』 7-4, 70~71	이전에 누가 서당에 다니는데 샘에 실뱀이 하나 있어서, 밥 싸가지고 간 것을 매일 조금씩 줬다. 장가를 가게 됐는데, 그날은 밥을 좀 많이 줬다. 이 뱀이 나와서, 꼬리로 바닥에 대나무 장 아래 눕지를 마라. 떨어진 지름을 머리에다 발라라. 참깨 한 말을 두 이랑에다 다 갈아라 등 글씨를 썼다. 장가를 가고 그날 밤 뱀 생각이 나서 뱀이 쓴 대로 하였고 아내는 간부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 사람은 아내를 죽인 죄로 잡혀 가지만, 원님이 간부를 찾아내어 신랑은 나오게 된다.
은혜를 갚은 구렁이	『大系』 3-2, 392~394	옛날 어느 곳에 한 동자가 있었다. 서당 다니는 길에 고개를 넘으려면 바위 틈에서 큰 구렁이가 나오면 자기가 싸운 짐승의 반을 구렁이에게 줬다. 세월이 가서 그 총각이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밤에 소변이 보고 문을 여니 구렁이가 들어와 신랑을 죽이려던 그 여자의 간부(姦夫)가 들어있는 께 짝을 감아서 간부를 죽였다. 자기가 죽을 밤을 반씩 나눠 몇해를 먹여 살린 공을 알아서 은혜를 갚은 것이다.
약초로 은혜 갚은 구렁이	『大系』 7-13, 215~217	쌀 수백 석을 배에 싣고 팔아서 큰 갑부가 된 사람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소문을 냈다. 부자가 잡혀 갔는데, 큰 물이 저서 산에서 큰 대망이가 한 마리가 내려온다. 부자는 전날 그 뱀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다. 모진 주리로 인한 상처도 뱀이 물어다 준 잎사귀로 씻은 듯 낫았다. 구렁이가 또 잎사귀를 물고 와서는 임금 딸이 병이 나서 죽게 되니, 낫게 하라고 했다. 구렁이 말대로 임금 딸은 낫게 되고, 부자는 장사를 만든 이익을 남겼다.
은혜 갚은 뱀과 사슴	『大系』 6-4, 828~831	박씨라는 이가 적선을 많이 한 사람인데, 한번은 큰물이 많이 저서 떠내려오는 뱀과 파묻힌 사슴을 살려 놓았더니, 친구는 돈까지 착복하고 모략하는데, 뱀과 사슴은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이다.

제 목	출 전	내 용 요약
뱀의 보은	『한국의 민담』, 127~129	옛날에 한 소년이 서당에 다니고 있었다. 하루는 많은 아이들이 모여 뱀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보고 뱀을 가엾게 여겨 살려 주었다. 몇해 후 장가를 가게 되었다. 혼인 전날 뱀이 나타나 전에 살려 준 보답을 하겠다고 하며, 혼인날 밤에 머리에 기름이 묻는 일이 있더라도 닦지 말라고 한다. 혼인식이 끝나고 옷을 벗다가 등잔불이 떨어지고 머리에 기름이 함박 묻게 되었다. 밤에 괴한이 침입하여 신부를 신랑인줄 알고 찢러 죽이고 달아나고 신랑은 관가로 불잡혀 간다. 사행을 집행하는 버드나무 잎이 떨어져 이상하게 생각하여 점쟁이들을 불러 점괘를 풀게 했다. 점괘의 풀이대로 범인을 잡게 된다.
은혜 깊은 지네	『集成』(1), 448~450	마을에 큰 지네가 있어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 한번은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데 두꺼비가 남몰래 같이 들어와 지네와 대항하게 되는데, 지네는 두꺼비가 내뿜은 독에 의해 죽고 만다. 이튿날 동네사람들이 와 보니 처녀는 죽지 않고 지네가 죽어 있음을 보고 놀란다. 두꺼비는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있다 하며 헤어진다. 처녀는 결혼하여 사는데 하루는 도적이 집안에 들어와 있음을 모른다. 이날 두꺼비가 나타나 지금 위험에 처해 있으니 대문 밑에 숨어 있으라고 한다. 밤중에 도적이 죽이려고 도기로 힘껏 이불을 치는데 사람이 없음을 알고 밖으로 나오는데 그만 문지방에 걸려 죽는다. 부인은 살아나고 저승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떠났는데, 결국 두꺼비가 은혜를 갚은 것이다.
은혜 깊은 뱀	『集成』(1), 453~454	15명의 머슴을 거느리고 사는 부자가 하루는 수종에게 머슴들을 일할 곳에 배치하라고 이르는데 그 중에 한 부인이 마음에 들어 그 부인에게 후원을 깎도록 한 후에 검탈을 하는데, 그만 부인이 뱀에 물려 사경을 헤매게 된다. 차마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지는 못하고 중놈을 몇 차례 부인네 집에 보냈는데, 한번은 뱀이 부인의 몸을 감고 있다고 하자 밤새 걱정한다. 날이 밝아 가보니 부인이 살아났는데 이는 낮에 뱀이 여자를 물었을 때 주인이 죽이려고 하자 죽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뱀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부인을 살려낸 것이다.
뱀의 보은	『大系』7-6, 683~685	머슴의 밥상 앞에 실뱀이 다가와 앉았다. 끼니 때마다 밥을 나눠 주었는데, 뱀이 커지자 계속 나눠 먹을 수가 없어서 헤어졌다. 머슴은 사십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가난하게 살았다. 큰 뱀이 나타나 나라에 상납돈을 가로챘는데, 아무도 잡지 못하자 뱀이 머슴의 이름을 글로 토해서 나라에 불려가게 되었다. 뱀이 나타나 날 잡아서 임금 앞에 동가리를 제대로만 맞춰서 놔달라고 했다. 시키는 대로 하자 뱀이 일어나 임금을 치고 머슴을 임금의 자리에 앉혔다.
배를 잘라 자식 비롯 고치기와 구렁이 보답	『大系』5-1, 273~275	위와 비슷한 이야기
은혜 깊은 뱀	『大系』7-4, 232~233	위와 비슷한 이야기
까치의 보은	『大系』8-2, 196~198	옛날에 한 사람이 과거 보러 가다가 구렁이가 가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구렁이를 쏘아 죽이고 까치를 구해 주었다. 한군데를 가다가 예쁜 여인이 있어서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마느질을 하는 것을 보니 뱀이었다. 뱀이 남편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종소리가 세 번 나면 살려 주겠다고 했다. 한참 후에 종소리가 울리자 뱀이 장래 큰 사람이 될 거라서 못 잡아먹겠다고 하면서 사라졌다. 소리 난 곳을 가보니 까치 세 마리가 죽어 있었다. 후에 과거에 급제하여 잘 살았다.
종소리로 평이 은인(恩人)을 살리다	『大系』5-1, 638~642	위와 비슷한 이야기
평 이야기	『大系』1-3, 152~154	위와 비슷한 이야기
鶴이 종을 처서	『大系』1-1, 159~162	어떤 한량이 활을 메고 산중을 지나가는데 학이 날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 가만히 보니 학이 새기를 치고 있는데 구렁이가 잡아먹으려 했다. 한량이 활로 그 뱀을 쏘아 죽였다. 길을 가다 저물어 어느 집에 들어가니 예쁜 처녀가 있었다. 밤에 한량을 잡아먹으려 했다. 이 처녀는 죽은 뱀의 아내이다. 쇠북 소리 세 마디만 나면 잡아먹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쇠북소리가 나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 아침에 나가 보니 학이 죽어 있었다.

제 목	출 전	내 용 요약
雉岳山과 上院寺	『韓國民間傳説集』 413~415	강원도 영동 어느 마을에 활을 잘 쏘는 젊은이가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서울로 향하다가 큰 뱀에게 전신을 감기어서 입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뱀을 쏘아 죽이고 두 마리의 꿩을 구해 주었다. 산 길을 걸다가 간신히 종이 있는 집(절)을 찾아 들어가니, 예쁜 여자가 인도해 주었다. 잠을 자다가 숨을 쉴 수 없어서 눈을 뜨니, 그 여자가 큰 뱀으로 화하여 자기 몸을 감고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 절의 종소리가 나고 뱀을 몸을 풀고 잘이나 버렸다. 나뭇 밝아 종이 있는 곳으로 가니, 꿩 두 마리가 죽어 있었다.
은혜 갠고 죽은 황새	『大系』 8-5, 156~161	한량이 활을 쏘러 가다가 큰 정자나무에 황새가 집을 지어 새끼를 치우고 있는 데에 큰 구렁이가 빙빙 타고 그것들을 먹으러 가는 것을 올라가는 보았다. 그래서 구렁이를 쏘아 버렸다. 한량이 과거보러 가다가 작은 개울에서 빨래하는 예쁜 처녀를 보았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 처녀네 집을 찾아가서 잠을 청했는데, 이 여자는 구렁이가 든갑한 것이었다. 한량은 아차 하는 마음에 변소에 간다는 핑계로 도망을 쳤고, 구렁이가 따라 오자, 전날 구해 준 황새가 나타나 구렁이를 밤새도록 쫓았다. 황새가 죽자, 한량은 황새의 묘를 성과 같이 쌓고 장사를 잘 치러 주었다. 한량은 과거에 급제하고 야단스럽게 내려왔다.
새의 보은	『한국의 민담』, 85~87	더벅머리 총각이 글공부하러 가다가 멧새 새끼를 잡아 먹으려는 구렁이를 죽였다. 총각이 산을 넘어 가다가 예쁜 처녀가 빨래하는 것을 보고 훈장님의 말을 어기고 처녀에게 말을 걸었고, 함정에 빠져 들었다. 그 처녀는 전날에 죽었던 구렁이의 아내인데, 종소리가 세 번 울리면 용이 되어 승천한다고 했다. 순간 종이 세 번 울리고 구렁이는 하늘로 날아가고 종이 달린 아래에는 머털르 깨면서 종을 울린 작은 멧새가 죽어 있었다.
꿩 이야기	『大系』 1-3, 152~154	지는 것을 보고 가서 두재미란 선생이 포수질을 하려고 산중에 들어 가니, 꿩 두 마리가 떨어졌다. 구렁이에 놀란 꿩이 놀란 것이다. 두재미 선생이 마구 총을 쏘아 구렁이를 죽였더니, 밤에 암구렁이가 나타나 살려면 한산사 종을 세 번 울리라는 것이다. 꿩이 30리나 밖에 있는 종을 울리고 은혜를 갚았다.
까치와 구렁이	『한국의 민담』, 131~132	위와 비슷한 이야기
까치의 보은	『한국 민화에 대하여』, 130~131	어떤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까치 등지를 덮친 구렁이를 죽이고 까치를 구해 주었다. 그 때 맛 끝이 뱀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 7-8년이 지나 봉장어를 사서 요리해 먹었는데, 뱀의 몸에 박혀 있던 낫이 나왔고, 그 때부터 복통을 일으키고 배가 부어졌다. 지난날 구해준 까치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노총각과 뱀	『大系』 8-3, 252~256	노총각이 장가를 못 가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 산 중턱에 뱀이 있는데 농사에 피해를 주며 인간을 괴롭힌다. 총각이 산에 올라가니 불이 있길래 들어가 하루 밤을 자면서 이야기했다. 이야기 도중 뱀이 싫어하는 것은 담뱃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뱀을 퇴치했다. 마을에서는 노총각과 처녀를 결혼시켰다.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돈이라니 뱀이 돈을 한 보따리 노총각 집에 던지고 갔다. 노총각은 그 돈을 주워서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
돈으로 원수 갠 구렁이	『大系』 9-2, 212~216	중병이 든 할머니를 위해 효자인 외아들이 의원을 찾아가다가 구렁이를 서로 싫어하는 것을 말했다. 구렁이는 담뱃대의 진을 싫어하고, 외아들은 돈을 싫어한다고 하자, 다시 만났을 때에 구렁이는 담뱃대의 진을 뿌린 원수 갠 것으로 돈을 뿌려 놓으니, 외아들은 부자가 되었다.
사람 잡아먹는 구렁이	『한국의 민담』 132~134	어느 가난한 사람이 친척 집에 식량을 얻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다가오더니, 집으로 안내하고 밥상을 차려준다. 이 여자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사람을 잡아 먹는 구렁이였다. 남자는 애원하며 집안 식구들을 보고 오겠다고 했다. 그곳을 나오면서 구렁이에게 싫어하는 것을 묻자 구렁이는 담뱃진이라고 했고, 그 남자는 돈을 제일 싫어한다고 했다. 남자는 마을로 돌아와 담뱃진을 모아서 구렁이에게 뿌렸고, 구렁이는 원수 갠 것으로 돈을 갠다 놓았다.

제 목	출 전	내 용 요 약
사람을 잡아먹는 지네	『한국의 민담』 (1), 135~138	그전에 한 아이가 절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 절에서는 설날 그림날이 되면 꼭 사람이 하나씩 죽으므로, 그날이 되면 중들은 모두 산 아래 마을로 가서 밤을 지새곤 했다. 설날 그림이 되어 다른 중들은 다 마을로 내려가는데, 이 아이는 남아 있었다. 한밤중이 되니 흰 투구를 쓴 사람이 “梁上之怪야!” 하고 부르면서 문을 열더니, 이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몰러갔다. 조금 있더니, 이번에는 황금투구를 쓴 자가 와서 전과 같이 했다. 새벽에 이 아이가 천장 대들보 밑을 힘껏 치니 바디만한 지네가 죽어 떨어졌다. 황금투구를 쓴 자와 흰 투구를 쓴 자는 그 절을 짓고 남은 금 서 말과 은 서 말을 과물은 것이 邪가 된 것이라고 한다.
이시미 이야기	『大系』 8-5, 663~667	강변 늪에 이시미 굴이 있었는데 사람이 그 속으로 들어가면 잡아먹게 된다. 욕심 많은 어부가 혼자서 잡다가 호랑이가 따라와 굴속으로 들어 간다는 것이 이시미 굴속으로 들어가 이시미에게 죽음을 당했다. 아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어른들께 물으니 개피를 묻혀 들어가면 이시미는 꼼짝도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정말로 개의 생피를 옷에 묻혀 들어가니 이시미는 꼼짝도 못했다. 창을 가지고 찔러 죽이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된 이유를 그 후 같이 고기잡이하던 어부로부터 들었는데 혼자 고기를 다 잡으려고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렁이의 중매로 지네와 결혼한 이야기	『大系』 8-5, 1107~1110	어느 노인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무 일도 안하고 놀고 있으니, 화가 나서 짚단을 주면서, 그것으로 밥이나 얻어 먹으라고 했다. 새끼를 꼬았으나, 독을 깨뜨린 처녀 말고는 찾는 사람도 없던 차에 노인이 하나 나서서 앞에 가고 그 측각은 뒤에 따라가고 이러는데 작은 실뱀이 큰 구렁이와 교미를 하는 것을 보고, 작대기로 구렁이에게 상처를 낸다. 구렁이가 큰집 다락으로 가더니 숫구렁이에게 해꼬지 해달라고 한다. 아들은 집을 나가게 되고, 그 노인의 말대로 바위 곁에 있다가 저녁에 고운 처녀가 나오자, 같이 갔는데, 이 처녀는 허물을 덜 벗어 가슴에 지네발이 있는 지네의 환생이었다. 처녀를 소개한 노인도 구렁이었다.
서방질한 암구렁이를 죽여 버린 수구렁이	『大系』 3-3, 250~252	옛날에 한 사람이 눈물을 보러 논가에 가니깐 커다란 구렁이가 있었다. 눈물을 대놓고 가만 서서 보니까 그 큰 구렁이가 작은 뱀하고 교미를 하고 있었다. 이 늙은이가 그걸 보며, 괴씸한 생각이 들어 구렁이 잔등을 부러뜨리고 말았다. 암구렁이가 숫구렁이에게 고발을 하였다. 숫구렁이가 보복할 생각으로 그 사람 집에 갔다가 부인(할머니)에게 구렁이 일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 숫구렁이는 암구렁이를 죽이고, 장가를 새로 들었다.
鄭仁弘과 뱀의 앙갚음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全羅北道篇), 599~600	趙南溟이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주막에 들렀는데, 주모가 조남명의 외모와 높은 학덕을 보고 수작을 걸어왔으나, 끝끝내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 주모는 원이 되어 죽어서 뱀이 되어 조남명이 거처하는 사랑방의 벽장 안에 사리고 있었다. 조남명이 하루에 한번 씩 벽장 안을 내려보는 것을 이상히 여긴 제자 정인홍이 그 뱀을 죽이고 불살라 버렸다. 이 뱀은 죽어서 정인홍의 조카로 태어났다. 당시는 광해군이 나라를 다스리던 대로, 그의 생모를 폐모하기 위해 대신들이 의논하고 있었다. 정인홍은 폐모는 불가하다고 상소를 올리는데, 그 상소를 본 조카가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하여 폐모는 가하다고 상소를 고쳤다. 광해군이 폐위되고, 새로운 임금이 들어서자 폐모론을 주장하던 신하들은 역적으로 몰리어 죽게 되었다. 정인홍도 역적으로 몰리어 죽게 되었다. 뱀의 원귀는 기어이 앙갚음을 하고 만다는 것이다.
구렁이의 복수	『大系』 1-6, 183~186	황해도 연백에 있는 어떤 아전이 남대지라는 연못을 지나는데 큰 뱀과 작은 뱀이 교미하려는 것을 보았다. 괴씸한 생각이 들어 큰 뱀을 죽였다. 그 후에 아전이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동료들에게 뱀을 죽인 이야기를 하자, 천장에서 뱀이 떨어져 이상한 풀을 하나 물어다가 아전에게 비벼대고 사라졌다. 아전이 다시 소생하였는데, 뱀은 아내를 죽인 보복으로 독을 쏘아 병이 들게 했는데, 듣고 보니 아내가 오입한 것이어서 아전을 소생시켰다.
평과 이시미	『大系』 7-1, 341~344	어떤 부인이 꿩을 구해 먹고 아들을 낳았다. 그것은 이시미가 잡아 놓은 꿩이었다. 아들이 강가를 갔다. 이시미가 잡아 먹겠다고 했다. 이시미가 살려 주기를 거절했다. 신부의 슬기로 이시미를 죽였다.

제 목	출 전	내 용 요 약
구렁이의 復讐	『韓國口傳承의 研究』, 209	예전 한 양반이 살았는데, 큰 구렁이가 너무 커서 죽일 수 없다는 하인들의 말에 일언지하에 잡아 치우라고 분부했다. 양반의 아내는 아들 삼형제를 낳았는데, 차례로 죽었다. 양반은 아들 삼형제가 뱀의 화신임을 알고 돌보지 않았고, 뱀은 복수할 수 없었다.
뽕덕이와 구렁이	『大系』 8-5, 614~618	옛날 옛적에 한 남자가 산에 오르다가 구렁이의 독 때문에 뽕이 나르다가 떨어지고 하다가 죽는 것을 보았다. 이 뽕을 가져다가 부인이 먹고 아들이 하나 생겼다. 뽕의 덕으로 낳다고 해서 '뽕덕이'로 불리는 이 아이 앞에 구렁이 나타나 15세만 되면 잡아 먹겠다고 했다. 15살이 되고 장가를 가게 되었는데, 부인에게 여자의 옷끈도 못 풀다고 편잔을 듣게 되고 뽕덕이는 부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 한다. 부인은 뽕덕이 대신 남장을 하여 지혜를 발휘하여 구렁이를 죽인다.
들뽕 신랑과 구렁이	『大系』 8-3, 594~598	어떤 부인이 논두렁 밑에서 파다거리는 뽕을 주워다 먹었는데, 그 후에 아들을 낳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구렁이가 잡아 놓은 뽕이었다.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자, 구렁이가 나타나 내 밥을 주워 먹고 너를 낳았으니 잡아먹겠다고 하였다. 첫날밤에 신부에게 사연을 말하자 신부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구렁이가 나타나자 신부가 나서서 신랑을 잡아먹으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살란 말이나면서 가로막았다. 구렁이가 네모난 물건을 주면서 한 모는 돈 나오는 곳이고 한 모는 밥이 나오고 한 모는 옷이 나오는 곳이라고 하고 마지막 한 모는 말하지 않았다. 신부가 남은 한 모를 계속 묻자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것이라고 했다. 신부가 구렁이에게 너 죽어라고 하자 구렁이가 죽었다. 신랑 신부는 그 구슬을 얻어서 잘 살게 되었다.
구렁이와 피 많은 부인	『大系』 5-1, 450~452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렁이의 보물	『大系』 4-3, 486~488	옛날에 한 촌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애를 못 낳았다. 동네 사람들이 구렁이에게 쫓겨 다니는 뽕 잡아 먹으면 애를 낳는다는 말을 듣고, 뽕과 뱀이 싸우는데 뽕을 잡아 먹고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가 장가를 가는 길에 부는 소리가 있어 쫓아 가 보니 산골짜기 밑에 큰 연못에 큰 구렁이가 자기 밥을 먹어서 낳은 것이니, 죽이겠다고 한다. 신부의 지혜로 신랑을 잡아 먹되 자기가 나 죽기 전에 먹을 걸 주라고 하자, 구렁이는 밥, 돈 죽으라면 죽는 것을 주게 된다. 신부가 죽어 봐라 하자, 구렁이는 죽고, 신랑과 색시는 잘 살았다.
개와 고양이와 구슬 찾은 이야기	『大系』 2-2, 591~602	위와 비슷한 이야기
암구렁이의 復讐(新婦 가 新郎을 구해 냄)	『韓國口傳承의 研究』, 236~237	예전에 한 소년이 암수 두 마리의 구렁이가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중 수컷을 죽였다. 소년이 커서 장가를 가게 되자 암구렁이가 복수하려고 하였는데, 신부의 지혜로 구렁이를 죽이고 남편을 복수로부터 구했다.
네모진 구슬	『大系』 1-6, 636~640	위와 비슷
구렁이와 연적	『한국의 민담』 (2), 38~40	어떤 학생이 고개 너머로 공부하러 가다가 구렁이가 알을 품고 있는 뽕과 그 알을 먹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못 먹게 하였다. 그 학생이 자라 장가가는 길에 그 고개를 지나는데, 그 구렁이가 나타난 옛일을 말하며, 잡아 먹으려 하였다. 그는 지금 장가가는 길이니, 오는 길에 잡아먹으라고 하였다. 이튿날 그가 신부를 데리고 그 고개를 넘으려 하자, 그 구렁이가 다시 나타나 그를 잡아 먹으려 하였다. 신부가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며 가로막고 나서니, 구렁이는 신부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연적을 주었다. 색시는 그 연적을 들고 구렁이를 물리쳐달라는 소원을 말해 구렁이를 죽이고, 그와 함께 집으로 와서 잘 살았다.
산삼과 이무기	『한국의 민담』 (1), 149~151	그전에 어떤 사람이 두 친구와 함께 산삼을 캐러 갔다. 그는 낭떠러지 밑에 산삼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칠푼굴로 줄을 만들어 타고 내려가 산삼을 캐서 바구니에 담아 올려 보냈다. 위에 있던 친구들은 산삼을 자기들끼리만 가질 생각으로 줄을 내려 보내지 않고 가버렸다. 그 사람이 낭떠러지 밑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 큰 이무기가 나타났다. 그가 이무기의 등에 올라타자 이무기는 절벽을 기어 올라갔다. 그 사람이 집으로 오다보니, 산삼을 가지고 간 두 친구가 정자나무 밑에 죽어 있었다. 그 사람은 그 산삼을 가지고 돌아와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



제 목	출 전	내 용 요 약
핑과 이시미	『구비문학의 세계』, 127~128	옛날 어느 사람의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핑이 먹고 싶다고 했다. 그 사람이 산에 가니 마침 핑 한 마리가 떨어져 있어서 가져왔다. 그런데 그 핑은 이시미가 잡은 것이었다. 부인은 핑을 먹고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그 이시미가 나타나서 핑 대신에 아들을 잡아먹겠다고 했다. 빌어도 듣지 않았다. 혼례만 치를 수 있도록 여유를 달라고 하니, 이시미가 응락했다. 혼례는 잘 치렀는데, 죽을 시간이 닥쳐 왔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신부가 남편을 살려 보겠다고 나섰다. 신부가 이시미에게 신랑이 죽으면 자기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항의하고 신랑을 살려 달라고 했다. 이시미는 살려 달라는 청은 거절하면서, 야광주를 하나 주었다. 그 야광주는 무슨 소원이든지 성취시켜 줄 터이니, 먹고사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신부는 야광주로 이시미를 죽이고, 신랑을 살려냈다.
산삼과 이시미	『大系』 1-4, 945~949	위와 비슷한 이야기
山蔘과 大鱗	『大系』 1-1, 57~62	강원도 산골짜기에 일곱 가구가 사는데, 모두 약캐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약을 캐는데, 한 사람은 하루 일당을 못하여,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해서 백일 산제(百日山祭)를 했더니, 꿈에 하얀 백발 선인(仙人)이 내려 와서 산삼 있는 데를 알려 주었다. 그 이튿날 집에 와서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길을 나서자 두 사람이 따라왔다. 첩으로 줄을 만들어 타고 내려가 산삼을 캐서 올려 보냈다. 마지막 산삼을 캐서 올리니, 첩줄이 내려오지 않아 탄식하고 있는데, 노란 구렁이가 나타나 돌맹이다 입 썩고 갔다. 자기도 또 같이 하자 배 고프는 것이 어디로 간 곳도 없어서 그럭저럭 한 겨울을 지낸 후, 구렁이를 타고 올라온다. 같이 갈던 두 사람 중 하나는 그 사이에 죽었고, 또 한 사람은 중개자를 두어 이 사람이 살아왔다고 하자, 다른 데로 이사해 버렸다. 이 사람은 두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잘 살았다.
동삼과 이시미	『구비문학의 세계』, 127~128	옛날 어느 가난한 나무꾼이 한 겨울에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벼랑 밑에 童蔘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가파른 벼랑을 내려갈 수 없었다. 돌아와 이 말을 하니, 이웃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밧줄에다 소쿠리를 묶어서 이웃 사람은 밧줄을 잡고 있고, 자기는 소쿠리를 타고 내려갔다. 소쿠리에다 동삼을 담아 올렸다. 그런데 동삼을 다 캐 올리자, 소쿠리는 다시 내려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 사람은 올라 갈 수 없었다. 그러자 큰 이시미가 한 마리 나타났다. 놀라서 도망치는데, 이시미가 그 사람을 등에다 태우고 벼랑에 올라와 마음씨 나쁜 이웃 사람을 물어 죽였다. 나무꾼은 큰 부자가 되었다.
은혜를 주고 받은 이 무기와 사람	『大系』 7-4, 234~235	어떤 사람이 산삼을 캐러 갔는데, 산삼이 탐이 난 친구들이 밧줄을 내려 보내지 않아서 산골짜기에 갇혔다. 뱀과 함께 언동설한을 나고 봄이 되어 뱀의 도움으로 골짜기를 빠져 나왔다. 은혜를 갚으려 하니, 뱀이 여의주를 얻어야 승천을 하니 편 여자에게 있는 여의주를 얻어 달라고 말했다. 여의주를 얻어다 뱀에게 주었다. 뱀이 승천하면서 태산을 무너뜨려 들판을 만들었다. 그들을 얻어 부자가 되었다.
산삼과 구렁이	『大系』 2-7, 258~261	두 형제가 어렵게 살고 있었다. 형이 산삼을 얻었는데, 벼랑 밑에 있어서 내려갈 수가 없어서 심성이 못된 동생과 함께 가서, 첩으로 동아줄을 만들어 내려 갔다. 산삼을 캐서 올려 보냈더니, 동아줄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 형은 구렁이가 바위 밑에 불로초를 뜯어 먹고는 입을 싹싹 비비고는 또 닭의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3년을 살았다. 이 구렁이가 연유를 물어 보고, 집에 가면 여의주가 있으니 그것을 가져다 주라고 해서 주었더니, 그것을 입에 물고 하늘로 용이 돼 올라 갔다. 용이 돼 올라 가면서 그 집을 살게 해주었다. 착한 형은 동생에게 야단도 치지 않고서 잘 살았다.
如意珠	『韓國民俗綜合報告書(全羅北道篇)』, 629~630	위와 비슷한 이야기
여자에게 있는 여의주를 얻은 용이 은혜를 갚다	『大系』 5-1, 210~215	위와 비슷한 이야기

제 목	출 전	내 용 요약
용이 된 이무기	『大系』 4-1, 235~239	어떤 가난한 집안의 가장이 집을 나와 산중에서 큰 기와집에 하루를 묵게 되었다. 그 집 여주인과 동침을 하게 되어 한달 모자란 십 년을 같이 살게 된다. 문득 집 생각이 나서 집으로 와보니 큰 부자가 되어 있었다. 다시 산으로 향하던 중 여우를 만나게 되어 절색의 부인은 이무기라는 사실과 밥을 먹을 침을 세 번 뱉고 먹으라는 예기를 듣는다. 가장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무기는 용이 되어 승천을 하게 되고 가장을 도와주었다.
용이 된 구렁이	『大系』 4-1, 346~348	위와 비슷한 이야기
용이 된 색시	『大系』 8-5, 672~674	위와 비슷한 이야기
용과 여우의 둔갑	『大系』 5-1, 707~709	위와 비슷한 이야기
이무기 용되기	『大系』 8-3, 344~348	어느 마을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비가 많이 와서 논밭이 휩쓸려 버렸다. 세 식구가 살 길이 없어서 외동 아들이 자기가 죽는다고 지항없이 나섰다. 어느 골짜기에 이르니 비가 많이 오는데, 굴이 있는데, 부녀 둘이서 차담상을 차려 놓고 절을 하고 있었다. 왜 이리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공을 드리는 중인데, 오늘이 끝이라고 한다. 이렇게 만나서 여자 집으로 가서 부인을 정해서 사는데, 삼 년을 사니 집 생각이 났다. 선친 제삿날에 집에 가보니, 잘 살고 있어서, 물었더니, 자기가 보낸 돈으로 잘 산다는 것이었다. 노인이 나타나서 선친이 무슨 일로 관에서 나오지 못해 제사에도 참여를 못해서 부탁을 하라고 해서 왔다는 것이었다. 그 부탁이란 것은 찾아 가는 그 여자가 흉악한 구렁이니, 오늘 저녁에 가면 잡아 먹힐 것이니, 후문으로 들어가서 문틈으로 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소릴 듣고 걱정이 되어 후문으로 들여다 보니 뱀두 마리가 싸우고 있었다. 들어가니 둔갑을 해서 아침상을 잘 차려 주었다. 밥을 입에다 넣고 노인이 시킨대로 뱉으려고 하다가 구렁이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냥 삼켜 버렸다. 그랬더니, 여자가 손뼉을 치면서 둘다 살게 되었다고 한다. 노인은 늙은 이시미로 여자가 죽어야 용이 될 거이므로, 선몽을 뒤바꾸어서 말한 것이다. 부인은 둔갑해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함께 살던 삼간 초당이 절벽이 되어 버렸다. 남자는 집에 와서 잘 살았다.
설섬[森島]과 뱀	『南國의 傳説』, 157~158	설섬에는 새빨간 뱀이 살고 있었는데, 용왕님께 기도를 드리며 용이 되기를 소원 하였다. 설섬과 지귀섬 사이에 숨겨 둔 아광주를 찾으면 용이 될 수 있다는 용왕님의 말을 듣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으나, 100년 동안이나 찾아 났 수가 없었다. 기진맥진한 뱀은 원한을 묻은 채 죽고 말았다. 그 후부터는 비가 오려면 설섬의 상봉에는 안개가 끼었는데, 사람들은 뱀신의 조화라고 말하며, 그 것으로 인해 거기에 '당'이 생기고 어부들은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황새와 구렁이	『한국의 민담』 (1), 32~34	전에 어떤 사람이 들에 나갔다가 황새 새끼를 잡아먹으려는 구렁이를 살포로 찢러 죽였다. 그때 살포의 끝이 부러져 구렁이의 몸에 박혔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삼치를 사서 먹었는데, 갑자기 온몸이 퉁퉁 부어서 죽게 되었다. 그때 황새 떼가 와서 그 집 들레에 앉아 있었다. 사태를 짐작한 그가 마당에 가서 옷을 벗고 누워 있으니, 황새 떼가 날아와 그의 몸을 쪼아 낫게 해주었다. 그가 먹다 남은 삼치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 속에 살포 부러진 것이 들어 있었다.
구렁이의 보은	『大系』 4-2, 543~545	날이 저물었는데 가다니 한 군데 가니까 불이 뽕뽕 뽕뽕하여 거기에 들어 가니 새댁이 하나 있어 여자하고 살게 되었다. 집 생각이 나서 가보니 양식이 가득 쌓여 있었다. 새댁 있는 곳으로 올 때 투구 철갑 한 몸이 나서더니 새댁은 구렁이니 밥을 주면, 세 손갈을 침을 뱉고 먹지 말고 던지라고 하였다. 남자가 밥을 먹으려다 처자식을 이렇게 잘 살게 해 주는데 자기 하나 죽기로 이 밥을 안 먹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고 밥을 삼켰다. 그러자 여자가 무릎을 치면서, 투구 철갑을 한 놈은 자기는 구렁이로 용이 되어올 하는데 회망을 놓느라고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더니 청천 하늘이 뇌성벽력을 하더니 고만 한 줄기 빗발이 치고 무지개가 서더니 여자는 하늘로 등천을 해 버렸다. 그 올라간 뒤에는 장마가 저서 비가 막 쏟아져 산이 뚫개지고 웅한 들을 만들어 놓았고 이것은 신 이무개 땅이라고 팻말을 폈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이룩해서 부자가 되었다.

제 목	출 전	내 용 요 약
은혜 깊은 용	『大系』 4-1, 542~544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부모, 처자를 다 굶기게 되니, 속상해서 높은 산으로 목을 매러 갔다가 차마 목도 못 매고 큰 바위에 앉아서 들을 내려다 보니, 저 아래 빈 데서 초롱불 둘이 깜박깜박 올라왔다. 무슨 불인가 하고 보고 있으니 불이 차츰 자기 앞으로 왔다. 이쁜 색시 하나와 새댁 하나 하고 둘이 초롱불을 들고 산에 올라 오는 것이었다. 남자는 부모, 처자를 굶기게 되니 죽으러 올라 왔다고 하였고, 색시는 자기가 팔자가 사나워 남편을 여의고 살 재미가 없어서 죽으러 왔다고 하였다. 그래서 죽지 말고 같이 살자고 하여 그 여자를 따라 갔더니 기와집에 잘 살고 있었다. 그 색시는 좋고 새댁은 주인이었다. 그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집 걱정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다. 새댁이 자기 집에서 삼 년만 살고서 집에 다녀 오라고 하여 삼년이 지나자 그 남자를 보내면서 집에 가면 밥을 먹으면서 밥숟가락을 떠서 새벽 소리 세 번을 지르고 먹으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자가 죽는다는 것이었다. 그 여자가 용인데, 남자 모르게 그 식구들을 먹여 사렸다고 한다. 평이 세 마디 소리를 지르자, 남자는 소리를 얹고서 밥을 먹고는 새댁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마을은 온데간데 없고 바다가 되어 있었다. 새댁은 자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무기라면서 사람을 99명을 죽였는데, 100명을 채워야 한다고 하였다. 남자가 죽으면 영영 용이 안되는데 살아 돌아와서 용이 되니, 집에 가서 부모, 처자하고 살라고 돈을 많이 주고서 외치게 하더니 집이 없어지고 큰 구렁이가 되어 물로 떠 다녔고, 동네 있던 사람이 전부 구렁이 새끼였다. 그 남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용이라 살려 줘서 부자로 살았다.
구렁이의 도움	『大系』 4-3, 275~282	강원도에 큰 부자가 돈을 듬뿍 장만하고 서울 구경을 왔다가 여관 주인의 꼬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죽으려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버렸다. 독약을 먹고 죽은 줄 알았는데 18, 9세 되는 처녀 하나가 등불을 하나 들고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이 처녀를 따라 갔더니, 산 옆에 큰 기와집이 떡 솥이 있었다. 거기에서 3년을 살다가 할아버지 제사 지내러 집에 가보니, 자기가 보냈다는 돈으로 잘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 제사를 마치고 집을 나서자, 달밤에 수염이 하얀 큰 장사 하나가 콧 막아서서 바로 못간다고 한다. 그 노인은 할아버지가 살았을 적에 이웃에 살았던 사람으로 손자를 살리라는 할아버지의 부탁으로 왔다는 것이다. 오늘 제녁에 집에 가서 문구멍으로 들여다 보고 동네 바깥으로 나가 서서 마중 나오는 늙은 한 늙었다고 호령을 지르라는 것과 밥을 먹다가 여자 얼굴에다 툭어 버리라고 하였다. 그 래야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 구렁이 두 마리가 나자빠져 있는 것이었다. 노인이 시킨 대로 밥을 여자의 얼굴에다 뽀얗게 하다가 그냥 삼켜 버리자, 여자가 귀신 노인을 만난 이야기를 한다. 남자는 은혜를 생각하여 자기만 죽으려고 그냥 삼켰다고 하였다. 여자는 그 노인이 지내고 지금 자기와 용이 되려는 경쟁 관계라는 이야기를 해준다. 죽게 된 사람 100명을 구조해야 용이 된다고 하였다. 남자가 노인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자기는 용이 되고 남자는 살게 되었다고 하며, 칠월에 지내 벼락을 때려 먹고 살 평야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다. 날이 훤히 밝으니 구렁이 사슴 몰려들더니 용이 되어 올라갔다. 들여다 보니 기와집은 바위였다. 집으로 와서 마음대로 먹고 살았다. 칠월이 가더니 약속대로 장산 허리를 쪽 갈라놓았다. 지네 굴 쫓아나가면서 벼락을 때려 허리를 두 토막 자르니 커다란 구렁이가 되었다.
구렁이의 보은	『大系』 6-4, 406~411	나주 정(鄭)씨의 선조가 호가 설봉(雪峯)인데, 그 양반이 약국을 하는데, 하루는 구렁이 새끼 한 마리 들어와서 방 구석 약장 속으로 들어가서 또아리를 틀고 쫓아도 나가지 않았다. 밥을 한 숟가락 주니 밥을 먹고 쫓다. 한 삼년을 키우니 무지하게 커졌다. 나중에 무서운 생각이 나 치단을 해버려야 하겠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루는 옷을 입고 나서며 머슴에게 약장과 방 청소를 하라고 하였다. 머슴들이 약장을 들어내니 구렁이 드러누워 있었다. 노끈을 비벼서 끌고 나와서 그을려 버렸다. 사흘이 지내고 나흘 만에 꿈에 백발노인이 나와 덕분에 승천하게 되었다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찾아 왔다고 한다. 어떤 병에도 슬 수 있는 침을 주었다. 그 구렁이를 그을려 버린 것이 용이 되게 해 준 것이었다. 노인이 준 침을 시험해 보았더니, 아무렇게나 침을 놓아도 무슨 병이든 낫게 되어, 설봉은 명이가 되어, 나라에 피졌고, 국의(國醫)도 인정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자 중국 천자의 공주가 병이 들어 곧 죽게 되었다. 중국 의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자 조선으로 통지하게 되었고, 국의가 설봉을 천거했다. 그런데 벼슬이 없는 사람을 보낼 수 없어서 관관 벼슬을 주었다. 중국에 가서 진맥은 형식적으로 하고 침을 놓으니 송장이 되었던 사람이 침을 빠니 살아났다. 천자가 딸을 살렸다고 손을 잡고 이부상서 벼슬을 주었다.

제 목	출 전	내 용 요 약
은혜 깊은 뱀	『大系』 4-5, 777~782	옛날에 가난한 집안에 일곱 살 먹은 어린 아이가 서당에 글을 배우러 다녔다. 그 어린 아이 독자인데, 머리가 좋았다. 도시락을 가지고 들을 건너서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하루는 작은 실뱀 한 마리가 길을 가로 막고 있어서 밥을 주었다. 몇 년을 이렇게 하다가 뱀이 밥 얻어먹은 은혜를 갚겠다고 하였다. 뱀은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면서 연못에 가면 자기가 사람을 잡아 먹는데 잡혀 주겠다고 하였다. 잠을 적에는 세 발 달린 쇠스랑을 갖고 오라는 거였다. 그 쇠스랑으로 도막을 내고 그 연못에다 던지면 환생한다고 하였다. 남자는 임금에게 자기가 뱀을 잡겠다고 나섰고, 뱀이 시킨대로 하여 훌륭하게 벼슬을 하게 되었다.
계 복(編은 계가 지고 있다)	『大系』 3-2, 121~129	위와 비슷한 이야기
사람이 된 지네	『大系』 7-6, 284~289	예전에 아들을 많이 나 놓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병이 들어 문밖 출입을 못했다. 먹고 살 길이 없자 마누라가 자꾸 들볶아 남의 논 농사 지어 놓은 데 가서 이삭이라도 끊어오라고 했지만, 그것도 하지 못하고 못에 가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예쁜 색시가 나타나 그 여자를 따라 기와집에 가서 보약도 먹고 음식도 잘 해 먹어 살이 쪼다. 그리고 이 여자는 하루에 친 낭썩을 주면서, 다 쓰고 오라고 한다. 하루는 공중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서 그 여자 얼굴에 침을 뱉으라는 소리를 듣지만, 이 사람은 여자가 배운 은혜를 생각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어보니, 까만 구렁이가 죽어 있었다. 이 구렁이는 여자의 오빠로, 들은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세상에 내려와 먼저 화식(化飾)을 하려고 오빠가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여자가 문을 여니, 연기가 나고 지네 껍질을 벗고 발이 돌아 하늘로 올라갔다.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마누라를 쫓아내고 아이들 데리고 잘 살았다.
지네와 구렁이의 승천 다툼	『大系』 1-6, 416~421	위와 비슷한 이야기
지네의 승천	『大系』 8-6, 70~74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몇 남매를 두고 산에 가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산에 가서 떨어져 버렸다. 눈을 떠 보니 예쁜 각시가 떨어진 이유를 묻는다. 그 각시를 따라 가니 큰 바위 밑에 좋은 기와집이 나왔다. 그 집에서 며칠 있다가 집에 가니 부자가 되어 있었다. 도시에 큰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상점을 보고 있으라고 하였다. 그렇게 몇 해를 지내다가 각시가 상점문을 닫고, 오늘 저녁에는 밖에서 누가 와서 찾더라도 문을 열고 대답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날 저녁에 지는데, 친구, 어머니, 마지막에는 죽은 아버지가 와서 불렀다.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 아버지가 야단을 치며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큰 지네인데, 둔갑을 한 것이니 잘못하면, 죽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고, 담뱃진을 여자 얼굴에다 뱉으면 여자는 죽고 남자는 살 수 있다고 하였다. 이튿날 아버지가 시킨대로 담뱃진을 여자 얼굴에다 뱉으려고 하다가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문을 열고 뱉었다니, 문 밖에 큰 구렁이가 죽어 있었다. 그 구렁이는 여자의 오빠로, 두 사람은 천상에서 죄를 짓고, 적선하고 성공한 사람이 득천하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서 평생을 짐승으로 지내게 되어, 두 남매가 먼저 득천하려고 싸우던 중이라고 하며, 득천해 버렸다.
구렁이와 지네의 싸움	『大系』 8-6, 98~101	위와 비슷한 이야기
여인으로 변신한 매미의 득천	『大系』 7-9, 419~426	위와 비슷한 이야기
청룡과 이무기	『大系』 3-2, 262	청주 한씨 시조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자신은 황룡인데 이무기가 승천을 방해하니 처치해 달라고 부탁한다. 노인이 일러 준대로 활을 쏘아 주니, 승천하면서 숲을 논으로 만들어 주었다.
노총각과 물뱀	『울릉도의 傳說·民謠』, 140~141	서울에서 공부하는 어느 노총각이 산천을 구경하고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처녀를 태워준다. 처녀는 자기를 찾아와 달라고 하였고, 노총각은 공부가 되지 않으면 처녀를 찾았다. 총각은 병이 들었고, 그 처녀가 물뱀이고 그 처녀가 총각을 해롭게 하려고 독을 넣었다는 것이다. 중이 독을 열자 총각과 물뱀은 용이 되어 사이 좋게 하늘로 올라갔다.
지네의 승천	『한국의 민담』 (2), 151~154	옛날에 술 장사를 하는 총각이 술뿌리를 캐러 산에 갔다가 예쁜 색시를 만나 그녀의 집으로 가서 대접을 잘 받았다. 장에 가다가 밑에서 또다른 색시를 만났는데, 산에서 만난 색시는 지네이고, 자기는 구렁이로 서로 용이 되려고 싸우고 있다 했다. 총각은 지네 색시의 부탁을 들어 지네와 구렁이가 싸울 때에 지네가 이기도록 하였다. 그래서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보배를 얻어 잘 살았다.

제 목	출 전	내 용 요 약
가난뱅이를 도운 지네	『한국의 민담』(2), 155~158	옛날에 한 사람이 몹시 가난하여 설날이 되어도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설날 그믐날 산으로 가서 소나무에 목을 매어 죽으려고 했다. 그때 두 여인이 소나무 밑으로 와서 축원을 하더니, 숨어 있는 그에게 내려오라고 했다. 그가 여인을 따라 가니 웅숭한 대접을 하고, 그의 집에 많은 식량과 옷가지들을 보내주었다. 그가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니, 여인은 다녀오는 길에 다리 밑에서 상주가 나타난 무슨 말을 하여도 듣지 말라고 했다. 그는 다리 밑에서 상주를 만났는데, 상주는 두 여인이 지내이니, 몰래 들어가서 ‘지네 봐라!’ 하고 말해야만 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여인의 집에 이르러 여인이 지내임을 확인하였으나, 은혜를 배운 여인을 죽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인은 그를 반갑게 맞으며, “우리와 상주는 모두 천상에서 죄를 짓고 내려왔는데, 우리는 궁한 사람 50명을 살려야 죄를 벗고, 상주는 사람 50명을 죽여야 죄를 벗는다. 당신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상으로 올라가게 됐다.”고 했다.
가난뱅이를 도운 지네 1, 2	『한국의 민담』(2), 159	위와 비슷한 이야기이다.
함흥부사와 지네	『한국의 민담』(1), 131~134	조선 중엽에 함흥부사가 부임하기만 하면 부임 첫날 죽곤 하므로 함흥 부사를 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말단 관리가 스스로 원하여 함흥부사가 되었다. 그는 부임하여 즉시 담배와 술을 준비하게 하고, 마투에는 명주실을 이리저리 매놓았다. 밤이 되자 부사는 방안에 화롯불을 피우고 계속하여 담배잎을 태웠다. 한밤중이 되니, 이상한 물체가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담배 연기가 자욱하니가 그대로 없어졌다. 날이 샌 다음, 부사가 사람을 시켜 명주실을 따라가 보니 지네의 용마루 속으로 들어갔다. 부사는 큰 가마솥에 기름을 가득 부어 끓이게 한 다음, 장정들에게 준비해놓은 쇠집게를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라고 했다. 장정들이 용마루를 떠들어보니, 거기에는 큰 지네가 있었다. 장정들은 부사의 명령대로 그 지네를 잡아 토막낸 다음, 기름가마에 넣고 끓였다. 그때 가마솥에 파란 기운이 뿜쳐 나와 부사의 얼굴을 썩니, 부사의 얼굴에 붉은 점이 생겼다. 그 후 부사가 이들을 두었는데, 얼굴에 점이 있어서 이름을 ‘자점(自黥)’이라고 했다. 김자점이 역적이 되어 삼족이 멸망하는 화를 당했는데, 이것은 지네의 복수였다고 한다.
자귀 한다	『大系』 4-1, 431~438	허자라는 사람이 절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매일 찬밥을 주어서 알아보니 절 뒤의 굴 속에 있는 뱀에게 먼저 밥을 갖다 바치는 것이었다. 그 후로는 밥을 먹지 않았다. 허자가 구렁이를 잡아서 불에 태웠다. 파란 연기가 허자에게 쏘였는데, 후에 아내가 득남했다는 소식이 왔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구렁이 소리여서 아들을 죽였는데, 일 년 후에 또 아들을 낳았으나 역시 구렁이 소리여서 죽였다. 일년 후에 아들을 낳아 가보니 마찬가지로 구렁이 소리여서 아내 보고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숨겨서 키웠다. 허자가 평양감사를 가서 직인을 잃게 되었는데, 숨겨 기른 아들 허귀의 지혜로 직인을 찾았다. 허자가 아들을 죽이려 했으나 눈에 서린 서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는데, 남보다 재주가 뛰어나 정승이 되었다. 그러나 결국 허귀는 구렁이 뱀을 타고 낳기 때문에 역적 모의를 해서 허자 일가가 망하게 되었다.
허미수의 형제와 뱀의 혼령	『大系』 7-2, 52~57	옛날 허미수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이 고을의 원이 되어 가는데 동생도 따라갔다. 그 고을에는 정월 보름달 사람을 하나씩 굴에 넣어야 시절이 잘 된다고 한다. 생사람을 넣지 않고 동생이 피를 냈다. 구렁이가 좋아하는 것은 제비이기에 제비를 미끼로 낚시를 하여 잡아서 가마솥에 끓여 죽였다. 동생이 형에게 형이 아기를 놓거든 죽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형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차마 죽일 수 없어 살려 주니 동생이 죽이라고 해도 죽이지 않아 형과 동생은 우의를 끊고 남남으로 갈라졌다. 이들이 자라 좌의정이 되었으나 나라의 역적으로 몰려 죽었다. 뱀의 혼령으로 나타난 아기 때문에 형의 가문은 망하게 되었다.
구렁이가 환생한 주원장	『大系』 4-3, 488~490	옛날에 강원도에 큰 절 하나가 있었다. 그런데 나무하러 가면 중이 하나씩 죽었다. 주지만 하나 남았는데, 화살에다 독약을 넣어 큰 구렁이를 쓰으니, 구렁이가 혼이 날아가니 쫓아갔다. 강원도 큰 기와집으로 쫓 들어갔다. 그 집에 들어가 주인하고 얘기를 자기가 여기까지 아들이 하나도 없었다 것이다. 주지가 지금 태기가 있을 거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일취월장(日就月將)해 크는데 칠 팔 세 먹어 글방에 다녔는데, 한 쪽 손은 생전 안 퍼져서 글방 애들이 강제로 펴보니, ‘만승천자(萬乘天子) 주원장(朱元璋)’라고 쓰여 있었다. 이 십 세가 되어 의병을 모아 중국을 쳐 들어가 임금을 하게 되었다.

제 목	출 전	내 용 요 약
이시미 뱃속에서 살아나온 사람	『大系』 7-4, 177~179	옛날 백두산 상상봉에 매년 청년 한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한해는 강태공의 생질 차례가 되어, 강태공은 짙는 칼을 생질에게 주었다. 청년은 이시미에게 잡혀 먹혀서 그 칼로 뱃의 간을 오려서 죽었다. 뱃을 가르고 나와 청년은 살게 되었다. 그 뱃을 태우니 연기가 뿔뿔 뿜쳐 다녔다. 그 날 저녁은 동침하지 말라고 했으나 어느 집에 동침하여 연기가 그 집으로 들어가 아기로 태어났다. 그 아기가 커서 원수를 갚으려 했으나 처녀의 중개로 화해하고 잘 살게 되었다.
진인(眞人) 정복창	『大系』 4-3, 168~170	정복창은 신선보다 더 올라간 진인이었다. 그 분이 하루는 막내 계수(季嫂)가 있는데 그 분이 제일 보기 싫게 생겼는데 구여워 하며 잘 보호해 주었다. 자기 아들이 삼 형제였는데, 조카 아들은 귀여워 해도 자기 아들은 귀여워 하지 않았다. 그러니 마누라가 시기가 났다. 하루는 인제 큰 아이는 12살, 다음이 8살, 6살이 정도 되었는데, 앓기 시작하고 하루 아침에 셋이 다 죽어버렸다. 어머니가 슬피하니까 정복창이 아이들 있는 데로 갔다. 삼형제가 웃으면서 원수 잘 갚았다고 하였다. 정복창이 어려서 큰 구렁이를 세 토막을 냈는데, 그 세 토막이 원한이 되어 삼 형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임경업 장군	『大系』 9-2, 225~235	임경업 장군이 유람하다가 한해에 처녀 하나를 잡아먹는 뱃을 처녀 대신 가서 죽였다.
독새등과 까마구등	『大系』 8-4, 218~222	박씨 문중에서 독사등에 묘를 쓰고 나서 살림이 늘고 훌륭한 사람이 나고 문중이 흥했다. 그런데, 박씨 문중에서 푸대접을 받은 어떤 도사가 주위 사람들에게 독사등 뒤에 있는 산을 까마구등이라고 불러 달라고 했다. 그러자 문중이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문중에서는 다시 까마구에게 쫓기는 독사가 은신할 수 있도록 굴동굴이라는 굴을 만들어 주고 그 앞에 독사 먹이로 개구리처럼 돌을 쌓아 놓았다.
당산과 뱃바위 전설	『大系』 8-1, 454~457	옥포에 옥녀봉이 있고 당 밑에 구렁이가 있었다. 그 뱃바위에 묘를 써 놓았는데,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 잔디가 살아 있다. 뱃 바위에다 묘를 썼기 때문에 명산지라고 한다.
뱃 물은 자리가 명당	『大系』 5-1, 607~609	위와 비슷한 이야기
남씨네 망한 유래(1)	『大系』 7-6, 41~42	부자인 남씨네 집에 하도 손님이 많이 오니, 중에게 손님이 좀 덜 오도록 해 달라고 했다. 짙룩한 개골에 잘룩한 모가지를 끊어서 개골 물을 골로 논을 해 먹으면 손님도 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그걸 끊으니, 피가 나오고, 그 후 남씨네는 망했다.
남씨네 망한 유래(2)	『大系』 7-6, 209~210	천석군을 지배는 남씨네가 있었는데 손님이 매우 빈번하게 드나들었다. 사랑 주인이 없는 사이에 안에서 마침 시주를 온 어느 대사에게 손이 덜 들도록 하는 수가 없냐고 물었다. 그러자 대사가 뒷목을 끊어서 보를 내면 된다고 했다. 보를 내니 가래 끝에 피가 묻어 나왔는데, 그 후로 집안이 망했다. 뱃 대가리 끝에다 집을 짓고 살았는데, 뱃의 목을 끊었기 때문에 집이 망하게 된 것이었다. 그 굴을 뱃굴, 사곡이라고 한다.
남씨네 망한 유래(3)	『大系』 7-6, 212~213	남씨 조상이 부자로 살았는데, 중이 동냥하러 오니, 시주를 후하게 줄 테니 집에 손이 좀 덜 오게 해 달라고 했다. 그 중이 뱃꼭이라는 곳의 목을 끊어버리니, 피가 나고, 논들이 변해 버렸다. 그 후 남씨네 집은 망해 버렸다.
지리산이 귀양온 것과 비암사굴의 유래	『大系』 5-1, 91~94	지리산 뱃사골에 큰 절이 있었다. 선달 그믐날 저녁이 되면 나이 순서대로 중이 하나씩 하늘로 싸여 올라갔다. 모두 신선이 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나이 많은 것을 부러워했다. 어떤 중이 자기 차례가 되자 친구인 정승을 찾아가서 신선이 되어 간다고 했다. 정승이 비상을 넣은 장삼을 지어 주면서 그날 입고 가라고 했다. 그믐날이 되자 서기가 내려와서 중이 싸여 올라갔는데, 이튿날 뱃사골에서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곳에 가보니 용이 못된 이무기가 죽어 있었는데, 뱃속에는 장삼을 입은 중이 그대로 죽어 있었다. 신선이 되어간 중들이 모두 이무기의 밥이 된 것이었다. 절을 태우고 返仙이라 하고, 그 고랑을 비암사골이라 했다.
半仙里의 由來	『韓國口碑傳承의 研究』, 251	위와 비슷한 이야기

제 목	출 전	내 용 요 약
청도 신선바위	『大系』 7-2, 331~333	(굴 속에 지네나 뱀이 있어서 해마다 처녀를 바치고 제사 지냈다는 이야기는 없느냐고 하니, 이 이야기를 했다.) 청도(淸道) 신선바위가 있는데, 해마다 부인네들이 화전을 하면, 그 해 사람이 하나씩 없어지고 신선 되어 갔다고 하였다. 그중 참한 처녀가 잘 없어졌다. 한 해는 어느 의원이 생각하니, 신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이라 금년에는 신선 둘 되도록 하자고 하였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전부 약을 한 개씩 허리에 품도록 하고, 알아보니 큰 구렁이가 사람을 하나씩 잡아 먹는 거였다. 그 구렁이는 사람이 품은 약을 먹고 죽게 되어 해결이 되었다.
신선 바위	『大系』 7-6, 374~377	위와 비슷한 이야기
한라산 위의 구렁이	『大系』 4-3, 170~172	위와 비슷한 이야기
먹물 먹고 죽은 구렁이	『大系』 7-4, 232	위와 비슷한 이야기
남사고의 구천십장(九遷十葬) (1)	『大系』 7-6, 46~47	남사고가 부친의 묘를 구천십장을 했다. 열 번만에 묘를 옮기는데 九龍爭珠인 줄 알고 묘를 썼다. 다음날 보니 九龍爭珠였다. 그 묘를 쓰고 나서 남사고가 죽게 되어 후손이 없다.
남사고의 구천십장	『大系』 7-10, 732~733	남사고가 호가 격암인데 비결까지 낸 이인으로 지리도 많이 알았다. 자기 조상 묘를 좋은 명산에 쓰려고 십천구장했다. 용이 아홉 마리가 여의주를 다투는 형국인 구룡쟁주(九龍爭珠)에 묘를 쓴 줄 알았더니, 뱀이 아홉 마리가 개구리를 놓고 다투는 형국국인 구사쟁와(九蛇爭蛙)였다. 그렇게 뱀재에 묘를 쓰고 망했다.
남사고의 구천십장(九遷十葬) (2)	『大系』 7-6, 66	남사고는 선조 때 천문관이야. 좋은 곳에 묘를 쓰지 않고 고사괘벽(枯蛇掛壁)에 묘를 잘못 썼다.
남사고 일화	『人物傳說의 意味와 機能』 116~118	격암 남사고는 地師인데, 자기 어린 묘를 九遷十葬을 했다. 처음 묘를 쓸 때는 九龍爭珠인 줄 알고 묘를 썼는데, 枯蛇掛壁이었다. 그 묘를 쓰고 오다 땀땀이줄에 걸려 죽었다.
남사고 일화	『人物傳說의 意味와 機能』 120~122	위와 비슷한 이야기
남사고의 실수	『人物傳說의 意味와 機能』 123	남사고는 지사인데, 아홉 구슬 언했다는 곳에 자기 어린 묘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 아홉 뱀이 연해 죽었다는 곳으로 묘를 잘못 썼다.
신선되려 가는 사람들	『大系』 2-3, 47~49	남의 여자 백을 접간한 남자와 남자 백을 접간한 여자와 백군데 시주를 다닌 중이 신선이 되려 갔다. 가다가 바둑을 두는 노인들을 만나 구경을 하다 보니 중과 여자가 없어졌다. 노인에게 물으니 문 앞에 있는 두 마리의 구렁이를 보고 하니는 여자고 하니는 중이라고 했다. 여자는 남자 백을 볼 때에 돈을 받았기 때문이고, 중은 시주를 다니면서 좋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렁이가 되었는데, 남자는 여자를 접근할 때 한 푼이라도 주고 했기 때문에 신선이 된 것이었다.
신선이 된 사람	『大系』 1-4, 507~511	위와 비슷한 이야기
부처가 되기 원하는 중·여자·한량	『大系』 1-4, 923~925	위와 비슷한 이야기
뱀으로 환생한 박씨	『集成』 (1), 824~829	친구 사이에 의리를 중히 여긴 사람은 신선으로, 의리를 배신한 사람은 뱀으로 환생하고 말했다.(警世譚)
구렁이 된 진주 자리 꿈쟁이	『大系』 8-4, 558~559	진주자리 꿈쟁이 할머니가 지독하게 살림을 모아 큰 부자가 되었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자꾸 비늘이 돋치고 구렁이가 돼 버렸다.
세 學友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全羅北道篇)』, 635~636	옛날에 어떤 선생이 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세 아이가 10일씩 번갈아 가며 밥을 지었다. 한 아이는 다른 아이 밥은 많이 담고 제 밥은 적게 담았고, 소원대로 커서 신선이 되었다. 또 한 아이는 밥을 세 사람 똑같이 담았고, 후에 소원대로 감사가 되었다. 다른 한 아이는 제 밥만 많이 담고 다른 두 아이 밥은 조금 담아서 주었고 넓은 들을 차지하고 싶다는 소원과 다르게 구렁이가 되었다. 감사가 된 아이가 신선을 찾아가 좋은 경치를 구경하다가 구렁이가 된 친구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신선에게 부탁했으나, 구렁이는 여전히 욕심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 감사가 신선과 3일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니 벌써 300년이 지났다.

제 목	출 전	내 용 요 약
세 친구	『大系』 8-5, 147~150	친구 셋이 높은 산에 불공을 하러 가서 한 사람은 처음에 밥을 공편하게 푸고, 다음 한 사람은 자기 밥은 많이 푸고 둘의 밥은 적게 푸고, 한 사람은, 두 사람 것은 많ㅇ이 푸고 자기 밥은 적게 퍼서 불공을 하고 먹고 하며 지냈다. 셋 달 열흘을 불공을 하고 나오는데, 청설배가 열여 있어서 둘이는 밥을 많이 주고, 자기는 적게 먹은 사람은 둘이는 꼭 같이 좋은 배를 따고, 자기는 작은 걸 따다. 밥을 공편히 갈라 먹은 사람은 똑 같은 것을 셋을 따다. 또 한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은 큰 것으로 따고 두 사람에게는 작은 것을 줬다. 이렇게 지내다가 작은 것을 먹은 사람은 신선이 되고, 공편하게 갈라 먹은 사람은 정승이 되고, 욕심 사람은 들에 구렁이가 되어 지끼미가 되었다. 신선된 사람이 고을 안에 좋은 집을 지어 살았고, 정승이 나이 들어 구렁이가 된 친구를 만나 봤으면 해서, 들에 지끼미를 만나 신선이 된 친구를 찾아 간다. 신선이 소나무 뒤에 앉아서, 술을 주니 구렁이는 마시지 않고, 정승은 그것을 마시고 나와보니 노인이 눈을 같고 있었다. 그 노인의 증조부가 옛날 정승이 말을 매어 놓고 산속으로 들어간 후 종적이 없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을 듣는다.
구렁이 면한 시아버지(며느리 지혜로 산 시아버지)	『大系』 8-1, 116~118	인색한 사람이 자부(子婦)를 들어 놓았는데, 자부가 웃는 법이 없었다. 팥을 열어 섬을 많이 털어 곡식을 날려 말리려고, 새를 쫓는데, 새가 날아가자 며느리가 웃었다. 인색한 사람의 동생이 죽고, 동생 죽은 시체를 보려고 하니, 구렁이가 따라 와서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다. 오다가 바위 위에 올라 앉으니, 바위 밑에 구렁이가 구 개인데, 작은 구멍엔 구렁이가 들어가더라는 말을 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큰 구멍은 시아버지 들어갈 거라 하였다. 시아버지가 모면할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자, 며느리는 전지(田地)를 농사 짓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였고, 인색한 시아버지는 낱알이 나눠라 주고 구렁이를 면하였다.
구렁이가 된 처녀	『大系』 6-2, 764~765	과거를 보러 가는 가는데, 주막에 들르니 어던 처녀가 붙잡아 그것을 부리치고 감버렸더니 그 처녀가 죽어서 구렁이가 되었다. 훗날 벼슬을 하러 가다가 처녀가 살던 집을 찾아가 구렁이가 된 처녀를 만나 해원시켜 준다는 이야기이다.
구렁이가 된 어머니	『韓國口碑傳承의 研究』 247	바깥 출입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구렁이로 나타나자 아들 내외는 장터마다 다니면서 구경을 시켰다. 경치 좋은 곳에 머무르도록 하자 구렁이는 바위 구멍으로 드러났고, 그 후 집안은 큰 부자가 되었다.
구렁이로 변한 개의 복수	『한국의 민담』 (2), 63~65	예전에 어느 며느리가 시집살이가 심하여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 그 며느리는 개가 먹는 밥을 먹으려고 개를 굶겨 죽였다. 개는 죽어서 원수를 갚고자 구렁이가 되어 그 집으로 왔다. 이를 안 대사가 며느리를 살리려고 항아리에 들어가 있게 하고, 뚜껑을 덮어두었다. 그런데 구렁이가 와서 항아리를 감으니, 구렁이의 독이 항아리 안에 퍼져 며느리는 죽었다.
구불십년(拘不十年)	『大系』 1-4, 504~506	어떤 집에서 십여 년 동안 개를 키웠는데, 그 집 색시가 귀찮아서 “구렁이 같은 개라구”라고 한마디했다. 그러자 개가 없어졌다. 시아버지가 찾아보니 구렁이가 되어서 며느리를 죽이려 했다. 며느리를 독 속에 숨겨서 땅 속에 파묻고 돌레에 불을 돌려놓았는데 구렁이가 나타나 독 주위를 감았다. 구렁이가 사라지고 나서 보니 독 속에 며느리가 녹아서 죽어 있었다.
닭·개·지네·구렁이의 復讐	『韓國口碑傳承의 研究』, 196	어느 집에 오래 된 닭이 저녁마다 사람이 되어 말이 된 개를 타고 으스스한 동굴에 가서 지네와 구렁이에게 자신들을 구박하는 원수를 갚아 달라고 한다. 이를 안 주인은 큰 구렁이를 죽였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구박하거나, 오래 기를 것이 못된다.
개가 구렁이로 변하여 復讐	『韓國口碑傳承의 研究』, 196~197	어느 인색한 며느리가 기르는 개에게 맹물만을 주면서 길렀다. 참다 못한 개는 구렁이에게 며느리를 죽여 달라고 하였고, 이를 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독 속에 숨겼다. 구렁이는 그 독을 감아 며느리가 물로 변하고 말았다.
고양이의 복수	『大系』 7-6, 91~92	며느리가 고양이가 하도 알미워 죽여 버리고 대밭에 던졌다. 시아버지가 대밭에 큰 서기가 비치는 것을 보고 고양이의 행방을 묻고는 집안이 망할 것으로 생각했다. 어느 대사인데 물으로 잦어 물으로 가니, 며느리는 여차피 죽게 되고, 고양이가 집을 온통 망하지 못한다고 하며 게 하겠다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대사가 시키는 대로 종이로 며느리를 감으니 뱀이 독을 써서 며느리는 물이 되고, 뱀도 죽었다.



제 목	출 전	내 용 요 약
개가 둔갑하여 며느리를 죽이다	『大系』 1-1, 96~99	시아머니 시집살이로 마음대로 못먹는 며느리가 배가 너무 고퍼서 개에게 주라는 밥을 먹었다. 개가 말라 죽으니 덩불에다 버렸다. 그 개가 구렁이가 되어 원수를 갚으러 왔다. 며느리는 살려고 독안에 들어가니 구렁이가 독을 칭칭 감고 며느리를 죽였다. 시어머니가 밥도 주지 않고 심하게 굴어서 어쩔 수 없이 개를 굶긴 것인데, 그 며느리는 억울하게 죽은 것이다.
제사 잘 지내고 태어난 월사(月沙)	『大系』 3-2, 142~147	김사제라는 사람이 어떤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집주인의 부친 제삿날이었다. 김사제가 보니 혼령이 제사방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나오는 것이었다. 혼령에게 물으니, “국에는 구렁이가 서리고 밥에는 바위가 들어서 운감을 못했다”라고 했다. 주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내년에 다시 와 달라고 했다. 다음 해에는정성을 들여 제사를 차렸다. 김사제가 운감을 하고 나오는 혼령에게 물으니 “손자며느리가 정성을 들어서, 운감을 잘했는데 손자에게 달을 주고 간다.”라고 했다. 그 후에 태기가 있어 월사를 낳았다.
정성 없는 제사	『한국의 민담』 (2), 266~268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남의 묘 옆에서 잠을 자면서 묘의 영혼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가 있는 곳의 옆에 있는 묘의 영혼이 자기 제삿날이라고 집에 갔다와서는 피에는 바위가 들어 있고, 국에는 구렁이가 들어 있어 횡감에 손자를 아궁이에 넣고 왔다고 했다. 이튿날 아침, 그 사람이 지난밤에 제사 지낸 집을 찾아가서 제사상을 살펴보니, 피에는 돌이 들어 있고, 국에는 긴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다. 그의 말을 들은 집주인이 정성스럽게 제사를 다시 지내니, 아이의 화상이 바로 나왔다.
메밥의 머리털은 뱀	『大系』 9-2, 260	제사 때 메밥사에 머리털은 영혼에게 뱀으로 보이므로, 전라도 부근에서는 제사 3일 전부터 입막고 머리 빗어 싸맨다고 한다.
황금과 구렁이	『大系』 9-2, 664~666	봉사가 얹은뱀이를 엮고 얻어 먹으러 다니면서도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다니다가 얹은뱀이의 눈에 큰 황금 덩어리가 보였다. 자기가 황금을 차지하면 봉사가 섬섬할 것이고 봉사가 가져도 자기가 섬섬할 것 같았다. 그래서 어떤 장사하는 사람에게 황금 있는 곳을 알려 주었는데, 장사치가 가보니 구렁이였고, 화가 나서 구렁이를 장도칼로 두 개로 갈라 끊어 버렸다. 얹은뱀이와 봉사가 다시 가보니 황금이 두 개로 나뉘어 있었다. 황금을 서로 나눠 가지고 잘 살았다.
형제투금(兄弟投金)	『大系』 1-4, 949~950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이를 주었다. 형제는 마음 속으로 욕심이 생기자 동기간에 의리가 끊어질까봐 금덩이를 던져 버렸다. 저기 오는 사람에게 금덩이를 주어 가라고 했다. 그 사람이 그곳에 가보았더니 구렁이가 있어서, 그것의 허리를 끊어버렸다. 이듬해에 형제가 금이 있던 장소에 가자, 금이 갈라져 있어서 그걸 나누어 가지고 잘 살았다.
淸太祖 基 1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咸鏡北道 篇)』, 307~310	정충신이란 사람이 우물가에 구렁이가 있다고 해서 가보았더니, 구렁이가 아니고 보검이라는 이야기
淸太祖 基 2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咸鏡北道 篇)』, 310~312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렁덩덩 신선비	『한국의 민담』 (2), 186~188	옛날에 어느 할머니가 고추밭에서 알을 하나 주워 먹고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는데, 구렁이였다. 아랫집 막내딸이 와서 보고는 칫재와 돌재딸과는 달리 ‘구렁덩덩신선비’를 낳았다고 했다. 구렁이는 아랫집 막내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어머니를 졸랐다. 구렁이는 혼인 전날 허물을 벗고 멋진 선비가 되었다. 신선비는 허물을 아내에게 주면서 잘 보관하라고 했다. 신선비가 과거를 보러 간 사이에 언니들이 동생 몰래 허물을 태워버렸다. 이를 안 신선비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남편을 찾아 나선 막내딸은 산전 일구기, 삭경이 따주기, 빨래 해주기 등의 힘든 일을 해주며 길을 물어 남편 있는 곳을 알아냈다. 신선비는 그녀와 새로 얻은 아내에게 얼음 위로 물동이 이고 오기, 참새 얹은 나뭇가지 구해오기, 호랑이 눈썹 뽑아오기 등의 과제를 내면서, 통과하는 여인과 살겠다고 했다. 과제를 모두 해결한 그녀는 선비와 재결합하여 잘 살았다.
구렁덩덩 신선비	『한국의 민담』, 255~261	위와 비슷한 이야기
뱀신랑 신선비	『한국 민화에 대하여』, 107~110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렁덩덩 신선비	『대계』 1-2, 366~369	위와 비슷한 이야기

제 목	출 전	내 용 요 약
구령당당 신선비	『대계』 1-9, 453~460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당당 신선비	『大系』 1, 200~205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 선비	『大系』 8-1, 195~203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당당 신선비	『大系』 4-6, 584~586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당당 소선비	『大系』 4-5, 355~362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당당 소선비	『大系』 4-5, 162~165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당당 시선부	『大系』 5-5, 335~337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당당 시선부	『大系』 5-6, 754~757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당당 신선비	『大系』 5-7, 174~182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당당 시선부	『大系』 5-5, 698~700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당당 시선부	『大系』 5-5, 310~313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당당 신선부	『大系』 5-5, 262~265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당당 신선비	『大系』 5-5, 660~661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당당 신선비	『大系』 4-6, 178~188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당당 신선비	『大系』 4-6, 641~643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당당 신선비	『大系』 5-2, 226~228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당당 신선비	『大系』 5-4, 827~833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이에 시집간 막대밭	『大系』 6-1, 422~426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이와 대리장가	『大系』 6-1, 426~432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당당 신선비	『大系』 5-2, 640~643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당당 신선비	『大系』 5-1, 473~474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당당 신선비	『大系』 5-2, 176~178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당당 신선비	『大系』 2-6, 618~620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당당 신선비	『大系』 8-13, 558~564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당당 신선비 [백 신랑 친조씨와 은혜정지]	『大系』 7-13, 374~377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당당 신선비	『大系』 1-2, 366~369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당당 서선비	『大系』 6-8, 711~726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이를 낳은 할머니 (구령당당 신선비의 이본)	『大系』 4-1, 357~360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당당 새선비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北道篇)』, 631~632	위와 비슷한 이야기
구령이와 정승의 셋째딸	『大系』 7-4, 220~221	위와 비슷한 이야기
백 신랑의 슬픈 운명	『大系』 7-5, 44~45	위와 비슷한 이야기
소금장수와 구령당당 신선비	『大系』 4-6, 597~598	옛날에 가난해서 소금장수를 나갔다가 삼 년을 집에 안 들어와서, 집에서는 공금해서 생각했는데, 이 남자는 나가서 허물을 쓴 구령이를 만나 가지구 삼 년을 지내고 사는데, 허물을 쓴 구령이 여인이 집으로 돈을 부쳐서 집은 부자가 되었다. 삼 년만에 남자에게 돈을 주며 집에 갔다 오라 해서, 집에 가니 부자가 되어 있었다. 다시 그 여자에게 가보니 그 여자는 구령이 허물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구령이를 쓰다듬으면서, 구령당당 신선비가 되라고 하자, 허물을 벗고 선비가 되었다. 구령이가 죄를 벗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며 돈을 한 보따리 싸주면서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하며, 하늘로 올라갔다. 그 사람도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었다.
유금미 들과 용의 득천	『大系』 7-2, 289~290	구령이 한 마리가 승천을 하려는데 사람들이 '구령이 빠라'고 하자 승천을 하지 못한다. 이 구령이는 깡철이가 되어 지나는 곳마다 흉년이 들게 한다. 할머니가 유금미를 얻고 지나다가 승천하려고 꿈틀거리는 구령이를 본다. 유금미는 '할매, 용봐래이' 하고, 이 말을 듣고 구령이가 용이 되어 승천을 한다. 승천하면서 비를 많이 내리 이후 풍년이 계속된다. 그 아이의 이름을 '유금이 들'이라 한다.
유금미들	『大系』 7-2, 50~51	구령이가 용이라는 말을 듣고 용이 되어 득천하는 길에 유금이 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이다.

제 목	출 전	내 용 요 약
유금이 들	『大系』 7-15, 380~382	신라 때 임금이 포항으로 내려가는 성산미기가 막혀서 안강들이 전부 물구덩이가 된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죽으면 용이 되어서 득천을 해며 성산미기 처버려야겠다고 했다. 그 임금이 세상을 떠나고 용이 되어 포항 성산미기를 끊어 버리자 물이 쪽 빠져서 건천(乾川)이 되었다. 유금이 할머니가 유금이를 업고 갔다 오다가, 구렁이 한 마리가 누어 있는 걸 보고, 저 구렁이 봐라 했더니 아이가 용이 누워 있는 거라 하였다. 그랬더니 구렁이가 득천을 해서 하늘로 올라 갔다.
용이 되어서 득천한 김부대왕	『大系』 7-2, 47~49	용이 못 된 구렁이가 용이라는 말을 듣고 용이 되어 득천하면서 꼬리로 장애물을 치고 들을 만든다는 이야기이다.
유금ীদের 내력	『大系』 7-3, 210~211	옛날에 진부대왕이 용이 안 되고 유금이들에 큰 구렁이가 되어 있었다. 가는 사람 모두가 구렁이 굶다고 하는데, 아이가 할머니에게 그건 구렁이가 아니고 용라고 하는 소리를 득천했다. 득천하며 형산을 올라가는 걸음에 둘러쳤다. 그 아이가 유씨라서, '유금이들이다.'라는 말이 생겼다.
용이 된 김부 대왕	『大系』 7-3, 617~618	<김정락> 김부 대왕이 죽어서 용이 되어 섬을 쳐 버려야 왜놈이 안 건너올 거라고 했다. 왕이 죽어서 구렁이가 되었다. 유금이라는 아이가 '용님 나오신다'고 하니, 득천을 해서 지금 유금이 들이라 한다. 그 용이 동해 열두 섬을 다 치다가 울릉도는 차지 말라고 하늘에서 하자, 울릉도만 나뒀다. <이영우> 옛날에 경주가 강이었고, 큰 비가 와서 물이 차면 못이 되었다. 김부대왕이 소원하는 것이 물만 없으면, 경주를 보면 몇 년 후에 천년 도읍지가 될 것이라 하였다. 자기가 죽으면 용이 되어 득천을 할 적에 바리 포항 내려가는 푸주양살대기라는 잘매기만 끊어버리면 여기에 바다가 없어지고 좋다고 하였다. 왕이 세상을 뜨고 용이 되어 하늘에 득천해 올라 가며 양살대기를 끊었다.
용이 된 김부대왕	『大系』 7-6, 58~59	위와 비슷한 소재로, 김부대왕이 용이 되어서 일본 사람이 침입하지 못하게 동해의 섬을 쳐 없앴다는 이야기이다.
용이된 김부대왕 (金傅大王)	『大系』 7-3, 43	위와 비슷한 소재로, 형산강이 옛날에 영동할머니가 죽어서 물로 트지라고 유언을 했다. 죽어서 용이 되어 안강(安康)들이 강이었는데, 용이 꼬리로 막힌 데를 쳐 없애서 물이 쉽사리 흘러내리도록 했다.(이 이야기에서는 "김부대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김부대왕 호국룡	『人物傳說의 意味와 機能』, 48~50	김부대왕이 죽어 용이 되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용을 보고 뱀이라고 했다. 그 뱀이 울릉도를 제외하고 국토를 바꾸어 놓았는데, 유금이들도 그 때 커졌다.
용무물(龍泉)	『嶺南의 傳說』, 221	안동군 와룡면 중가구동에는 용우물이 있다. 옛날 이 속에 사는 가난한 젊은이가 결혼을 하여 옥동자를 얻었는데, 산모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아이의 명이 짧겠다고 하며 산밑에 수천 년 묵은 뱀이 있어서 아이 하나만 먹으면 승천할 수 있으니 아이를 제물로 바치면 큰 부자가 되고 다시 옥동자를 얻게 되리라라고 했다. 애석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아리를 산기슭에 갖다 놓았다. 그날 밤 소낙비가 퍼붓고 천둥이 요란히 울리면서 용이 승천했다. 그러자 그 집 앞으로 물이 밀어닥쳐 언덕을 이루더니 벗가마니가 슬하게 밀려와서 부자가 되었다. 용이 승천한 곳에는 용머리를 닮은 용우물이 생겼는데, 지금도 이 우물물을 먹으며 첫 아들을 얻는다고 한다.
용이 하늘에 올랐다는 용전(龍田)리	『大系』 7-1, 40~42	진부면 용전리는 원래 용전이 아니라 둔전평이었다. 옛날에 이곳에 모자가 살았는데, 뜻밖의 가뭄으로 흉년이 계속되자 어머니마저 알 수 없는 병이 들었다. 아들이 백일 기도를 드리자 신선이 나타나 가뭄 때문에 연못에 물이 적어 하늘에 못 오르는 천년 묵은 구렁이가 있는데 구렁이의 화풀이로 모친이 앓은 것이니, 연못에 물을 채우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아들이 물을 길어 붓다가 지쳐 쓰러지자 하느님이 효성에 감동하여 갑자기 천둥이 치고 소낙비가 쏟아져 연못에 물이 넘쳤다. 구렁이는 용이 되어 하늘에 올랐다. 그 후로 어머니의 병이 낫고, 용의 보답으로 비가 알맞게 내려 풍년이 들었다. 용이 올라 풍년이 드는 밭이라고 하여 용전리라고 한다.

제 목	출 전	내 용 요 약
용 못 된 깡철이	『大系』 8-1, 113~114	옛날에 한 사람이 산길을 넘는데, 마을 사람들이 집단 같은 것이 나타나 인명을 해치니 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사람이 가보니 용이 못된 커다란 깡철이가 고통스러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용님네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 가라고 빌었다. 그러자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그 사람은 많은 복을 받았다.
구렁이가 된 쌀장수	『한국의 민담』 (1), 85~86	쌀장수가 좀더 이익을 보려고 쌀에다 돌 같은 것을 섞어 팔았다. 그 삶은 그 별로 죽어서 구렁이가 되었다. 이를 본 그의 가족들은 절에 가서 빌기도 하고, 굿을 하기도 하여 그의 구렁이 허물을 벗겨 주었다.
구렁이가 된 막내	『集成』 (1), 154~163	옛날 삼형제가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다가 결심한 바가 있어, 도학(道學)을 배우기로 했다. 도학을 배운 후 삼형제가 갈길을 찾아 떠났다. 둘째는 평양감사가 되어 이곳 저곳을 순회하다가 큰 형을 우연히 만났다. 막내가 보고 싶다고 하자, 큰형은 주문을 외었다. 구렁이가 나타났고, 다시 도술로써 사람이 되게 했다. 큰형이 막내에게 뒷뜰에 가서 복숭아 세 개를 따오도록 했다. 막내는 복숭아가 네 개 달려 있는 것을 보고 풀레 하나는 먹어 버렸다. 이때문에 다시 구렁이로 변하였다. 둘째는 다시 되돌아 나오는데, 자기가 가마를 쉬게 하던 곳에 오니 흔적도 없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 보니, 몇 백년 전에 그곳에서 평양감사가 실종된 적이 있다고 했다. 순식간에 몇 백년이 흘러 버렸음을 알고, 둘째는 다시 형이 사는 곳으로 돌아와서 동삼을 먹으면서 신선이 되었다. 그러나 욕심 많던 막내는 끝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구렁이가 된 채 살았다.
용이 올라간 명당	『大系』 6-2, 767~770	동래정씨(東蒸鄭氏)가 부사 밑에서 심부름하는 퇴인으로 있었다. 새 부사를 신영맞이하러 갔다. 구부사댁이 올라 가니, 화지산 명당에 묘를 썼다. 가끔 묘를 보러 가다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큰 구렁이가 드러누어 있는 것을 보고, 용이 득천(得天)을 안하고 인간세상에 있는가라고 말을 하자, 일진광풍이 일어나고 벼락치는 소리가 나서 보니, 역적이 난다는 칼바위를 꼬리로 때려 없애버렸다. 꿈에 용이 나타나 다른 이들은 구렁이 봐라라고 하는데, 퇴인의 은덕을 입어 득천을 하게 되었다고 하며, 은공을 갚으려고 바위를 없애 버렸다고 한다. 이 후로 동래 정씨는 벼슬을 많이 하게 되었다.
승천한 용의 보은	『한국의 민담』 (2), 160~162	예전에 청양의 어떤 깊은 골짜기에 나물이 많아 뜯으러 오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그곳에 큰 구렁이가 나와 나물을 못 뜯게 되었다. 아래 마을 김진사의 딸이 그곳으로 나물을 뜯으러 갔다가 ‘곧 승천 하시요.’ 라고 말하니, 구렁이는 용이 되어 승천하였다. 그녀가 부여 지방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 용이 꿈에 나타나 고맙다고 하면서 앞으로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이 처녀가 노인이 되어 꿈을 꾸니, 용이 나타나 자기가 아무 곳으로 내려갈 터이니 물어 달라고 하였다. 그녀가 용을 물어주자 몇 달 도안 구렁네가 진동하였다. 그래서 그곳을 ‘구렁네’라 한다.
승천한 용의 보은	『한국의 민담』 (2), 162	위와 비슷한 이야기